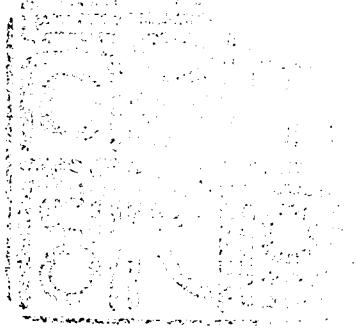


2001

# 남북관계동향

2002. 1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 목 차

## ☐ 제1호(2001.4.29 ~ 5.4) / 1

- 페르손 스웨덴총리, 남북한과 연쇄 정상회담 ..... 4
-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 7
- 대북 비료지원 선적선 첫 출항 ..... 9
-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11
- 북한, 주한미군 철수문제 강도 높게 거론 ..... 13
- 북·러 군사협력 협정서 체결 ..... 14
- 한·미 정상간 대북정책 논의 ..... 15
- 판문점 관련동향 ..... 16

## ☐ 제2호(2001.5.5 ~ 5.12) / 21

- 한·미간 대북정책 및 MD체제 관련 의견조율 ..... 24
- 북한, 최근 가뭄피해 보도 ..... 27
- 북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연일 비난 ..... 29
- 통일부, 금년 1/4분기 남북한 인적교류 현황 발표 ..... 30
- 판문점 관련동향 ..... 31

## ☐ 제3호(2001.5.13 ~ 5.19) / 35

-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관련 당정협의 개최 및 대북서한 전달 ..... 38
- 북한, 국제회의에서 아동사망률 등 발표 ..... 40
- 북한, 경수로공사 지연 관련 흑연감속로 가동 재개 주장 ..... 42
- 미국, 북한학자들에게 정식비자 발급 ..... 44
- 판문점 관련동향 ..... 45

☐ 제4호(2001.5.20 ~ 5.26) / 49

-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촉구 ..... 52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동향 ..... 54
-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개최 ..... 55
- ARF 고위관계자회의, 의장보고서에 한반도 조항 채택 ..... 57
- ASEM 외무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조항 채택 ..... 59
- 판문점 관련동향 ..... 60

☐ 제5호(2001.5.27 ~ 6.2) / 63

- 북한, 남북공동선언 1돌 관련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제의 ..... 66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협상 ..... 68
- 5월중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등 공개활동 동향 ..... 69
- 민간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 ..... 70
- 판문점 관련동향 ..... 72

☐ 제6호(2001.6.3 ~ 6.9) / 77

- 북측선박, 우리측 영해 및 NLL 무단 통과 ..... 80
- 부시 대통령, 대북정책관련 성명 발표 ..... 82
- 6·15 공동선언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실무접촉 ..... 84
- 김대중대통령, 김정일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재촉구 ..... 85
- 세계식량계획(WFP), 북한동향 발표 ..... 86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북결과 언급 ..... 88

☐ 제7호(2001.6.10 ~ 6.16) / 93

- 남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축하 전화통지문 교환 ..... 96
-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오찬 개최 ..... 98
-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 99
- 김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연내 답방 및 정상회담 정례화 촉구 ..... 101



○ 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 .....	102
○ 미·북 뉴욕접촉 시작 .....	103
<b>☐ 제8호(2001.6.17 ~ 6.23) / 107</b>	
○ 북한, 미국의 대화재개 성명 관련 외무성 담화 발표 .....	110
○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	112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114
○ 제3회 대북지원 국제 NGO 회의 개최 .....	115
○ 국제옥수수재단 협력사업 변경 승인 .....	117
<b>☐ 제9호(2001.6.24 ~ 6.30) / 121</b>	
○ 북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행사 동향 .....	124
○ 북한의 장길수 일가 관련반응 .....	126
○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방침 결정 .....	128
○ UN 인도지원조정국, 금년 1-5월 중 대북지원 내용 공개 .....	129
<b>☐ 제10호(2001.7.1 ~ 7.7) / 133</b>	
○ 김대통령, 남북당국대화 재개 전망 .....	136
○ 독일 의회, 「한반도 결의안」 채택 .....	137
○ 2001년 상반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	138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동향 .....	139
○ 북한 「통일신보」, 남측 인사 방북 인상기 게재 .....	140
○ 현대아산, 금강산사업 관련 대북연체금 송금 .....	141
○ 김정일위원장,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경축연회 참석 .....	142
○ 노르웨이 적십자사 국제부장, 방북결과 설명 .....	143
<b>☐ 제11호(2001.7.8 ~ 7.14) / 147</b>	
○ 정부, 정경분리원칙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입장 발표 .....	150

○ 북·미 실무접촉 동향 .....	152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동향(Ⅱ) .....	153
○ 상반기 남북경제협력 동향 .....	154
○ 김일성 7주기 행사 동향 .....	155
○ 「조·중 우호협조조약」 체결 40돌 관련동향 .....	156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북한 동향 .....	158
○ 방북 중 사망한 전 대한의협회장 시신 인도인수 동향 .....	159

**☐ 제12호(2001.7.15 ~ 7.21) / 165**

○ 대통령의 북미·남북대화 관련 발언 .....	168
○ 남북농민통일대회 동향 .....	169
○ 정부, IT 분야 남북경협사업 최초 허용 .....	170
○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설문조사 응답 내용 .....	171
○ 쿠라드 루브르와 주한 벨기에 대사 방북결과 설명 .....	173
○ 미국, 우리 정부에 「MD 설명자료」 전달 .....	174
○ 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 동향 .....	176

**☐ 제13호(2001.7.22 ~ 7.28) / 181**

○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동향 .....	184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Ⅰ) .....	186
○ 6.15~8.15 남북공동행사 동향(Ⅲ) .....	187
○ ARF,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 채택 .....	188
○ 한적, 금년도 제17차 대북지원계획 통보 .....	190
○ 통일부, 2001년도 상반기 남북교역동향 발표 .....	191
○ 통일부, 「6·15 금강산 랠리」 협력사업 승인 .....	192

**☐ 제14호(2001.7.29 ~ 8.4) / 197**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Ⅱ) .....	200
----------------------------	-----

- 6.15~8.15 남북공동행사관련 동향(Ⅳ) ..... 202
- 2001년도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물동량 동향 ..... 203
- 철원군, 지자체 최초로 북한과 교류협력사업 합의 ..... 204
- FAO/WFP, 2001년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 205
- 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의 동향 ..... 207
- 판문점 동향 ..... 210

**☐ 제15호(2001.8.5 ~ 8.11) / 215**

- 한적,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 성명 발표 ..... 219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동향(V) ..... 220
-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동향 ..... 222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간소화조치 발표 ..... 224
- 북한,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성명 발표 ..... 225
- UNC, 북한군 이승훈 하사 송환 ..... 227
- 日朝協會,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출연 ..... 228

**☐ 제16호(2001.8.12 ~ 8.21) / 231**

-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촉구 ..... 234
- 8·15 통일대축전 관련동향(VI) ..... 236
- 남북불교도, 6·15 공동선언 실천 동시법회 개최 ..... 238
- TKR-TSR 연결사업 관련 러시아 동향 ..... 239
-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 ..... 240

**☐ 제17호(2001.8.22 ~ 8.25) / 245**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방북 동향 ..... 248
- 김정일 위원장 귀환 관련 북한 동향 ..... 250
- 우리측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련동향 ..... 251
-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북한,반응 ..... 253

☐ 제18호(2001.8.26 ~ 9.3) / 255

- 북한, 남북당국대화 재개 제의 ..... 258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8.15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 ..... 260
- 2001 평화촌행사조직위, 「평화촌」(PEACE CAMP OF KOREAN DMZ 2001) 행사 추진계획 발표 ..... 262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남북평화정착사업(안)」 제안 ..... 264

☐ 제19호(2001.9.2 ~ 9.8) / 267

- 남북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합의 ..... 270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개천절 행사 공동개최 제의 ..... 273
- 북·중 정상회담 개최 ..... 274
-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관련 입장 발표 ..... 277

☐ 제20호(2001.9.9 ~ 9.22) / 281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284
- 범민련, 강령 및 규약 수정 발표 ..... 286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내용 발표 ..... 287
-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 관련 개선과제 발표 ..... 289
- 통일부, 1-8월 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290

☐ 제21호(2001.9.23 ~ 10.6) / 293

-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개최 ..... 296
- 북한,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공식유감 표명 ..... 298
- 통일부,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299
- 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301
- 북한의 태권도 현황 ..... 303

☐ 제22호(2001.10.7 ~ 10.14) / 309

- 북한,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 연기 발표 ..... 312
- 노동당 창건 56돌 기념행사 동향 ..... 316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 ..... 318
- 삼성전자, 남북공용 「통일위드」 개발 ..... 320

☐ 제23호(2001.10.14 ~ 10.24) / 323

-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간 전통문 교환 ..... 326
- 남북대화 일정 관련 북한 동향 ..... 330
- UN 인도지원조정국, 북한의 홍수피해 상황 발표 ..... 332
- 통일부, 금년도 1~9월 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335
- 한국무역협회, 북한 IT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활성화방안 제시 ..... 337

☐ 제24호(2001.10.25 ~ 11.3) / 341

- 남북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합의 ..... 344
- 한적,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 347
- 북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발언 사과 주장 ..... 348
- 美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관련 내용 ..... 349
- 美 전략문제연구소, 「남북관계 보고서」 발표 ..... 353

☐ 제25호(2001.11.4 ~ 11.24) / 357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361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북측의 대남동향 ..... 364
- 미국의 대북한 「생물무기개발국」 공개지목 동향 ..... 366
- FAO/WFP, 금년도 북한 곡물작황평가보고서 발표 ..... 367
- 제13차 IFRC 총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동향 ..... 370

☐ 제26호(2001.11.25 ~ 12.1) / 375

-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 개최 ..... 378
- 국방부, DMZ내 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대북성명 발표 ..... 380
- UN, 「2002년도 UN 합동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382
- WFP, 「2002년도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385

☐ 제27호(2001.12.2 ~ 12.11) / 389

- 한적,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 392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북 농산물지원 동향 ..... 393
- IFRC, 2002년 및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 발표 ..... 394

☐ 제28호(2001.12.12 ~ 12.21) / 397

- 조평통 대변인, 최근 남북관계 관련 담화 발표 ..... 400
- 통일부, 1-11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402
-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405

☐ 제29호(2001.12.22 ~ 2002.1.2) / 409

-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412
-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413
- 북한, 일본의 피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416
-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 419
-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 420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1호>

2001. 4. 29 ~ 5. 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페르손 스웨덴총리, 남북한과 연쇄 정상회담
-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 III. 관련 동향

- 대북 비료지원 선적선 첫 출항
-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북한, 주한미군 철수문제 강도높게 거론
- 북-러 군사협력 협정서 체결
- 한·미 정상간 대북정책 논의
- 판문점 관련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통령은 5.3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언급내용을 전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면 서울답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임.”**

- 「슈퍼선」호가 울산항을 출항(5.2)함으로써 대북 비료지원(20만톤)이 시작 되었으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대순진리회의 벼 240톤, 국립보건원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약품, 국제 옥수수 재단의 슈퍼옥수수 배양종자 등

## ◀ 북한 동향 ▶

-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 및 김동신 국방부장관의 국회 발언 비난이 강화되었음.

\* “미군철수는 조선문제의 관건적 고리”(5.1, 중방), “민족배신자를 그냥 둘 수 없다”(4.30, 노동신문)

## ◀ 주변국 동향 ▶

- 미 국무부는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다른 6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4.30)

\* 이에대해 북한은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범죄행위”라며 비난(5.3)

- KEDO 대표단 방북(5.1), 미군유해 발굴단 방북(5.2)

## II. 주요 현안

### 1. 페르손 스웨덴총리, 남북한과 연쇄 정상회담

#### □ 개 요

-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EU 의장 자격으로 5.2~4 남북한을 연쇄 방문, 남북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개최

#### □ 주요 내용

〈김정일 위원장 - 페르손 스웨덴총리 회담〉 \* 5.3, 백화원초대소 영빈관

- 페르손 총리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대외 경제개방 및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EU는 대북경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희망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회담이 없을 것이며 북의 미사일발사 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쌍방은 다음 사항에 합의
  - 북한의 경제개혁 모델 연구를 위한 북한 고위조사단을 올여름 유럽지역에 파견
  -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 EU-북한간 대화 필요

〈김대중 대통령 - 페르손 스웨덴총리 정상회담〉 \* 5.4, 청와대

- 김대통령은 EU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페르손 총리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EU의 건설적 기여를 평가
- 페르손 총리는 김대통령과 한국정부가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
  - \* 페르손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김대통령에게 전달

□ 분석 및 평가

- 페르손 총리의 남북한 연쇄방문은, 서방국가 정상으로서는 최초 방북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최근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북-EU정상회담을 통해 △ 미사일 발사 2003년까지 유예 선언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희망 의사를 밝힘으로써
  - 우리측과 미국에게 대화 및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 북한-EU 관계개선 일지

- 1999. 9. 21 북한-EU 각료급 회담 (핀란드가 EU순번제 의장국 역할 수행)
  - \*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핀란드 유카 발타사리 외무차관, 뉴욕 유엔본부
- 2000. 1. 4 이탈리아, G7국가중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
- 2000. 7.10 프랑크 헤스케 주한 EU대표부 대사, EU-북한 고위급회담 용의 표명
- 2000. 9.27 백남순 북한 외무상, 이탈리아 방문
  - \* 투자보장, 경제협력, 문화과학협력 등 3개분야 협정 체결
- 2000.10.31 유럽의회 대표단 방북(단장: 자크 샤타르 전EU 집행위원장)
- 2000. 12.12 영국과 수교
- 2001. 1.15 네덜란드와 수교
- 2001. 1.23 벨기에와 수교
- 2001. 2. 6 EU 경제협력대표단 방북
- 2001. 2. 7 스페인과 수교
- 2001. 3. 1 독일과 수교
  - \* 외교관·원조기관 요원 및 취재기자의 북한내 자유활동 보장원칙 등 합의
- 2001. 3. 5 룩셈부르크와 수교
- 2001. 3. 8 그리스와 수교
- 2001. 3.22 북한, EU의장국 스웨덴 페르손총리 방북 초청
- 2001. 4. 2 EU집행위, 회원국에 북한과의 수교 관련 의견수렴
- 2001. 4.10 스웨덴 정부, 페르손 총리 남북한 연쇄방문 계획 발표

## 2.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 □ 개 요

- 분단이후 첫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가 5월 1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에서 남북 노동자 및 관계자 1,0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북남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라고 지칭 보도

### □ 주요내용

#### <참석 인사>

- 남측은 정인숙 여성위원장 등 「민주노총」 294명, 권원표 상임부위원장 등 「한국노총」 236명 참석
- 북측은 「직총」 리진수 중앙위 부위원장 등 온정리 부근 거주 노동자 500여명 참석

\* MBC, 한겨레신문 등 보도진 21명 참관 보도

#### <주요 일정>

- 4.30 저녁, 속초항 출발하여 장전항 도착
- 5. 1, 기념식, 북측환영공연, 축구 등 합동 오락경기
- 5. 2 오전, 금강산 관광, 오후 장전항 출발

## <기념식 행사 내용>

- 북측은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북남노동자들이 국제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함께 모였다. 6·15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주장(「직총」 중앙위 최창만 조국통일운동부장)
- 남측은 “남북노동자들은 외세의 무력적 위협을 반대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민주노총」·「한국노총」)
- ※ 기념식 후 「모란봉 교예단」 공연, 「철도성 로동계급 취주악단」, 「직총 중앙위 선전대」 노래공연 등 환영행사 관람과 「축구 경기」, 「밭줄당기기」, 「공안고 달리기」 등 행사 참여

## □ 분석·평가

- 행사규모 측면에서 1천여명이 넘는 남북 노동자가 만난 점에서 남북간 단일 교류행사로는 최대 규모
- 행사내용 측면에서 “외세배격 강조” 등 부분적으로 정치적 주장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 「민주노총」 이규재 부위원장은 방북 불허(동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중)

### Ⅲ. 관련 동향

#### 1. 대북 비료지원 선적선 첫 출항

##### □ 개 요

- 대북 비료지원(20만톤)을 위해 최초 출항하는 「슈퍼선」호가 5.2 요소비료 1만3천톤을 싣고 남포항을 향해 여수항을 출발하였음.

##### □ 관련 내용

- 규모·비종 : 20만톤, 요소 및 복합비료 중심
- 수송계획 : 남포항 등 6개 항구에 24회에 걸쳐 6월초 수송 완료
- 지원경비 : 680억원 내외 추정,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총당
- 비료지원 배경
  - UNDP는 북한의 비료부족 상황(35만톤 부족)을 알리면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지원 호소(4.3, 특별보고서)
  - 북적(北赤)은 한적(韓赤)총재 앞으로 요소비료 20만톤의 조기지원을 요청(4.19, 대남전통문)
  - 정부는 북측의 식량·비료난, 국내 수급사정과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고, 국회 사전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대북지원 결정

- 북한의 비료 부족량 : 64.4만톤 추정
  - 생산능력은 93.6만톤(전년 수준), 수요량은 158만톤
- 국내 수급사정 및 대북지원 여력
  - 우리의 비료 생산능력은 460만톤으로 국내용 300만톤, 수출용 100만톤을 감안할 때, 50-60만톤의 지원여력 보유

※ 과거 대북 비료지원 실적

- 정부차원 : 99년 11.5만톤, 00년 30만톤
- 민간차원 : 97년이후 총 6.1만톤

□ 분석 · 평가

- 비료지원의 효과는 단순 식량지원에 비해 2.5~3배의 식량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20만톤의 비료 지원은 50-60만톤의 식량증산 효과 예상
- 금번 비료지원이 북한의 식량증산에 기여하여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과 동시에 남북간 신뢰조성 및 화해 ·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2.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 개 요

- 미 국무부는 2001. 4. 30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다른 6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
  - 북한은 1988년 이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 □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 작년 미국은 북한과 3차례의 테러관련 협의를 가져, 테러리즘 반대 재천명 및 반테러 국제활동 지원 동의 등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은 1970년 일본항공기 납치 적군파에 대해 지속적인 은신처를 제공하고 국제테러 단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다는 일부 증거가 있음.
- 필리핀 당국자는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이 중동계 자금지원으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음.

### □ 분석 및 평가

- 미국은 비록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예년과는 달리 미·북간 테러관련 협의 진행 사실과, 북한의 협의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표현

- 지난해에는 북한이 Osama Laden과 관계가 있다고 직접 지적
  - \* Osama Laden은 미국이 케냐·탄자니아 대사관 테러사건 배후 조정자로 단정하고 있는 인물
-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올해에도 사실상 불가능
  - 부시 행정부는 핵, 미사일 문제 협상에 대북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
  - ※ 이에 대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책동의 일환으로서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비난(5.3, 중통 논평)

### 3. 북한, 주한미군 철수문제 강도 높게 거론

#### □ 개 요

- 북한은 최근 관영 노동신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미·북간에 해결해야 할 ‘관건적 고리’라고 주장하는 등 점차 이슈화하고 있음.(5.1 중방)

#### □ 주요 요지

- 미국의 북침전쟁이 준비단계에서 실천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같은 정세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대미정책의 최우선 과제임.
- 우리의 위협설을 터무니없이 걸고 드는가 하면, 불량배국가,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부치며 제1 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음. 우리는 미국의 선택권 행사에 대응하여 우리식의 자주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
- ※ 한편 4월 16일 노동신문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군축을 할 수 없으며 △군축의 선결과제는 미군철수이고 △한반도 군축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주장

#### 4. 북-러 군사협력 협정서 체결

##### □ 개 요

-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4월 26일~ 28일 러시아를 방문, 2개의 북-러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 국내 언론은 4.30부터 본격 보도)

##### □ 주요내용

- 4월 27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일리야 클레바노프(I.I Mlevanov) 군사담당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조-러 두나라 사이의 군사기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문」을 체결
- 또한 이바노프(Ivano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나라 무력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문」에 서명
- 이러한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7,000억원 상당의 첨단무기를 북한에 공급하고 군사전문기술자들을 파견하여 노화된 장비를 보수할 것으로 예상

##### □ 분석·평가

- 러시아는 이번 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
  - 작년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대리 발사 아이디어를 전달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 표출

- 북한도 군사장비 현대화의 필요성 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가능성에 대한 대응카드로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

## 5. 한·미 정상간 대북정책 논의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월 2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과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

### □ 주요 내용

- 부시 대통령은 MD 계획 추진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하고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
- 김대중 대통령은 MD 추진과정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미북·남북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현재 진행중인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미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 6. 판문점 관련 동향

### □ 한적, 대북비료지원관련 수송계획 문건전달

- 우리측은 4.30(월)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 통해 비료 20만톤 지원관련 1~3항차 수송일정 및 항차별 인도요원 명단 등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금번 비료지원 물량은 24,000톤(요소 18,000톤, 복합 5,000톤)임.

### □ 대북 비료지원 관련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접수

- 우리측은 4.30(월) 15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우리측 인도요원에 대한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북측 항구별 비료물량 접수계획 원본을 접수하였음.
- \* 이에 앞서 북측은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항구별 비료물량 접수계획 사본을 4.28(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4.30 김대통령, “햇볕정책은 남북한 모두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대안” 언급  
(말레이시아 국왕 환영만찬시)
- 4.30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현대상선은 향후 금강산 사업에서 빠질 것”  
이라고 언급
- 5. 1 대순진리회(종무원장 이유중)는 러시아 연해주 ‘젼추스니’ 농장에서  
재배한 벼 240톤을 북한에 전달
  - \* 대순진리회는 매년 러시아 농장에서 재배되는 벼(200~240t)를 북한의 식량난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
- 5. 2 대북 비료지원(20만톤)을 위한 선적선 첫 출항
  - \* 「슈퍼선」호, 울산→남포, 요소비료 1만3천톤 선적
- 5. 2 국립보건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약품 대북지원 발표
  - \* 미화 50만달러 상당의 현물과 현금 5천만원
- 5. 2 통일부, IT업체 2개 회사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 \* 하나비즈 닷컴(주), 엔트랙(주)
- 5. 3 김대중 대통령, EU의장국 자격으로 방한한 페르손 스웨덴총리와  
정상회담
  - \* 5.2-3 페르손 총리 EU의장국 자격으로 방북(5.3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 5. 4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 슈퍼옥수수 배양종자 대북지원

## 북한 동향

- 3.23 최수현 외무성부상,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면 미국과 미사일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언급(4.30 서울 외교소식통)
- 4.30 북한 조선중앙TV, “봄철 가뭄으로 농작물피해 우려” 보도
  - “지난 3.3 전국적으로 6mm 정도의 비가 한 번 왔고 3.14 3mm 내린 후 비가 오지 않고 있음.”
- 4.30 북한 노동신문, 김동신 국방장관 국회답변 비난
  - “우리 공화국을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통일도 다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임.”
- 5. 1 남북 공동노동절 행사 개최(금강산)
- 5. 1 북한 조선중앙TV,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종환(79)씨 불치병으로 사망 보도
- 5.2-3 페르손 총리 EU의장국 자격으로 방북(5.3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 주변국 동향

- 4.29 러시아, 북한에 첨단무기 판매 합의 (영국 선데이 타임스 군사소식통 인용 보도)
  - 제트전투기, 정보수집시스템, 기타 첨단기술장비 등 3억 5천만파운드 (7천억원)



- 5.1-8 KEDO 대표단 전문가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
  - 평양에서 고위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사일정에 따른 문제 논의
- 5. 1 미 국무부, 북한을 다른 6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4.30 연례 테러보고서)
  - \* 이에대해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책동의 일환으로서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비난(5.3, 중통)
- 5. 1 김정남(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남)으로 추정되는 인사,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출입국 관리들에 체포(5.3 교토통신)
  - \* 일본정부, 5.4 10:45 김정남 추정인사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중국으로 추방
- 5. 2 미군 유해 발굴단 평양 도착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2호>

2001. 5. 5 ~ 5. 12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한·미간 대북정책 및 MD체제 관련 의견조율
- 북한, 최근 가뭄피해 보도

### III. 관련 동향

- 북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연일 비난
- 통일부, 1/4분기 남북한 인적교류 현황 발표
- 판문점 관련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통령은 5.9 방한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대북 정책과 MD(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해 한·미 양국간 상호의견을 조율 하였음.
  - 아미티지 부장관은 부시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 \* 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②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측 입장 최대 반영 ③ 조만간 미·북 대화 재개 등
- 통일부는 5.9 금년도 1/4분기 남북한 인적교류현황을 발표하였음.
  -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방북인원 21.6%, 북한주민접촉 93.2% 증가

## ◀ 북한 동향 ▶

-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최근 북한 전지역에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 하였음.(5.4, 5.8 중통)
- 북한의 각급 기관·단체들은 일본정부가 검정·통과시킨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력 비난하는 담화를 연일 발표하였음.
  - \*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4.30),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5.2), 외무성(5.3),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5.3), 농근맹(5.8) 등

## ◀ 주변국 동향 ▶

- 미국은 고위관리를 주요국가에 파견, MD추진 관련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음.
  - \* 영국·벨기에·일본(5.8), 한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5.9), 독일·이탈리아·폴란드·러시아(5.10-11) 등

## II. 주요 현안

### 1. 한·미간 대북정책 및 MD체제 관련 의견조율

#### □ 개 요

- 리처드 아미티지(R.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이 방한(5.9-10), 김대중대통령 예방 및 부시대통령 친서 전달(5.9), 임동원 통일(5.10)·한승수 외교(5.9)·김동신 국방장관(5.10) 방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미사일 방어체제문제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호의견을 조율

#### □ 주요 내용

- 미 부시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②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측 입장 최대 반영 ③ 조만간 미북 대화 재개 등을 밝혔음.
  -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안보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아미티지 부장관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의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준수와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를 재표명
  - 아미티지 부장관은 5.9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곧 완료되며, 미·북 대화가 가까운 장래에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
  - \* 이에 대해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5.10)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언급

- 또한 아미티지 부장관은 MD 계획이 △ 대량살상무기 非확산 (non-proliferation) △ 대량살상무기 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 핵무기 일방적 감축 등과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적 틀(new strategic framework)의 구성요소라고 설명
  -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틀에 따라 △ 미 국방정책의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전환 △ 해외배치 전력 의존도 감소 및 신속배치 능력 증강 △ 정보시스템 절대적 우위 유지 △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경량화 등을 추진
  - \* 아미티지 부장관은 “MD 체계는 불량국가의 미사일 개발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 미국측은 MD에 한국의 참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으며, 우리측은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구상에 대한 이해’를 표명
- 한편 북한은 아미티지 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MD 구상을 설명한 것에 대해 “일본을 MD체제 수립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난(5.10조선중앙방송)
  - 그러나 아미티지 부장관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침묵
  - \*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MD 강행과 아미티지 방한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시위를 벌였음.

## □ 분석 및 평가

-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 향후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대북포용정책이 될 것임을 강력 시사

- 다만 미-북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 시기는 5월말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TCOG)와 6월초 한미외무장관회담 개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부시 행정부의 MD 체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우방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은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노선을 우려하고 있는 우방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
  - \* 미국은 영국·벨기에·일본(5.8), 한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5.9), 독일·이탈리아·폴란드·러시아(5.10, 11)에도 고위관리를 보내 MD 추진에 대한 지지를 요청

- ① ABM : 상호파괴(mutual destruction)에 기초해 핵안정성을 이룬다는 취지로 72년 미소간 체결된 조약
- ② CTBT : 각국이 유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어떠한 목적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96년 체결. 미국은 97년 상원이 조약인준을 거부
- ③ NPT : 핵무기 관련 기술이전과 다른 국가의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보유를 금지하는 협약, 70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최초 체결



## 2. 북한, 최근 가뭄피해 보도

### □ 개 요

-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최근 북한 전지역에 가뭄이 계속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

\* 5.4, 5.8 중앙통신

### □ 주요 내용

-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60여 일간 북한 각지에 가뭄 지속
  - 3.1~5.4까지의 북한지역 평균 강수량은 15mm로 평년 83mm의 18% 수준에 불과
  - 황해남북도 강수량은 9mm로 기상관측 이래 최저치이며, 함경남북도는 58일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
-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막대한 피해 발생
- 협동농장 운반수단 및 관개수단등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가뭄 피해 최소화 노력

### □ 분석 및 평가

- 금년도 농작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은 5월 중순 이후의 기상상황을 좀 더 지켜 보아야 판단 가능

※ 금년도 북한의 강수실태

- 북한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3~5월 중 강수량이 평년의 약50%에 그치는 가뭄이 발생
  - 지난해에는 이러한 가뭄현상이 7월까지 계속(5~7월 강수량 평년대비 60%)되어 곡물생산량 감소를 초래
  - \* '99.1~5월에도 황해도, 양강도 등에서 가뭄 발생

〈북한 시도별 평균 강수량 현황〉

구 분	금 년	평 년	평 년 비(%)
평양시	11.0	97.3	11
함경북도	12.2	76.2	16
함경남도	23.0	96.8	23.8
양강도	41.3	97.5	42.4
자강도	23.6	85.2	27.7
평안북도	26.0	91.0	28.6
평안남도	12.4	82.2	15.1
황해북도	13.1	107.5	12.2
황해남도	13.6	89.7	15.2
강원도	38.3	117.7	32.5

기간: 2001.3.1~5.7(단위:mm)

- ※ 시도별 강수량 현황은 북한이 평양, 신의주, 남포 등 북한내 27개 지역에서 관측하여 세계기상기구(WMO)에 日別로 보고한 강수량을 토대로 산출

### Ⅲ. 관련 동향

#### 1. 북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연일 비난

##### □ 개 요

- 북한은 각종 기관 및 단체를 내세워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연일 강력 비난

##### □ 주요 내용

- 북한 교육성은 대변인 담화(5.7)를 통해 “일본이 과거 범죄를 미화 분식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 윤리에 대한 도전이며, 군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도 중앙위 대변인 담화(5.7)를 통해 “일본의 극우익 보수세력들이 과거의 반인륜적이며 패륜적인 침략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기관 및 단체는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4.30),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5.2), 외무성(5.3),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5.3), 「농근맹」(5.8) 등임.

## 2. 통일부, 금년 1/4분기 남북한 인적교류 현황 발표

### □ 개 요

- 통일부 교류협력국은 5.9 금년 1-4월중 남북한 인적교류 현황을 발표

### □ 주요내용

- 북한 방문
  - 4월중 방북인원 437명, 1-4월 방북인원 1,798명
  - 전년동기(1-4월) 1,479명 대비 21.6% 증가
    - \* 2001년 1-4월 남한 방문인원은 145명임
- 주민접촉 현황
  - 4월중 북한주민접촉 99명, 1-4월 북한주민접촉 914명
  - 전년동기 473명 대비 93.2% 증가
- 금강산 관광객 현황
  - 4월중 금강산 관광객수는 5,859명임

### □ 평 가

- 금년 1-4월중 방북인원은 작년동기대비 21.6%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접촉도 93.2% 증가하였는 바
  - 이는 남북관계의 일시적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경험 및 사회 문화교류행사 추진 등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3. 판문점 관련 동향

#### □ 대북비료지원관련 4-10항차 수송계획 통보

- 우리측은 5. 7(월)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 통해 비료 20만톤 대북지원관련 4~10항차 수송일정 및 항차별 인도요원 명단 등을 북측에 통보하였음.
  - “4항차 수송선박은 복합비료 15,000톤을 신고 5. 9 여수항을 출항하게 되며”
  - “5.15 10항차 물량까지 요소비료 20,000톤, 복합비료 32,000톤, 유안비료 5,000톤 등 도합 57,000톤의 비료가 북측에 전달될 예정임.”
- 상기관련 북측은 5. 8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5.12 남포항으로 수송하게 되어있는 복합비료 6,000톤을 “항구의 하역능력과 비료공급관계”상의 이유를 들어 송림항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우리측은 당일 북측 요청을 수락하는 전통문을 발송
- ※ 한편 한적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천주교사제단 등 민간단체 기탁 물자(구급차10대, 의약품, 이불·의류 등)전달 계획도 북측에 함께 통보하였음.
  - 지원물자 전달경로 : 5.8~12, 인천항 → 남포항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5. 7 외교통상부, 최근 경수로 화력발전소 대체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보도자료)
- 5. 8 노베르트 폴러스텐 박사, “대북지원 구호식량 주민배급에 문제” 주장  
(국회 인권포럼 주최 심포지엄)
  - \* 동인은 독일구호단체 소속으로 평양에서의 의료활동중 지난해 12월 추방된 인물
- 5. 9 이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김대중 대통령 예방 및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 \* 한승수 외교(5.9), 임동원 통일, 김동신 국방장관 방문(5.10)
- 5. 9 북한 평양정보센타, 통일IT포럼(회장 박찬모 포항공대 대학원장)에 250여종의 IT전문서적 기증 요청
  - \* 평양정보센타(PIC)는 북한의 대표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연구기관
- 5.11 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경운기 100대 대북지원 발표
  - 4.11부터 전개한 「희망의 경운기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경운기 100대를 5.15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

### ☞ 북한 동향

- 5. 7 북한, 평양 국제 상품전람회 개막(조선중앙방송)
  - \*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대만,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 기업 참가

- 5.10 북한, DMZ 경의선 공사 군 병력·장비 대부분 철수(정부관계자 발표)
  - 개성시 봉동, 미촌골, 남촌골 등 비무장지대(DMZ)

## ☞ 주변국 동향

- 5. 4 페르손 총리, “방북시 납치 일본인들의 명단을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납치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공개(교토통신 기자회견)
- 5. 7 페르손 총리, 방북시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계속할 경우 EU-북한간 대화 중단 의사 전달(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총리실 국무장관)
- 5.10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루이스 아얄라 사무총장 일행, 5.15~17 남 북한 동시 방문 추진(5.10 민주당 유재건 국제특위 위원장)
  - \* 동 단체는 세계 143개 사회민주당 계열 정당 모임으로서 총회 의장은 구티에레스 포르투갈 총리
- 5.10 탈북 여성 미국에 망명신청
  - 함북 무산출신 김순희(37)씨 제3국을 거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 시도중 체포 후 망명 신청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3호>

2001. 5. 13 ~ 5. 19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관련 당정협의 개최 및 대북서한 전달
- 북한, 국제회의에서 아동사망률 등 발표

### III. 관련 동향

- 북한, 경수로공사 지연 관련 흑연감속로 가동재개 주장
- 미국, 북한학자들에게 정식비자 발급
- 관문점 관련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남북경협 4개합의서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5.16), 국회 발효절차를 거친 조약방식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키로 결정
  - 5.18 대북서한을 통해, 4개합의서 발효문제 관련 우리측과 상응하는 발효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고, 상사분쟁중재위원회·청산결제은행 선정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안을 전달

## ◀ 북한 동향 ▶

- 북한은 국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각종 주요 경제통계를 발표하는가 하면, 보도매체를 통해 경수로 건설지연 보상이 없을 경우 흑연감속로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
  - 미·북협상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겨냥하여 북한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
  - \* 5.15 최수현 외무성 부상, 유엔아동기금회의시 「보고」를 통해 아동사망률, 평균수명 등 공개
  - \* 5.16 조선중앙통신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지연에 대한 상보」

## ◀ 주변국 동향 ▶

-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 미·북협상 및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한 기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 \*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후 미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5.14, 파월 미 국무장관)
  - \* “미국은 미사일 수출을 둘러싼 북한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하기로 결정”(5.15, 피트먼 미 국무부 대변인)
  - \* “미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전제로 이루어질 것”(5.15, 라이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 II. 주요 현안

### 1.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관련 당정협의 개최 및 대북서한 전달

#### □ 개 요

- 5.16, 정부는 여당(정책연합)과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문제에 관한 당정협의 개최
  - \* 5.18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대북서한 전달

#### □ 주요 요지

##### < 당정협의 주요내용 >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조약 방식으로 발효절차를 밟아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결정
  -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합의서 이행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신뢰확보 측면 고려
  - 다만, 남북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보는 것은 아님('민족 내부거래' 명시)
  - 기타 후속조치도 북측과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하기로 함

## < 대북서한 주요 내용 >

- 발송일 및 방법 : 5.18(금), 판문점 연락관 접촉
- 명의 : 남북경추위 남측위원장 김진표(재경부 차관)  
→ 남북경추위 북측위원장 박창련
- 내용
  - 우리측은 남북경협합의서를 국회를 거쳐 조약방식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발효절차를 진행 하고 있음을 알리고 북측도 상응하는 방식으로 발효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
  -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리측 안을 전달하고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

## □ 분석 · 평가

-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문제에 대한 우리내부의 법적 절차를 거치고,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된 관련 합의서 상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려는 차원
- ※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제19조 제4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운영문제, 「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청산결제은행 선정문제 등

## 2. 북한, 국제회의에서 아동사망률 등 발표

### □ 개 요

- 북한 외무성 부상 최수현은 5.15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아동기금」(UNICEF) 회의(5.14-16)에서 ‘보고’를 통해 아동 사망률, 평균수명 등 최근의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였음.

### □ 주요 내용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1인당 GNP	'93~'99	991달러→457달러로 감소	534달러 감소
총인구	"	21,034천명→22,575천명으로 증가	1,541천명 증가
평균수명	"	73.2세→66.8세로 감소	6.4세 감소
출생률	"	2.2%→2.0%로 감소	0.2% 감소
아동(5세 미만) 사망률	"	1,000명당 27명→48명으로 증가	1,000명당 21명 증가
영아사망률	"	1,000명당 14명→22.5명으로 증가	8.5명 증가
식수제공률	'94~'96	86%→53%로 감소	33% 감소
예방접종률	'90~'97	90%→50%로 감소	40% 감소
홍수피해	'95	150억 달러	

## □ 분석 · 평가

○ 북한 고위관리가 「인구」·「1인당 GNP」·「아동사망률」 등의 각종 주요통계를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바

- 이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자연재해 등으로 '96년도에 5세미만 아동 134명이 사망하였다고 '97.4.8 북한당국이 발표한 것이 유일한 사례임.

※ 한편 북한은 상기 '보고서'와 관련 5.16 중방을 통해 통계자료는 생략한 채 북측 대표연설 요지만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

· 우리의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적극 협조해준 「유니세프」를 비롯한 유엔기구·국가·비정부기구들에 사의를 표함.

· 앞으로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아동보호시책과 제도적 장치들은 부단히 개선해 나갈 것임.

·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자연 재해 이전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계속 큰힘을 넣을 것임.

### Ⅲ. 관련 동향

#### 1. 북한, 경수로공사 지연 관련 흑연감속로 가동 재개 주장

##### □ 개 요

-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경수로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분을 미국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할 것”이라고 주장

※ 5.16 중통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지연에 대한 상보」

##### □ 주요 내용

-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 정도의 부지정리공사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
-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공인된 규범이며 이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음.
-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50만의 중유는 합의문 채택 당시 북이 당장 조업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있던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을 동결시킨 대가로 제공하는 것임.
- 미국이 2003년 경수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동결 해제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



## □ 분석 · 평가

-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임박 및 최근 미국 지도부의 대북강경입장 표출에 맞춰 나온 점에서
  -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강경입장을 완화시켜 보려는 “위협” 또는 “시위” 목적이며
  - 향후 북·미대화 재개시 미국의 “의무불이행”을 내세워 협상력을 제고 시키고 경수로 건설지연 보상요구를 기정 사실화 시키려는 의도 등이 내포

## 2. 미국, 북한학자들에게 정식비자 발급

### □ 개 요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CPIT) 김정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교수, 연구원 5명은 오는 2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오레곤주 포틀랜드 주립대(PSU)를 방문(5.16 연합뉴스)

### □ 주요내용

- 북한실무연구단은 PSU의 자유시장경영개발연구소에서 수강 및 실리콘 벨리에 있는 휴렛 팩커드 등 하이테크 업체 견학 예정
  - 북한 실무연구단은 PSU측과 북한 학생들의 유학, 영어 및 자본주의 경제이론 등을 배우기 위한 세부방안 논의 계획
  - 또한 PSU 교수들이 북한에서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첨단산업 등에 관해 강의하는 문제도 협의할 계획

### □ 분석 · 평가

- 북경주재 미대사관이 북한실무연구단에 정식비자를 비자신청 48시간만에 신속히 내준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자세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
- \* 북한학자들이 조총련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하여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독자적으로 정식비자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

### 3. 판문점 관련 동향

#### □ 대북비료지원 관련 제11~20항차 수송계획 통보

- 우리측은 5.17(목)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 통해 비료 20만톤 대북지원 관련 제11~20항차 수송일정 및 항차별 인도요원 명단 등을 한적총재 명의의 문건으로 북측에 통보하였음.
- 제11항차 수송선박은 5.19(토) 여수항에서 요소비료 5천톤, 복합비료 1만톤을 싣고 북측 남포항으로 향하며, 5.30까지 요소비료 2만5천톤, 복합비료 5만7천톤, 유안비료 5천톤 등 도합 8만7천톤의 비료가 북측에 전달될 예정임.
- 한편 지난 5.2부터 5.16까지 제1~7항차 선박이 출항, 도합 5만 5천톤의 비료를 전달 완료하였으며, 제8~10항차 선박은 북측 지역 항구에서 하역작업 중이거나 하역 대기 상태에 있음.

#### □ 남북경협합의서 후속조치 관련 대북서한 전달

- 우리측은 5.18(금) 10:45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 후속조치관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김진표 재경부차관)명의로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 IV. 분야별 일지

### 국내 동향

- 5.15 현대상선측 금강산 유람선 운항 추가 감축
  - \* 당초 운항스케줄의 4분의 1 수준, 관광객수 작년수준 50%이하로 감소
- 5.15 SK 손길승 회장, “남북경협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남북 경제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연세대 강연)
- 5.15 이만섭 국회의장, 러시아 의회측에 남·북·러 3국 국회회담의 조속 주선 공식요청
- 5.1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농업협력본부소속 농업계 인사10명 내주 방북 발표
  - \* 상임본부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 5.16 남한 대학생 64% 김위원장 답방 환영
  - \* 전국대학신문연합 전국 대학생 1,378명 대상 설문조사
- 5.16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변호사),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난민지위부여요청 1천만명 서명서 유엔에 전달
- 5.16 함북출신 북한이탈주민 11명 입국
  - \* 금년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수 모두 161명
- 5.16 담배인삼공사, 북한돕기 5억원 기증
  - 북한 결핵환자치료용 엑스레이 검진차 2대, 수술기구 4세트의 구입자금
- 5.19 전국농민총연맹, 북한 「농근맹」과 6.26 금강산에서 남북농민 단오절 공동행사 개최 합의 발표

## ☞ 북한 동향

- 5.15 북한 「조선역사학회」, 일본의 역사왜곡 '사죄'강조
- 5.15-17 북한 대표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베트남 하노이) 참석
  - \* 단장 : 리용호 외무성 신퇴구축담당 참사
- 5.16 북한, 경수로 2기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을 미국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의사 언급(중통)
- 5.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일본 역사왜곡 공동대응” 공동성명 발표
  - △역사교과서의 왜곡금지 △올바른 역사관 정립 △ 성실한 사죄 및 보상 촉구
- 5.18 북한, 리성복 노동당 중앙위 서기장 사망 발표(중방)

## ☞ 주변국 동향

- 5.14 파월 미 국무장관, “대북정책검토가 끝난 후 미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CNN 인터뷰)
- 5.14 라이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국제민주연합 정책설명회)
- 5.15 미국 피트먼 국무부 대변인, “10만톤 대북식량원조 계속” 발표
  - 미국은 미사일 수출을 둘러싼 북한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원조 계속하기로 결정
- 5.15-19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국제진상조사단 방북(단장: 램지 클라크 前 미 법무장관)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4호>

2001. 5. 20 ~ 5. 26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촉구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동향

### III. 관련 동향

-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개최
- ARF 고위관계자회의, 의장보고서에 한반도조항 채택
- ASEM 외무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조항 채택
- 판문점 관련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중 대통령은 5.24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답방 일정 제시를 촉구”하는 등 최근 소강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은겨레손잡기운동본부」의 6.15선언 1주년 기념행사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제의(5.23), 「서울대학교수협의회」의 일본교과서 왜곡 남북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 제안(5.24)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 ◀ 북한 동향 ▶

- 북한은 김정일에게 「장군형의 정치가」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정보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주체의 과학정치」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
  - \* “선군정치 방식은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정치가에 의해서만 구현”(5.22, 평방)
  - \* 주체의 과학정치(5.19, 중방「정론」)는 광폭정치(80년대), 인덕정치(93년), 음악정치(2000년)에 이은 4번째의 상징어로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 과학기술화 작업의 일환

## ◀ 주변국 동향 ▶

- 한·미·일 3국은 TCOG회의 등을 통해 당면한 대북현안을 점검하고, 3국의 대북정책을 조율
  - \*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5.26, 하와이), 한·미·일 비공식 대북정책 검토회의(5.28-29)
- ARF, ASEM 등 국제회의에서는 의장보고서·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평가하고, 제2차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강조
  - \*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5.17-18, 하노이), 제3차 ASEM 외무장관회의(5.24-25, 베이징)

## II. 주요 현안

### 1.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촉구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5.24(목) 서울 상주 외신기자 다과회에서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언급

#### □ 주요 내용

-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임. 나는 지난해 7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서울방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음.
  - 북한은 여러차례 남북공동성명 준수를 다짐했음. 남북공동 성명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명시돼 있음.
  -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주고, 이를 세계에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바람.

- 미국의 대북한 정책 검토가 이제 끝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
  - 나는 이미 미국에 대해 여러차례 미사일 문제를 위시한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해왔음.
-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미북간의 관계개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어느 하나만 이뤄져서는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들.
  -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방위를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 협력을 얻는데 영향을 받고 있음. 현실이 이러므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병행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임.
- 다행히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음.
  - 남북간에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대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음.
  -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기대를 표시했음.

## □ 분석 · 평가

- 대통령의 금번 발언은 남북대화 중단 등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해 보려는 의지의 표출
  -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약속한대로 이루어져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 2.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동향

### □ 개 요

-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한 컨소시엄방식 도입», 「육로관광 추진 등 남북당국간 지원방안 논의 가능」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급이 있었음.

### □ 주요 내용

- 5.21, 임동원 통일부장관
  -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이 나올 것이며 그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임”(한나라당 방문시)
- 5.24, 김형기 통일부차관
  - “육로관광 추진 등 지원방안에 대해 남북당국간에 논의할 수 있음”(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기조연설문)

### □ 참고 사항

-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방북, 협상 진행 (5.22~28, 금강산)
- 한편 북한은 “금강산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5.17, 5.22 평방)

### Ⅲ. 관련 동향

#### 1.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개최

##### □ 개 요

- 한·미·일 3국은 5.26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음.

\* 3국 수석대표 : 임성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키타 구니히코 외무성 아시아국장

##### □ 공동발표문 요지

- 3국 대표단은 한반도 정세와 각국의 대북관계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 및 남북문제 해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 3국은 대북정책 추진에서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및 인도적 문제 등을 포함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바란다는 공동의 희망을 표명하였음.

- 3국 대표단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참토록 촉구하였음.
- 한국 대표단은 남북대화 현황을 설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미국·일본 대표단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 미국 대표단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및 일본 대표단의 견해와 제안을 요청하였음. 미국 대표단은 대북정책 검토의 조속한 완료에 도움이 될 훌륭한 의견교환에 깊이 감사하였음.
- 일본 대표단은 일·북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일·북 수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과 대화를 해나갈 용의를 표명하였음.
- 3국 대표단은 차기 TCOG 회의를 수개월내 개최하여 각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2. ARF 고위관계자 회의, 의장보고서에 한반도 조항 채택

### □ 개 요

- 제8차 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계자회의(5.17~18, 하노이)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에 대한 환영 표명 등 한반도 조항을 포함하는 의장보고서를 채택

### □ 「한반도 조항」 요지

- 회의는 2000년 6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환영함.
- 회의는 남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반으로 평화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회의 참가자들은 1994.10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10 미북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음.
- 회의는 최근 요한 페르손 유럽연합의장 겸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동시방문을 포함하여, 상기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였음.
- 회의는 북한이 작년 7월 ARF에 가입한 것과 이번 회의에 참가한 것은 ARF의 발전과정을 강화하고 지역안보의 위업을 진전시키는데 의의있는 조치로 간주하였음.

## □ 참고 사항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영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 북측은 리용호 안보군축담당참사, 미국측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담당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 남북 쌍방 수석대표는 오는 7월 하노이에서 개최될 ARF 장관급 회의 기간동안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대 형성
- 한편, 북측 리용호 참사는 남북대화 재개 시기를 묻는 우리측 취재진에게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답하면서
  - “대화의 시기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



### 3. ASEM 외무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조항 채택

#### □ 개 요

- 제3차 아셈외무장관 회의(5.24~25, 베이징)는 제2차 남북정상 회담 조기개최 등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

#### □ 「한반도 조항」 요지

- 외무장관들은 제3차 ASEM 회의(2000. 10. 20-21)에서 채택되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을 상기하고
  - 2000년 6월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등 남북대화의 강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과정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음.
- 외무장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고위대표 및 대외담당 집행위원의 최근 남북한 방문결과를 환영하고
  - 동 방문중 한반도 화해, 미사일 실험유예 등 관련 안보문제, 인도주의 문제, 인권 및 기타 의제에 관한 남북한 지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는 유럽측 보고에 주목하였음.
- 외무장관들은 상기 언급된 문제와 여타 사항에 대한 북한과 ASEM 회원국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 실현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음.

#### 4. 관문점 관련 동향

##### □ 금년도 제15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 등 통보

- 우리측은 5.24(목), 10시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금년도 제15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을 한적총재 명의의 문건으로 북측에 통보하였음.
- 전경련, 광복회 등 2개 민간단체 기탁물자(내의 335만벌, 50억원 상당)지원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5.22 4대 남북경협 합의서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동 4대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절차, 청산결제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 동의를 받을 방침
- 5.22 이만섭 국회의장 노르웨이 총리 및 국회의장에게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 주선요청
  - 노르웨이 정부관계자 28일 북한 방문, 한국측 입장 전달 예정
- 5.23 「민화협」과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은겨레 손잡기 운동본부」는 6.15 민족 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결성
  - 북한에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 합창, 통일 박람회 등) 공동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제의(5.23)
- 5.23-27 중국 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방한(이만섭국회의장 초청)
- 5.24 농협중앙회, 북한 남포지역 젓소의 인공수정을 위해 동결된 젓소정액 지원
- 5.24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용하 교수), 김일성대학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 제안
- 5.26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하와이)
- 5.28-29 한·미·일 비공식 대북정책 검토회의 개최
  - \* 임동원 통일부 장관, 미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 일본 가토 료조 정무담당 외무심의관 참석

## 북한 동향

- 5.19 북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역설하면서 「주체의 과학정치」라는 용어 처음 사용(중방 「정론」)
- 5.20 북한, 한주경 중장(76, 전 군정위 북측 위원) 최근 사망 보도 (중방)
- 5.22 북한, 김정일에게 「장군형의 정치가」라는 새로운 호칭 사용(평방)
  -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선군정치 방식은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정치가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
- 5.23 북한, 바레인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발표(중방)
  - \* 이에 대해 우리측 이남수 외교부대변인은 환영 성명 발표(5.23)
- 5.24 북한,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가뭄이라고 보도(조선중앙TV)

## 주변국 동향

- 5.21 리처드 게파트 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미국이 한반도문제에서 탈피하려는 것은 실수”라고 언급(정례기자회견)
- 5.21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북지원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된 근거는 없다”고 언급(방미 손학규 의원 면담시)
- 5.22 유엔,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과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회의 개최(제네바)
- 5.24-25 ASEM 외무장관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한·일, 한·중외무회담 등 연쇄 양자회담 개최
  - \* 한승수 외교부장관, 다나카 마키코 일본외상, 탕자위엔(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참가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5호>

2001. 5. 27 ~ 6. 2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북한, 남북공동선언 1돌 관련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재의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협상

### III. 관련 동향

- 5월중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등 공개활동 동향
- 민간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
- 관문점 관련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금강산관광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금강산관광 협상 내주 합의 기대” 언급(6.1), 현대-아태간 금강산관광 협상 결과 발표(5.28)
  - 금강산 솔잎혹파리 남북공동 방제사업 실시 발표(5.31), 남북 철원군 교류를 위한 실무접촉 발표(5.31),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 계획 발표(6.1), 남북농업분야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농업계인사 방북(5.29-6.5)

## ◀ 북한 동향 ▶

- 북한은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돌 즈음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의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 대토론회」 개최를 제의(5.28)
  - 우리측 통일연대 등 관련단체들에게 6.4-5 기간중 금강산 실무접촉 개최 제의(5.29)

## ◀ 주변국 동향 ▶

- 미국 행정부 전·현직 고위관리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피력
  - \*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IAEA의 사찰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사안”(5.27,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 \*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5.29,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 \*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추출작업을 벌이지 않았음”(5.29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대사)

## II. 주요 현안

### 1. 북한, 남북공동선언 1돌 관련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제의

#### □ 개 요

- 북한은 5.28 인민문화궁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즈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를 제의

\* 보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 기간」중 사업추진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김영대 「민화협」회장)

#### □ 회의 보고내용(요지)

-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끊어진 민족의 피를 다시 잇고 냉전과 대결의 찬바람이 불던 이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을 안아온 새 역사의 장엄한 뇌성이었음.
- 남과 북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 계층은 인민의 도전으로부터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그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함.
- 우리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한 공동 통일행사로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함.



- 또한 남과 북, 해외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기념모임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 기간의 제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리측 준비위원회를 내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봄.

## □ 분석 · 평가

- 이번 제의는 지난 1.10 개최된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설정”을 제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 시기적으로 지난 5.23 우리측 「민화협」과 7대중단을 중심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발족된 이후 나왔다는 점과
  - 내용상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 토론회를 계기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과시하면서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관련 행사들을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 확보를 고조시켜보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북한이 5.29 쌍방 각기 5-6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 우리측 단체가 동의, 6.4~5 금강산에서 남북 관련 단체간 실무접촉이 개최될 예정

## 2.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협상

### □ 개 요

- 김윤규 현대아산사장은 5.28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산관광 사업 관련 대북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

\* 김윤규 현대아산사장-강종훈 아태서기장, 5.23-28, 금강산

- ※ 한편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금강산관광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되어 내주 합의를 기대한다”고 언급(6.1, 기자간담회)

### □ 김윤규 현대아산사장 기자회견 주요내용

- 육로관광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얘기할 수 없지만 빨리 해야할 것임.
- 대북지불금 인하문제는 현대아산의 형편에 따라 잘 협의 될 것임.
- 관광특구 문제는 이미 합의된 것으로 공표 협의만 남은 상태임.

### □ 임동원 통일부장관 기자간담회 발언내용

- 금강산관광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내주라도 마무리가 가능 하지 않을까 기대함.
- 민간차원에서 육로관광이 합의되면 정부당국간 회담을 열어 공사시기 등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Ⅲ. 관련 동향

#### 1. 5월중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등 공개활동 동향

##### □ 개 요

- 김정일은 5월들어 군부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등 공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 주요 내용

- 김정일은 5.7 제415 및 제668 군부대, 제230 군부대 관하 포중대를 시작으로 5.25 제826 군부대를 시찰하는 등 5월 들어 집중적인 군부대 방문활동(총11회)을 보여주고 있음.

##### ※ 2001년도 월별 김정일 공개활동 현황(5.31 현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군 관 련	2	1	0	5	11	19
경제관련	1	1	0	3	4	9
대 외	1	1	2	2	1	7
기 타	1	0	1	1	1	4
총 계	5	3	3	11	17	39

## □ 분석·평가

- 김정일이 군부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은 변함 없는 「선군정치」노선을 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군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한편 최근 미국의 MD문제 등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김정일이 군부대를 집중 방문함으로써 군부의 단결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

## 2. 민간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

### □ 개 요

- 금강산 솔잎혹파리 남북공동 방제사업, 남북 철원군 교류를 위한 실무접촉,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 남북농업분야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농업제인사 방북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 □ 주요 내용

- 강원도, 5.31 남북 강원도 공동의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실시(6.7-9) 발표
- 남측은 1억6천500만원 상당 방제약품(포스팜 액체 8천 l, 천공기, 방제복, 해독제) 지원, 북측은 인력제공
- \* 이찬용 강원대 교수등 8명의 대표단 파견, 방제기술 전수

- 철원군, 5.31 남북 철원군 교류를 위한 실무접촉(6.3-6) 발표
  - 남북 철원지역에 각각 1개소의 벼 우량품종 전시포 설치, 삼지구엽초 명품화 사업 추진 등 대북제의 방침
  - \* 남측: 문경현 철원군 기획감사실장, 강도원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이사장, 북측: 「민화협」 관계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5.28 북측 농업성 및 농업과학원 인사들과 농업분야 협력사업 논의(5.29-6.5)를 위해 농업계 인사로 구성된 방북단 방북 발표
  - 방북단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7명
-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소장 홍희표), 6. 1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개최 발표
  - 남측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와 북측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공동 주최 (6.15 평양, 8.15 서울)
  - \* 백두대간을 잇는 한반도의 명산 명소 등을 소개하는 100여점의 우수한 작품 전시

### 3. 판문점 관련 동향

#### □ 대북비료지원 관련 제21~24항차 수송계획 통보

- 우리측은 5.29(화),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비료 20만톤 지원관련 제21항차부터 마지막 항차인 제24항차 수송일정 및 항차별 인도요원 명단 등을 한적총재 명의로 북측에 통보하였음.
- 21항차 수송선박은 6. 1(금) 여수항에서 요소비료 5천톤을 싣고 북측 해주항으로 떠났으며, 6. 5(화)까지 요소비료 1만7천톤, 복합비료 1만5천톤 등 도합 3만2천톤의 비료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임.

#### □ 금년도 제16차 민간단체 기탁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 통보 및 북측 분배결과 접수

- 우리측은 6. 1(금), 11:15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금년도 제16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한적총재 명의 문건)을 북측에 통보하였음.

- 솔잎혹파리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전달(6. 7~6. 9 / 속초→장전)

※ 한편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 기탁지원물자 분배결과(3.24자 어린이 내의 152만벌, 3.28~4.26자 의류원단, 못자리용 비닐, 분유·이유식 등)를 보내왔음.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5.28 김중권 민주당 대표, 베이징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 5.28-29 한·미·일 비공식 대북정책 검토회의 개최
  - \* 임동원 통일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 기포 료조 외무심의관 참석
- 5.28 한국은행, '2000년 북한GDP 추정결과' 발표
  - 1인당 국민총소득 약 757달러
  - 명목 GNI상 북한경제, 남한의 1/27, 1인당 GNI상 남한의 1/13
  - 남북교역규모, 4억2천5백만불로 27.5% 증가
- 5.29-6.5 남북농업분야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농업계인사 방북
  -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7명
- 5.30 한복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 6.2-9일 평양서 패션쇼 개최
- 6. 1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개최
  - 남측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소장 홍희표)와 북측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공동 주최 (6.15 평양, 8.15 서울)
- 6. 1 교사, 노동자 등 북한이탈주민 12명 입국
  - \* 금년 국내입국 이탈주민 총 188명

## 북한 동향

- 5.27 북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정전 체제에서 평화보장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호응을 촉구(평방)
- 5.28 북한, 남북정상회담 한 돌 맞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
  - 북측 준비위원회 「6.15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위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5.30)
- 5.29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회'(IPPNW) 대표단 평양 도착
- 5.29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40차 회의 개최
  - 「압록강·두만강 이용에 관한 합의서」 조인
  - \* 동 회의는 1960년 5월 제1차 회의 이래 매년 개최

## 주변국 동향

- 5.27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IAEA의 사찰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사안”이라고 언급 (TCOG 회의 후 기자회견)
- 5.29 조지프 바이든 미 상원 의원,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협상 재개를 설득하는 등 부시행정부의 보수적 외교정책을 견제하겠다”고 언급(기자회견)
- 5.29 나토 19개 회원국 외무장관 'MD 지지 거부' 공동성명 발표(부다페스트)
- 5.29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5.29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추출작업을 벌이지 않았다”고 언급
- 5.29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
- 5.29 북한 1919년 이래 최악의 가뭄기록(Washington Post)
  - 세계식량계획(WFP) 모튼(Morton)조정관 “북한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식량배급이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전언
- 5.30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의 인권침해 은폐’ 보고(2001년 연례인권보고서)
- 5.30 이타르 타스 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가을경 모스크바를 방문,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 보도
- 5.31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올해 말경 약 6명의 북한 관리를 핵 안전훈련프로그램에 초청, 북한의 핵시설을 NPT와 IAEA의 기준에 맞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오찬회견)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6호>

2001. 6. 3 ~ 6. 9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북측선박, 우리측 영해 및 NNL 무단 통과
- 부시대통령, 대북정책관련 성명 발표
- 6·15공동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실무집축

### III. 관련 동향

- 김대중대통령, 김정일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재촉구
- 세계식량계획(WFP), 북한동향 발표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북결과 언급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북측선박이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NNL)을 무단 통과하는 사태가 발생(6.2-6.5)하여, 정부에서는 즉각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항의와 유감을 표명(6.4)했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일정 제시를 재촉구」(6.6)하는 등 남북관계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견지
- 민간부문에서는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이 채택(6.5)되고,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협상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6.9) 남북교류협력 사업분야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

## ◀ 북한 동향 ▶

-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6.5, 노동신문)했으며, 북한당국은 사상처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징인 옥외광고를 금강산 관광지 및 개성공단 지역에 설치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년 봄철 가뭄을 「천년만의 왕가뭄」으로 표현하며 극심한 피해를 주장(6.5, 조선중앙TV)

## ◀ 주변국 동향 ▶

- 부시 미국대통령은 6. 6자 성명을 통해 취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재개 의사를 공표했으며, 6. 7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의 틀과 후속대책 등을 조율

## II. 주요 현안

### 1. 북측선박, 우리측 영해 및 NLL 무단 통과

#### □ 개 요

- 북측 선박이 6. 2~5(4일간)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을 거론하면서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였으며, 1척은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해주항으로 입항하였음.

#### □ 진행 경과

- 북측 선박 청진2호(1만 3,000톤), 영군봉호(6,700톤), 백마강호(2,700톤) 및 대흥단호(6,390톤)가 각각 6. 2~5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공해상으로 항해하였음.
  - 이중 청진2호는 백령도(등산곶)와 연평도 사이 북방한계선을 지나 해주항으로 입항
    - \* 동 항로는 현재 제3국 선박들이 통항하고 있으며, '84년 수해물자인도시 이용한 항로임.
- 국방부는 제주해협이 제3국 민간선박의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지역이지만, 북한 선박의 경우 정전협정 이후 선례와 북측의 사전통보 및 협의가 없었으므로 해군 경비정이 근접기동 감시하면서 북측 선박들을 영해 밖으로 유도하였음.
-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6.3)하고
  - 북측 선박이 생필품을 싣고 있고,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협조했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금번에 한해 영해통과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6. 4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 전통문을 통해 향후 북측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통과할 경우 강력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 북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측 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촉구
  - 향후 유사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남북간 해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남북간 「해운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
  
- 한편 6. 5 대홍단호가 영해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된 이후 북측 선박들은 공해상으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해군 초계함에 북상 항로를 통보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분석 · 평가

- 북측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측 영해의 무단 통과를 시도한 것은 항로단축의 경제적 실리 확보가 주된 목적일 것으로 추정
  
- 정부는 이번 사건을 남북간에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관된 대북 화해 협력정책 의지를 시현

## 2. 부시 대통령, 대북정책관련 성명 발표

### □ 개 요

-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 6 성명을 통해 취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사를 공표

### □ 성명 내용(요지)

-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여 왔으며,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검토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 우리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팀에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하도록 지시하였음.
- 북한과 협의할 의제는 북한의 핵 활동관련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 수출 금지, 보다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 태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 관계 및 지역내 안정 증대의 촉진을 모색할 것임.
- 이러한 목표들은 김대중 대통령 방미시 논의한 것이며, 나는 김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만약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여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임.



## □ 분석 · 평가

- 이번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성명은 대통령 취임 이후 4개월간의 전면적인 대북포용정책 재검토를 거친 후 발표된 것으로
  -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북관계의 개선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성명은 남북간 대화정상화의 여건을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됨.
  - \* 평양방송(5.26)이 “미북관계 개선의 관건적 고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라고 주장하면서도, 노동신문(6.4)은 “지금까지 북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 진전을 이루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사이의 문제를 해결 하자는 북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3. 6·15공동선언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실무접촉

#### □ 개 요

- 남북 민간단체가 6.4~5간 금강산에서 「6·15 남북공동행사」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음.

#### □ 합의 내용(요지)

- 6.15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갖고, 서울과 평양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함.
- 명칭은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로 하며, 주제는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로 함.
- 참가자는 남북대표 각 200명으로 하며, 토론자는 남북 공히 6명씩으로 하되 남측은 참관단 200여 명을 별도로 두기로 함.
- 토론제목과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게하며 토론문은 사전 교환함.
- 행사는 공동의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비용은 공동 부담함.
- 토론회 기간중 참가자들이 금강산 산행 등 부대행사를 가지며 제2차 실무접촉은 6.13 금강산에서 진행함.

#### □ 분석·평가

- 남북 민간단체간의 이번 합의는 8.15까지의 민족통일 촉진 기간에 여타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 추후 일정에 관한 합의는 보지 못했으나
  -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

### Ⅲ. 관련 동향

#### 1. 김대중대통령, 김정일위원장에게 서울방문 일정 제시 재촉구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제4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일정을 밝혀 줄 것을 또 다시 촉구하였음.

##### □ 주요 내용

- 김대중 대통령은 6. 6 현충원에서 “얼마 전 다른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북한측에 이를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공동선언의 준수를 다짐했다”고 밝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피력했음.
- 김 대통령이 서울 상주 외신기자 다과회(5.24)에 이어 또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 세계식량계획(WFP), 북한동향 발표

### □ 개 요

- WFP에서는 최근 북한동향 제28호(5월) 및 긴급 구호활동 보고서 제22호(6월)를 통해 현재 북한 식량지원 및 공급상황에 대하여 발표

### □ 주요내용

- 영농 상황
  - 90여 일간의 계속된 가뭄으로 강수량에 의존하는 이모작 작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관개시설에 의존하는 쌀, 옥수수등 주요작물 상태는 비교적 양호
- 식량지원 상황
  - 5월중 총135,000톤의 지원식량물품 도착
- 공공배급 체계 현황
  - 공공배급량은 1인당 150g으로 감소했으며 한국의 지원식량분(차관)배급은 5월중 종료될 것으로 전망
  - 대부분 주민이 풀뿌리 등 야생식물을 식량으로 대용하고 있으며 심각한 가뭄의 타격으로 공공배급이 어려워질 전망
- 모니터링
  - 5월중 전체 211개 시·군 중 접근 가능지역 167개 지역에서 220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량전달 상황에 대한 평가 실시
  - \* 그러나 모니터링에 대한 제약, 각종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제한 등으로 사업효과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지방 식량생산공장

- 5월중 신의주 국수공장 등 5개도시에 국수공장 신설 가동

\* 이로써 지방의 국수, 과자 등을 생산하는 식량생산공장은 6개지역  
총 16개소로 증가

□ 분석·평가

- WFP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봄 최악의 가뭄이 겹쳐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평가됨. 또한 국제사회의 식량 기여 확보 상황(5월현재 213만불 상당)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식량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3.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방북결과 언급

#### □ 개 요

- 6. 9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한 방북결과를 언급

#### □ 주요 내용

- 육로관광 관련
  - “양측이 남·북정부에 빨리 협상하도록 건의키로 했으며, 많은 관광객이 (육로로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고, “(남북)당국 협상에 따라 착공시기는 결정될 것이며 육로 관광 건설에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관광대가 관련
  - “향후 아산이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현대아산의) 형편에 따라 지불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힘.
- 관광특구 지정 관련
  - “수개월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사업의 지속여부
  -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하는 것을 (양측이)인정했으며 지금보다 경제성이 있어야 관광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6. 3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무단 통과 등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 6. 4 북측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 및 NLL 위반 관련 임동원 통일부 장관 명의로 김용순 조선아태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발송
- 6. 4 유엔사 글래서 대령, 판문점 대표부 광영훈 상좌에게 북측 선박의 NLL 위반 문제 토의를 위한 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6. 5 북한거주주민 3명 “호적에 올려달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남한법원에 첫 소송
- 6. 5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85명, 처음으로 사할린을 역방문하였으며 한적은 6월~8월 약 15회에 걸쳐 1,100여명 사할린 역방문 사업추진 계획
- 6. 5 정부,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에 대해 남북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 ※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사업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 광선희)이 북한 교육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억원을 투자하여 평양시 낙랑구역 33만평 규모의 부지에 대학을 건립, 2002년 9월 개교 예정
- 6. 5 남북민간단체간 6·15공동선언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실무접촉, 합의사항 채택
  - \* 남측 :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수석대표: 김종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 북측 : 민족통일촉진운동 준비위원회(단장: 허혁필 민화협 부위원장)
- 6. 6 김대중 대통령, 제4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확실한 스케줄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재강조

- 6. 7 대북협력국제NGO회의, 6.17-20 한국에서 국제 NGO회의 개최계획을 발표했으며 동회의에서 UNDP, WFP, UNICEF 등 국제 NGO의 평양 주재 대표들의 북한 현지사정에 대한 보고 예정
- 6. 7 정부, 5월중 국내 대북지원 동향 발표(민간단체 : 99억 9,988만원 상당, 정부 : 4,358만불 상당)
- 6. 7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대화재개 성명을 환영한다는 성명 발표
- 6. 9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금강산관광사업 협상위해 방북(6.7-9)후 귀국

## ☞ 북한 동향

- 6. 2 노동신문, 우리 공군의 2001년도 공중 전투지원 훈련을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비난
- 6. 4 북한, 사상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지화 개성공단 지역에 옥외광고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판명
- 6. 5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 조기 사찰을 거론하는 것은 전력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난
- 6. 5 평양방송, “남북간 사상과 제도가 달라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고 강조
- 6. 5 노동신문,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남한에서는 의세와 함께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애국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 6. 6 10개년 나무심기계획사업을 전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도(조선중앙통신)



- 6. 7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신축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필요성 강조」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 계획”이라고 비난
- 6. 7 북한 기상관계자 이번 봄철 가뭄을 「천년만의 왕가뭄」이라고 표현
  - \* 6월초까지 북한의 가뭄 피해면적 133만 여정보(전체 농경지 면적의 72%)

## ☞ 주변국 동향

- 6. 6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미·북대화 재개 성명 발표
- 6. 7 한·미외무장관회담 개최(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
- 6. 7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기자회견에서 “미·북대화는 뉴욕 실무채널을 통해 시작될 것이며, 아주 가까운 장래에 핵·미사일·재래무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북협상에 조건없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7호>

2001. 6. 10 ~ 6. 16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남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축하 전화통지문 교환
- 김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오찬 개최
-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 III. 관련 동향

- 김대통령, 김정일위원장 연내답방 및 정상회담 정례화 촉구
- 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
- 미-북 뉴욕접촉 시작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남북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6·15 공동선언을 축하하는 전화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과시
- 김대중 대통령은 CNN 인터뷰(6.14)와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각계대표와의 오찬행사(6.15),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6.16)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답방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촉구하는 등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진전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 ◀ 북한 동향 ▶

- 우리측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 「6·15 - 8·15 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 준비위원회」 등 760여명은 금강산 온정리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 북한은 6·15공동선언 1돌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6.14)를 통해 6·15 공동선언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수행과 국제 정치정세 발전에 있어서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는 등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이행의지를 천명

\*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보도 수차례(중·평방)

## ◀ 주변국 동향 ▶

- 부시 대통령의 미·북대화 재개입장 발표(6.6)이후 6.13 뉴욕에서 미·북대화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이 시작되어 남북관계 진전의 긍정적 조건이 마련
  - \*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 EU-북한간 인권관련 회담이 6.13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 II. 주요 현안

### 1. 남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축하 전화통지문 교환

#### □ 개 요

- 남북 쌍방은 6.15 오전 판문점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축하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교환하였음.

#### □ 쌍방 전화통지문(요지)

##### < 우리측 전화통지문 요지 >

-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걸쳐 쌓여온 불신과 대결의 빙벽을 녹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건임.
- 지난 1년동안 남과 북은 정치·군사를 비롯, 교류·협력 및 인도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음.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랜 단절의 시간을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임.
- 지난 한해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통일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속히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해야 함.

## < 북측 전화통지문 요지 >

-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한돌을 맞이하여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냄. 동 선언은 21세기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공동의 이정표임.
-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북과 남은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 왔음.
-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분석·평가

- 남과 북이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축하하고 큰 의의를 부여하는 전화통지문을 교환한 것은
  -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2.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오찬 개최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상봉이산가족 등 각계 대표 151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대화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성,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 행사 내용(요지)

- 김대중 대통령은 ‘각계 대표와의 대화’에서
  -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을 회고한 후 “남북관계에서 약간의 정체는 있지만, 햇볕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 “전세계가 지지하는 햇볕정책을 소신을 가지고 실현해서 장차 10년, 20년 뒤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
- 한편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간 철도-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산가족이 만났으며,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 “이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남과 북이 자유로이 오가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여 21세기 한반도 번영을 앞당기자”고 역설



### 3.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 □ 개 요

-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동 선언의 실천방안 및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족통일대토론회가 6.15 금강산에서 남북한 각계인사 7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남측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 「6·15 - 8·15 민족통일 촉진운동 북측 준비위원회」 공동 주관

#### □ 행사 내용(요지)

##### < 축 사 >

- 남측 이돈명 「민화협」 공동의장, 북측 김영대 「민화협」 회장

##### < 토 론 >

- 남측 김종수 신부와 북측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 공동사회로 남북한 각각 6명씩의 토론자가 번갈아 연설

- 남측 : 손장래(민화협 상임의장),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흥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 북측 : 김세민(사회과학원 부원장), 박태화(조선불교도 중앙위 위원장), 최창숙(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정운업(민족경제연합회 회장), 유태영(범민련 미주지역본부 공동의장), 봉원익(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비서)

## < 토론회 결과 >

- 토론회가 끝난 뒤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을 발표
  - 「공동성명」은 “일본 보수 우익세력들의 역사 날조 책동을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재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용납하지 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보수우익들의 허황한 망상을 부셔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 것”을 결의
  - 「공동보도문」은 “참가자들이 6·15 - 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6·15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떼밀고 나가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어나감으로써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이 되는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 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하였다”고 주장
- ※ 한편 북한은 6.15 저녁 8시 정기뉴스를 통해 동 행사 개최 및 공동 보도문, 공동성명 채택 소식을 전하면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평방, 조선중앙TV)

### Ⅲ. 관련 동향

#### 1. 김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연내 답방 및 정상회담 정례화 촉구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CNN 기자회견(6.14)과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각계대표와의 대화(6.15),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6.16) 등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거듭 촉구

##### □ 주요 내용

- 달톤 타노나카 CNN 기자 인터뷰(6.14, 청와대)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도 남북공동선언 준수 의사를 재천명한 만큼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금년내 오는 것이 제일 좋음”
-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각계 대표와의 대담(6.15, 청와대 영빈관)
  -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되려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어야 함”
- 제주평화포럼 개최식 기조연설(6.16, 제주도 신라호텔)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금년중에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음.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만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이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음”

## 2. 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

### □ 개 요

-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6.14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
- 동 보고대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태복·김용순 당 비서,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오익제 조평통 부위원장 등 당·정기관, 사회단체 고위간부 및 비전향 장기수 등이 참석

### □ 행사 내용(요지)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념보고를 통해
  -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 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 국제 정치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
  - 이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외세의 간섭책동을 반대 배격해야 하며 외세와의 공조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
  - \* 한편 양 부위원장은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해 정초 백두산에 올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실 대응단을 다졌다”고 강조

### 3. 미-북 뉴욕접촉 시작

#### □ 개 요

-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6. 13 뉴욕에서 접촉을 가졌음.
-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성명(6.6) 이후 7일만에 미·북간 대화를 위한 준비접촉이 시작

#### □ 접촉 내용

- 프리처드 특사와 이형철 대사는 6.13 뉴욕의 한 식당에서 가진 2시간 동안의 접촉을 통해 향후 미·북간 대화일정 등을 협의
- 미국측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공식적으로 설명
-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대사(이형철), 차석대사(이근 외 1명) 부대사(1명) 외 참사관, 참사관 등 10명이 근무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6.12 김대중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인사 763명 초청 다과회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의 배가 비무장 상선이기 때문에 무력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
- 6.12 전국농민회총동맹(의장 정광훈) 소속 농민 1,250명 방북신청
  - \* 남북 공동행사 참가자로는 최대규모로 오는 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 농민 통일 단오 명절놀이'에 참석
- 6.13 임동원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남북관계가 조만간 정상상태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6.13 국회연구단체 '평화통일포럼', 남북정상회담 1주년 즈음 토론회 개최
- 6.13 북한상선 남포2호(2천400t급) 23:45 강원도 저진항 동방 35마일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여 공해상으로 항해
- 6.13 김형기 통일부 차관,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기자회견에서 '이달내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 6.14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작년 6·15 남북협상시 북측선박이 제주도 북단을 자유 항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주장
  - \*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6.14)
- 6.14 김대중 대통령, CNN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답방촉구
- 6.15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장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축하 전화통지문 발송
- 6.15 김대중 대통령, 남북공동선언 1주년 각계대표와 대화 및 오찬

## 북한 동향

- 6.12 북한,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북·미 관계가 폭발 직전의 험악한 상태로 변지고 있다”고 주장(평방)
- 6.12 북한, 새로운 경제슬로건으로 「강성부흥전」 전개(중방)
  - \* 노동신문 6. 8
- 6.14 북한 경의선 공사대비 천막신축(국방현안 보고자료, 국방부)
  - 5월 중순 이후 개성시 남촌골 지역의 숙영지 천막 20여동 추가신축
  - \* 지난 4월말 장비이동은 황해도 지역의 토지정리사업과 가뭄 극복을 위해 전용한 것으로 추정
- 6.14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6.14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남북공동선언 채택 1주년 기념보도

## 주변국 동향

- 6.11 중국정부, 최근 대대적으로 탈북자 색출 강화
  - 인터넷사이트 ‘피난처’ (운영자 이호택목사), 중국 TV인용 주장
- 6.12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 “4자회담이 휴전협정의 대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장으로 미국은 언제든지 4자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에서 열린 미국의 동아태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 6.13 프리처드-이형철간 미·북접촉(뉴욕)
- 6.13 EU-북간 인권관련 회담 개최(벨기에 브뤼셀)

- 6.15 중국, 지난해 탈북난민 6,000명 북한송환
  - 미국난민위원회(USCR) '2001년 세계난민실태조사보고서'에서 발표
  - ※ 탈북자 추정치 : USCR 5만여명, 중국정부 1만명 이하, 한국NGO 30여만명
- 6.16 독일정부, 북한에 220만달러 상당 긴급 식량지원
- 6.16 재미교포단체, 북한 보건성과 장기적인 의료지원 합의
  - 재미교포단체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는 북한 11개 시도의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 등의 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을 하기로 북한 보건성과 합의
  - ISR은 지난 3년간 총 169억원어치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북한에 지원

【 끝 】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8호>

2001. 6. 17 ~ 6. 23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북한, 미국의 대화재개 성명 관련 외무성 담화 발표
-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 III. 관련 동향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제3회 대북지원 국제 NGO회의 개최
- 국제육수수재단 협력사업 변경 승인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간에 금강산관광사업 공동참여 합의서가 체결(6.20)되어 금강산관광사업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 전기 마련
- 제3회 대북지원 국제NGO대회 개최(6.17, 용인 삼성휴먼센터), 민주당 김운용·최재승의원의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방북(6.19-22), 김철 천도교 교령의 남북 천도교 교류 및 공동행사 협의를 위한 방북(6.19-23), 국제옥수수재단 남북 농업기술협력사업 변경승인(6.20)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 ◀ 북한 동향 ▶

- 북한은 북·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보상문제가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6.18, 외무성 담화)함으로써 지난 6.6 부시 대통령의 대북협상 재개 입장 천명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대화재개시 협상력 강화와 전력지원문제 우선논의 의지를 노정
- \* 비슷한 논조의 보도 수차례(6.20, 21, 노동신문·중앙TV·중방·평방 등)

## ◀ 주변국 동향 ▶

-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관련 남북기본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대처하기로 합의(6.21)
- \* 김동신 국방장관 - 도널드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6.18) 관련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
-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문제는 미·북대화에서 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 \* “향후 대북 경수로 지연은 없을 것”(찰스 카트만 KEDO사무총장)

## II. 주요 현안

### 1. 북한, 미국의 대화재개 성명 관련 외무성 담화 발표

#### □ 개 요

- 북한은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를 천명한 부시 미 대통령의 성명(6.6)에 대해 12일만에 외무성대변인 담화(6.18)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표명

#### □ 담화 내용(요지)

- 지난 6일 미국이 대화재개를 제의해 온 것은 유의할 만한 일임.
-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는 핵 및 미사일, 상용무력과 관련한 것들로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적대적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음.
-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조·미 기본합의문과 조·미 공동코뮤니케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함.
- 우리의 상용무력은 자위수단으로서 최소한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임.
- 현시기 경수로 제공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함.

## □ 분석·평가

-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부시대통령의 대화재개 성명(6.6) 및 쌍방 뉴욕접촉(6.13)에 대한 북한의 최초 공식반응으로서
  - 대미비난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3개 의제에 대한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전력손실보상문제를 우선협의 의제로 제시하여 '대화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또한 향후 대화재개시 북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전력지원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
- 한편 북·미 대화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개되면 현재 일시적인 소강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북한의 경수로 관련 입장표명 >

- 2001. 2.21 미국이 지금처럼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거기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음.(외무성대변인 담화)
- 2001. 3. 3 미국측은 자기의 책임으로 빚어진 전력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임.(외무성대변인 중통 회견)
- 2001. 5.16 미국측이 경수로손실에 대한 보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우리는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음.(중통 상보)
- 2001. 6. 5 전력손실보상 요구는 전술이 아니라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불 생존을 위해 흑연로건설에로 나갈 수밖에 없음.(중통 논평)

## 2.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 □ 개 요

- 김동신 국방장관은 6.21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

#### \* 배석

우리측: 양성철 주미대사,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미국측: 월포워츠 부장관, 셸턴 합참의장, 깰링턴 정책담당 특별보좌관

### □ 회담 주요 내용

-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대처하기로 하는 등 다음 사항에 합의 하였음.
- 첫째,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필요성에 합의
- 둘째,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조기실현에 대한 기대 표명
- 셋째,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군사대비태세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

- 넷째, 김동신 장관은 美 정부의 미북대화 재개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양 장관은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북한의 미사일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
- 다섯째, 북한의 재태식 군사위협 완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CBMs)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추진하며, 남북 대화와 미북대화는 한미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
- 여섯째, 김동신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계획(MD)과 국방정책의 검토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럽스펠드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

### Ⅲ. 관련 동향

#### 1.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 개 요

-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측은 6.20 금강산 관광사업 공동참여 합의를 체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배경과 방식 등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

\* 조홍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 □ 기자회견 요지

- 지난해 8월부터 현대아산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강산 관광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음. 지난달 8일 현대와 북측간의 육로관광 합의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현대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음.(조홍규 사장)
- 최근 화진포→고성간 13.7km 연결구간에 대한 위성사진과 정밀지도를 입수, 면밀히 점검한 결과 유실된 부분을 조금만 보수하면 버스통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음. 남북 당국간 협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버스로 오갈 수 있도록 유실된 도로를 보수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육로관광이 이뤄질 수도 있음.(이하 김윤규 사장)



- 백두산·묘향산·칠보산 관광지역 확대는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 이미 동 지역을 답사했으며, 북측과도 이들 지역의 관광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금강산 관광 사업을 활성화한 뒤 본격 추진할 계획임.
- 특히 북측과는 개성관광에 대해 내락을 받은 상태임. 금강산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개성지역도 관광·경제·무역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

## 2. 제3회 대북지원 국제 NGO 회의 개최

### □ 개 요

- 제3회 대북지원 국제NGO대회가 6.17 경기 용인 삼성 휴먼센터에서 ‘식량지원을 넘어선 대북협력방안’ 주제로 국내외 대북지원NGO 및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통일부장관 특별강연(남북관계전망과 대북지원 추진방향)

### □ 회의 내용

-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의 흉작과 최근의 가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

- 여성·아동의 영양부족, 비료 등 농업 원자재 부족, 에너지원 공급부족 및 수송문제, 보건·의료등 위생부문의 열악성 등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국제사회의 전체 인권단체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적절한 식량, 주거, 보건 등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
- 국제 NGO 사업의 효율성제고, 기증자들의 지원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북한당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방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요구
-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식량지원과 농업복구지원을 넘어선 에너지 위기 해결, 인프라 및 산업복구,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이 요구됨을 강조
- ※ 본 회의에서는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강력히 지지함과 아울러 국제 NGO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권유하고, 한국 NGO와 국제 NGO 그리고 UN기구간의 협력방안 개발을 주장

## □ 분석·평가

- 금번 회의는 북한의 식량사정 현황을 정확히 국제사회에 알리고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기회로 작용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장기화로 인한 '피로현상'(Donor's Fatigue)으로 감소 하고있는 대북지원 규모를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대북지원액은 99년 3억 5천 871만 달러에서 '00년 1억 666만 달러로 감소
- 국내외 NGO 들의 대북지원 활동 강화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속화 되는 부수 효과 기대

### 3. 국제 옥수수재단 협력사업 변경 승인

#### □ 개 요

- 정부는 6.20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이 북한 농업 성과 합작 추진하는 '신품종 옥수수 남북 공동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3년→10년, 7년연장) 및 사업 영역 확대 변경 승인

#### □ 주요 내용

- 국제옥수수재단은 '98. 5월부터 지금까지 62억원을 투자, 신품종 옥수수 연구개발 추진, 유망한 신품종 88종 개량(평균 40-50% 증산효과)
- 또한 동 재단에서는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지원
- 금번 승인 조치는 협력사업의 기간연장, 투자규모 확대(110억원→216억원) 및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 이외에 북한 적응형 농약개발사업을 추가

#### □ 분석·평가

- 신품종 옥수수 남북공동 연구개발 및 북한 적응형 농약개발사업은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해소는 물론,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남북간의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연구결과의 공유로 상호 농업발전에 기여 및 종자 수출로 인한 남북한 국제수지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 효과 기대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6.18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6.26 개최예정이던 ‘남북 농민 통일 단오 명절놀이’ 행사를 북측 사정(가뭄)으로 연기 발표
- 6.18 임동원 통일부장관, “북한이 조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지원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제3회 대북지원 국제NGO대회 특별강연)
- 6.19-22 민주당 김운용·최재승 의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북한 국가체육위원회 박명철 위원장 초청)
- 6.19-23 김철 천도교 교령, 남북한 천도교간 교류와 공동행사 문제 협의 위해 방북
- 6.19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배다지), 북-미 대화에서 전력손실 보상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미행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
- 6.20 통일부, 국제육수수재단 남북농업기술협력사업 변경승인
  - \* 변경사유 : 사업기간연장, 이에 따른 예상투자규모 증액 및 사업영역 확대
- 6.20 동북아산림포럼(공동대표 김후란),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난 95-96년 홍수피해로 파괴된 북한 양묘장 복구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 6.20 에반스 리비어 주한 미대사대리,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쉽고 단순한 문제부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

## 북한 동향

- 6.18 북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6.6)에 대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 (외무성 담화)
  -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대변인,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미·북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담화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6.18)
- 6.19 중앙방송, 부시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서 MD체제 구축을 위해 거론한 ‘북한 위협은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 6.20 북한, “전력보상문제가 미·북간 선차적 의제이며, 핵 및 미사일문제,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은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적인 안”이라고 강조(노동신문, 중앙TV 등),
- 6.20 북한, “IAEA가 경수로건설 지연에 책임을 추궁하고 경수로 건설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중통)
  - \* 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은 IAEA의 핵사찰 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한 협력을 제공하라”고 촉구(6.11, IAEA 정기 이사회 개막 성명)
- 6.21 북한, “조미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화는 차라리 재개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평양방송)

## 주변국 동향

- 6.18 푸틴 러시아대통령,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이미 구식이 된 구 소련 미사일기술로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6.19 조지프 바이든 미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미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 및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이 제기하는 미사일의 확산위협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카네기재단 주최 국제비확산회의 연설)
- 6.19 제4차 총련 동포 고향방문단 80명,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 초청으로 22-27일 고국방문
- 6.20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문제는 미·북대화에서 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 6.20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 ‘앞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설명회)
- 6.21 미국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 소장 전영일)는 미주 한인이산가족의 북한 혈연상봉 지원 위한 ‘연방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캠페인 전개
- 6.21 김동신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 오찬을 겸한 회담 개최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
- 6.21 장쩌민 중국 주석,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방북하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

【 끝 】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9호>

2001. 6. 24 ~ 6. 30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현안

- 북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행사동향
- 북한의 장길수 인가 관련 반응

### III. 관련 동향

-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방침 결정
- UN 인도지원조정국, 금년 1-5월중 대북지원내용 공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정부는 김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 강조(6.25), 통일부장관의 남북대화 재개시 5개 중점추진사항 언급(6.27) 등을 통해 남북대화 추진의지를 표명
-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변경 승인(6.23), 한국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6.26), 「남북경제협력 추진회의」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방침 결정(6.27) 등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었음.

## ◀ 북한 동향 ▶

-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계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측 당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 NLL 침범 북측어선에 대한 우리측의 경고사격(6.24)에 대해 무반응,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6.24) 및 장길수 일가 UNHCR 베이징 사무소에서 제3국 출국 관련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6.30) 등에서 대남 비방 자제

## ◀ 주변국 동향 ▶

- 주요국가 고위인사의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 표명
  - “북한은 ICBM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소수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6.28,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방지를 포함한 지역안보를 우려”(6.28, 다운너 호주 외무장관)

## II. 주요 현안

### 1. 북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행사동향

#### □ 개 요

- 북한은 금년도 「6·25」를 맞아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51돌 평양시 군중대회(6.24)를 개최하였음.

※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은 「직총」 중앙위가 '52.6.3 제정

#### □ 주요 내용

#####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01.6.24, 김일성광장
- 연설 : 양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 참석 : 최태복(당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곽범기(내각 부총리), 이종산(인민군 차수), 김영대(사민당 중앙위원장),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

##### < 연설 요지 >

- 조·미 기본합의문 및 조·미 공동코뮤니케 채택과 북남공동 선언 발표는 평화에 호적이고 통일지향적 입장의 결실임.

- 미 행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됨.

-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함.

- ※ 6.23 노동신문 정론 「용서없다」, 6.25 노동신문 사설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게재

## □ 분석 · 평가

- 금년 「6·25」 관련행사는 극렬한 반미비난 속에서도 대남비방없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한 점이 특징

- 反美선전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협력 및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 그들의 남북화해협력 기조와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부진에 대한 책임이 미국측에 있는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는 한편

- 민족공조를 내세워 미국의 강경입장에 대해 남북이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2. 북한의 장길수 일가 관련 반응

### □ 개 요

- 북한은 6. 29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사무소에 머물렀던 장길수군 일가 7명이 제3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하여 UNHCR을 비난하였음.

### □ 주요 내용

- 장길수 가족은 피난민이 아니라 명백히 비법 월경자임.
- 이번 사건은 장길수가 반공화국 그림을 그리도록 피어내어 남조선 출판물에 실리게 하고는 그들이 송환되면 처형될 수 있다는 망명구실을 만들어낸 데 따르는 조작극임.
-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돌을 계기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때에 이러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불순한 처사에 대해 응당한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음.
- 유엔피난민고등판문관 사무소는 자기들의 활동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비법 월경자문제를 불법처리하여 조선반도의 북남화해 과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대결을 조장시킨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

## □ 분석·평가

- 장길수가족 일가 입국이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 우리측 당국에 대한 비난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UNHCR에 집중되어 있고
  - 중앙통신(대외용)→ 평양방송(대남용)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반응을 고려할 때 동 사건에 대한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측면이 강하고
  - 유사사건에서 보여지던 「범죄인」, 「인간쓰레기」 등 극단적인 표현이 자제되어 있음.

### <장길수 일가 탈북 일지>

- 97. 3 ~ 99. 8 김춘옥(67, 길수군 외할머니)을 시작으로 정대한(28, 외삼촌), 이민국(20, 이종사촌) 등에 이어 장한길(20, 형)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가족이 탈북, 중국 은신처에서 합류
- 2001. 6. 26 길수군 등 7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사무소에 들어가 난민지위 부여와 한국망명을 요청
- 2001. 6. 30 길수군 가족(7명) 제3국(싱가포르, 필리핀)경유 입국
  - \* 6.30 한길군 일행(3명)과 서울에서 상봉

### Ⅲ. 관련 동향

#### 1.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방침 결정

##### □ 개 요

- 정부는 6. 27 경제부총리 주재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기로 결정

##### □ 주요 내용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항과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하는 방식
- 국회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출규모 및 조건 결정

##### <관련 상황>

- 6. 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발표
- 6. 23 통일부, 금강산관광사업 남북협력사업(자) 변경 승인
- 6. 26 한국관광공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긴급운영자금(900억원) 대출신청

## 2. UN 인도지원조정국, 금년 1-5월중 대북지원내용 공개

### □ 개 요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 OCHA)은 금년 1-5월중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액 등이 집계된 「북한상황보고서」 5월호를 6.25 공개하였음.

### □ 주요 내용

-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1개 국가와 4개 민간단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식량 및 식료품 38만9천775t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였음.
  - 북한 도착분 기준으로 ▲옥수수 10만t(한국) ▲쌀 20만8천7t(일본, EU) ▲밀 7만4천t(미국, EU) ▲콩 2천311t(스웨덴, 아일랜드 등) ▲옥수수.콩 혼합곡물 990t(EU) 등
- 같은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식료품 원조는 ▲식용유 2천216t ▲설탕 912t ▲냉동 쇠고기 712t(스위스) ▲어류 통조림 520t(캐나다) 등 4천467t에 이르렀음.
- 오는 9월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및 식료품 조달 계획은 충족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분 확보를 위해서는 곡물 25만t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6.23 통일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 6.24 합동참모본부, NLL 침범 북측어선 경고사격후 퇴각 발표
  - \* NLL을 넘은 북측선박에 대해 무력대응한 것은 서해교전(99.6)이후 처음이며, 금년들어 북측어선의 NLL침범은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임.
- 6.25 김대통령,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 강조(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 한반도에서 휴전상태를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함.
- 6.25 국정원, 북한의 6·25이후 최악의 식량난 가능성 지적(국회 정보위 보고)
  - 북한의 식량사정이 95-96년을 상회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6.26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합작 북한광산 개발 발표
  - 남측 성남전자공업(주)과 북측 삼천리총회사가 사업주체로 나서 올해안에 강원도 평강군 압동 타탈름원광 25만톤을 생산할 예정
- 6.26 한국관광공사, 정부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긴급운영자금(900억원) 대출신청
- 6.27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방침 결정(경제부총리 주재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
- 6.27 통일부장관, 남북대화 재개시 경의선 복원공사 우선논의 시사(이북5도청 6·15 1주년 특별강연)
  - 남북당국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조만간 재개되길 기대하며, 경의선 복원공사를 우선 논의하고, △전쟁방지 △이산가족문제 본격 해결 △교류·협력 강화 △개성공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
- 6.28 통일부 대변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상임위원회 유회 관련 입장 발표
  - 통일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상황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소상히 협의해왔음.



## 북한 동향

- 6.24 북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평양 김일성광장)
- 6.25 북한 외무성 대변인,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 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언급(러시아의 소리방송 6.26 보도)
- 6.28 북한, 한·미, 미·일 국방장관회담 비난(중방)
  - \* 한·미국방장관회담(6.22, 김동신-럼스펠드), 미·일국방장관회담(6.23, 럽스펠드-나카타니)
- 6.30 북한, UNHCR 북경사무소에 머물렀던 장길수 일가 제3국 출국 관련 UNHCR 비난(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 주변국 동향

- 6.27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 제3회 동북아총회 금년 10월 평양 개최 발표
  - IPPNW 일본지부는 동북아 총회를 10.3부터 2일간 평양에서 개최, 참석 국가는 남북한과 중국·일본이라고 밝힘.
- 6.28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소수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미 하원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한 증언)
- 6.28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방지와 기타 무기 감축을 포함한 지역안보에 우려 표명(캔버라, 백남순외무상 회담시)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0호>

2001. 7. 1 ~ 7. 7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동향

- 김대통령, 남북 당국대화 재개 전망
- 독일의회, 「한반도 결의안」 채택
- 2001년 상반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 III. 기타 동향

- 6.15-8.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동향
- 북한 「통일신보」, 남측인사 방북 인상기 게재
-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관련 대북 연체금 송금
- 김정일위원장, 중국공산당 창당80주년 경축연회 참석
- 노르웨이 적십자사 국제부장, 방북결과 설명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현대아산이 대북 연체금을 송금(7.2)하는 등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7.3. 대구 매일신문 회견)
- 정부는 2001년 상반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을 집계 발표
  - 기간중 국내외 대북지원은 총 2억8,873만불 상당(국내지원: 총 1억 65만, 국제사회 지원: 1억8,808만)

## ◀ 북한 동향 ▶

-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
  -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경축연회에 참석(7.1) 및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7.6)
- 남북당국간 대화가 정체된 상황하에서도 북한은 사회문화분야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표출
  - 6.15-8.15 남북공동행사 「북측 준비위」는 서한을 통해 남북농민단체, 청년학생단체들간의 공동행사 후원을 제의, 「통일신보」는 금강산 민족 통일대토론회 참석 남측대표의 방북 인상기를 게재

## ◀ 주변국 동향 ▶

- 독일 연방하원은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7.5)했고, 미국 하원 하비어 베세라의원은 미주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추진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 노력 약속(7.3)

## II. 주요 동향

### 1. 김대통령, 남북 당국대화 재개 전망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7.3 대구 매일신문 창간 55주년에 즈음해 가진 특별회견에서 조만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주요 내용

- 앞으로 남북관계는 정체상태가 풀리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 조만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 등 남북관계 제약요인 해소,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 대화 분위기 조성에 근거
-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우선적으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계속 추진, 4대 경제협력 합의서 발효,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과제를 협의해 가는 것과 함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남북정상이 함께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봄.

## 2. 독일의회, 「한반도 결의안」 채택

### □ 개 요

- 7.5 독일 연방하원은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 동 결의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기민-기사 연합이 발의, 집권연정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을 비롯한 독일의 각 정당이 참여하여 추진

### □ 결의안 주요 내용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관계진전의 새 장을 열었음.
-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음.
- 독일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화해·협력조치, 특히 경제분야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
  - 북한내 수용소에 대한 외부접근 허용 및 인권존중을 촉구
  - 북한이 핵비확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초래될 수도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남·북한, EU 및 미국과 공동노력
  - 북·미간 미사일 문제 및 운반기술 수출금지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

### 3. 2001년 상반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 □ 개 요

- 기간중 국내외 대북지원은 총 2억 8,873만불 상당이었으며, 이중 국내지원은 총 1억 65만불, 국제사회 지원은 1억 8,808만불 상당

#### □ 주요 내용

- 국내지원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복구 5,143만불(51%), 일반구호 4,082만불(41%), 보건의료 840만불(8%)로 구성
  - 정부차원의 지원은 6,555만불(849억원, 65%)로 전년동기 640억원의 1.3배 수준이며, 그 중 대부분이 비료 20만톤 지원(5.2~6.5, 4,907만불) 금액임.
  - 민간차원은 3,510만불(445억원, 35%)로 작년동기 110억원의 4배 수준이며, 그 중 한적이 54.8%(244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독자창구가 45.2%(201억)를 차지
- 국제사회는 UN기구 1억 7,012만불(90.5%), 국제 NGO 799만불(4.2%), 개별국가가 997만불을 지원
  - 지원품목은 식량(쌀, 쇠고기 등), 비료, 원유, 비타민제 등으로 구성



### Ⅲ. 기타 동향

#### 1.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동향

##### □ 개 요

- 북측 준비위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앞으로 보낸 6.27자 서한을 통해 남북농민단체, 청년학생단체들간의 공동행사 후원을 제의

##### □ 서한 요지

- 지난 민족통일대토론회 때와 같이 북의 「준비위」와 남의 「추진본부」가 이 행사들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 노력
-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인사들을 명예 손님 또는 참관단으로 파견 축하

##### □ 관련동향

-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청년학생추진위」에 대해 동 행사들을 「추진본부」와 「준비위」 공동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
- 「청년학생추진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농」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 「전농」은 7.17-19 금강산에서 개최예정인 남북농민공동행사 실무 협의를 위해 7.10 대표(3명) 파견 예정

## 2. 북한 「통일신보」, 남측인사 방북 인상기 게재

### □ 개 요

- 6.23 북한 「통일신보」는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남측대표(윤한택 「통일연대」 공동대표, 고영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표)들의 방북 인상기를 게재

### □ 주요 내용

- “금강산 토론회가 남북 동포자매들의 대화합이었으며, 6·15 공동선언의 요구대로 외세를 반대하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는데 통일의 길이 있다” (윤한택 공동대표)
-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 청년들은 서로의 통일의지를 확인하고, 공동선언 이행에 젊음을 바쳐갈 것을 언약했으며, 남한 청년학생들은 북녘 학우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연대·연합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영삼 대표)

### 3.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관련 대북연체금 송금

#### □ 개 요

- 7.2 현대아산은 밀린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불금 2천200만달러 (약286억원)를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을 통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송금

#### □ 주요 내용

- 현대아산은 '99부터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아태평화위측에 정액제로 매월 1,200만 달러씩 지급키로 약정한 바 있었으나
  -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으로 2월분 400만달러를 비롯, 5월분까지 총 2,20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
-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가 새로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자금을 확보, 이를 북측에 송금

#### <관련 일지>

- 3.20-22 김윤규 사장, 방북하여 아태평화위와 관광대가 협의
- 3.30 현대아산, 2·3월분 관광대가 1,000만 달러 미지급 발표
- 6.20 관광공사·현대아산, 금강산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
- 6.29 신한·주택·국민은행, 관광공사에 2,200만달러 대출

#### 4. 김정일위원장,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경축연회 참석

##### □ 개 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1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80주년 경축 연회에 참석
  - \* 김영춘 군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와 근로단체·언론계 인사 대거 수행
- 이에 앞서 김정일위원장은 6.30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장쩌민 총서기 앞으로 북한노동당 총비서 명의의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축전을 발송
  - 7.3 장쩌민 총서기는 김정일위원장에게 답전 발송

##### <최근 김정일위원장의 대중국관련 주요 활동 일지>

- 2000.3.5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 2000.5.29~31 중국 비공식 방문
- 2000.9.15 다이빙귀(戴秉國)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
- 2000.10.25 츠하오텐(遲浩田) 국방부장 접견
- 2001.1.15~20 중국 비공식 방문
- 2001.2.9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 부부장 접견
- 2001.3.22 쩡칭홍(曾慶紅)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접견
- 2001.7.1 중국공산당 창건 80돌 주북 중국대사관 연회참석

## 5. 노르웨이 적십자사 국제부장, 방북 결과 설명

### □ 개 요

- 6.29~7.3 노르웨이 적십자사 하버 라우리첸(Halvor Fossum Lauritzsen) 국제부장은 북한 지역(남포, 북-중 접경지대)을 방문
  - \* 동인은 노르웨이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협의 목적으로 방북
- 방북 직후 7.4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노르웨이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및 북한의 경제상황 등과 관련하여 기자 인터뷰 개최

### □ 주요 언급 내용

- 조선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과 김석철 부서기장겸 국제부장을 만나 향후 지원계획 등을 논의
  - \* 종전 「북적」 서기장은 허해룡
- 북한의 경제상황은 추수할 때는 식량사정이 호전되나 봄이 되면 식량난이 악화
  - 남한에서 지원받은 물품 중 비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밖에 식량이나 속옷, 담요, 방한용 비닐 등 긴급 구호물품과 의료기기 등이 필요
- 노르웨이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평안남도, 자강도 등 4개지역의 보건 프로젝트 중 의약품 지원을 담당
  - 그밖에 북한 병원에 난방용 석탄 공급(2000년 28개 병원 지원),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가방 지원 계획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7.2 임동원 통일부 장관, 통일부 직원 월례 조회에서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
- 7.2 현대아산, 금강산관광사업 대북연체금 2천200만달러를 북한 아태평화위 앞으로 송금
- 7.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지난 해 대일 교역액이 전년대비 32.3% 증가한 4억6천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7.2 미 상하원 관계자 및 디펜스 포럼재단, 황장엽씨에게 방미 초청장 전달
- 7.2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강연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7.3 정부, (주)시스젠의 남북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
  - \* 통일부는 권오홍 대표가 정부 승인없이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을 취소
- 7.4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홈페이지 인터뷰 기사에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명
- 7.5 한국관광공사, 정부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남북교류협력기금 900억원 중 450억원을 1차로 수령
- 7.5 제16차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 개최(제주 신라호텔)
- 7.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오양열 예술회 회장, “북한 가요가 정상회담 후 탈이념화됐다”고 주장(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최, 「남북관계 점검과 문화교류 전망」포럼)
  - \*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노래가 회담 전 41.2%에서 회담 후 24%로 감소

- 7.5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남북 종교대표 회동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7.17경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
  - \* 가톨릭, 불교 등 7대 종단을 망라해 남측 50-60명, 북측 20-30명 참석 예정
- 7.5 정몽준 2002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월드컵의 남북분산개최 가능성 언급
- 7.5 2001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북한의 「윤이상앙상블」이 오는 10.13-21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참가, 공연할 계획이라고 발표
- 7.5 광주사회조사연구소,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항목 중 「남북관계 분야」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86%라고 발표
  - \* 6.15~18, 광주지역 성인남녀 4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

## 북한 동향

- 7.1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경축연회 참석차 주북 중국 대사관 방문
- 7.4 중앙방송, “미·일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말로만 평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비난
- 7.5 조선언어학회, 「일제가 감행한 조선어 말살 책동의 범죄적 진상」제하의 글을 통해 일본의 사죄·보상 촉구(평양방송)
- 7.5 중앙방송, “단군릉 발굴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
- 7.5 조선자연보호련맹 오명석 실장, “북한은 범국민적으로 생태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6.23자 노동신문 기고문)
- 7.6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여객기 사고 관련 위로전문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발송

## ☞ 주변국 동향

- 7.3 워싱턴 타임즈, “북한이 지난주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고 보도
- 7.3 미 국무부,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한 6.18 성명에 대해 북한이 통상적인 창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
- 7.3 하비어 베세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LA한인연합회(KLA)와의 간담회시 “미주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추진에 관한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 동 결의안은 2001. 3월 베세라의원과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이 공동발의
- 7.3 평양주재 WFP 대표, 북한은 최근 5년동안 WFP로부터 매년 80여 만톤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발표(러시아 소리방송)
- 7.3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산하 체육협회, 이사장 직제와 상임이사회에 전문부서 설치(조선신보 인터넷판 보도)
- 7.5 독일 연방하원,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 채택
- 7.5 백악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비용으로 2천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
- 7.6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유예 약속 준수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 협상재개를 강력히 촉구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1호>

2001. 7. 8 ~ 7. 1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요 동향

- 정부, 정경분리원칙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입장발표
- 북·미 실무접촉 동향
- 6.15-8.15 남북 공동행사 관련 동향(II)
- 상반기 남북경제협력 동향

### III. 기타 동향

- 김일성 7주기 행사 동향
- 「조·중 우호협조조약」 체결 40돌 관련 동향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북한동향
- 방북중 사망한 전 대한의협회장 시신 인도인수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으로 내부 참고용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통령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7.11)했으며,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원관련, 「정경분리원칙과 남북협력기금 지원관련 입장」 발표(7.9)
- 정부(통일부)는 상반기 남북 경제협력 동향을 발표
  - 전년 동기대비 전체교역은 18.8%, 위탁가공 교역은 3.2%증가

## ◀ 북한 동향 ▶

- 북한은 김일성 7주기(7.8)행사를 작년에 비해 비교적 축소된 규모로 치렀으며, 북·미 회담의 의제로 전력보상문제의 우선논의를 계속 주장(7.8 중방, 7.11중앙TV)
-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40주년(7.11)을 맞아 각종기념 행사 개최, 대표단 파견 및 북·중 쌍방간 상호 축전 교환(7.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도차이나 3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순방외교(7.11-20) 개시 등을 통해 사회주의권과의 친선우호 강화를 도모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행사 관련 실무 회담(7.9-11) 및 남북민화협 실무접촉(7.10-11)을 진행

## ◀ 주변국 동향 ▶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다”(7.9),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북 대화와 관련,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언급(7.12)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뉴욕에서 미·북 실무접촉 진행(7.13)
- 스탠리 피셔 IMF부총재는 김대통령 면담시 “남북한이 대화로 합의를 이루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7.9)

## II. 주요 동향

### 1. 정부, 정경분리원칙과 남북협력기금 지원관련 입장발표

#### □ 개 요

- 7.9 통일부는 주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경분리원칙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관련 입장」을 발표

#### □ 정부의 기본입장

- 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방 등 우리의 대북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 요소
- 이러한 점을 감안 현정부 출범초기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류협력과 정치군사문제 연계전략을 철폐, 정경분리원칙 채택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추진으로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옴.
- 정경분리원칙하에서 정부의 책무는 민간의 자율적인 남북교류협력 보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됨.
  - 이러한 점을 고려, 정부는 이미 '90년도에 「남북교류협력법」(제24조)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와함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음.

\* 정경분리원칙을 정부가 남북경협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합목적성의 정신에 상치

○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 이것을 경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조치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 실제로 '90년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교역업체의 손실 보조 등이 정경분리원칙 위배로 비판 받은 일은 없음.

#### □ 금강산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배경과 기대효과

○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조치가 7번국도 연결, 금강산 지구의 특구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위협 해소라는 측면에서 국가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법률적 절차를 거쳐 지원을 결정

○ 이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배치되게 민간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맡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우리의 대북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 금강산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한 자금을 환급받을 계획

## 2. 북·미 실무접촉 동향

### □ 개 요

- 북한과 미국은 7.13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개최  
\* '에드워드 동' 미 국무부 한국과장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이근 부대사로 추정)

### □ 관련 내용

- '에드워드 동' 국무부 한국과장이 13일 오전 10시30분-12시 (한국시간 13일 밤 11시30분 - 14일 새벽1시)까지 뉴욕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와 만나 양국간 대화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음.
- 북한은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언질을 주지 않았으며, 그들은 정보를 더 얻으려 하였음.
- ※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접촉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이뤄지고 있는 「정례적 접촉」이라고 평가  
(\*상기 내용은 미 국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근거하여 작성)

### □ 참고 사항

- 부시 대통령은 6. 6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핵 무기 및 미사일 외에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된 의제를 제시
-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며 최근까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 3. 6.15~8.15 남북공동행사관련 동향(Ⅱ)

#### □ 개 요

- 7.9~11 남북농민통일행사 관련 실무회담과 7.10~11 남북「민화협」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진행

#### □ 주요 합의내용

- 남북농민통일행사관련 실무회담
  - 남측은 「전농」 관계자, 북측은 「농근맹」 관계자가 참석
  - 쌍방은 7.18~19 개최될 행사명을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 농민통일대회」로 하며, 「전농」 참가자 694명이 참가하기로 합의
  - 쌍방은 주요 행사로 남북명배우 축하공연, 농악부 공연, 줄넘기 등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
- 남북「민화협」 실무접촉
  - 남측은 조성우 집행위원장, 이승환 사무처장 등 5명, 북측은 이관익 사무소장, 김지선 부소장 등 4명의 대표가 참석
  - 쌍방은 남북 「민화협」간 협력사업 문제, 8·15 공동행사 문제, 기타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부천 공단관계자 방북 문제」등에 관심 표명
- \* 민화협 실무접촉 결과 특별한 성과도출은 없었으나, 추후 접촉에서 「8·15 공동행사」 추진문제가 계속 협의될 예정

## 4. 상반기 남북 경제협력 동향

### □ 개 요

- 7.11 통일부가 밝힌 금년 상반기 남북 경제협력 동향에 따르면, 교역액(1-5월)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으며, 민간경협은 증대추세

### □ 관련내용

#### <남북교역>(1-5월)

- 전체교역(전년대비 18.8% 증가)과 위탁가공교역(전년대비 3.2% 증가)은 꾸준한 증가추세
  - 거래성 교역은 21.9%가 감소했는 바, 이는 북한 반입품의 희소성 감소, 국내경기 침체, 인천·남포항간 물자운송차질 등에 기인 추정

#### <경제협력>(1-6월)

- 민간경협의 꾸준한 증대 추세
  - 삼성전자의 S/W개발사업 확대(5개과제→17개과제), 국제옥수수재단의 사업기간 연장(7년), 평화자동차의 조립·생산공장 건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녹십자의 의약품 생산사업 등 확대 추진 등
- 협력분야의 범위 확대
  - IT분야 : IT산업단지 조성(하나비즈닷컴, 엔트랙, 전화엔지니어링), 인터넷컨텐츠, 애니메이션 등 각종 S/W개발, 전자상거래 등 추진
    - \* 하나비즈닷컴 및 엔트랙은 IT분야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4월)
  - 광산물개발 : 탄탈륨, 칼리장석 등 개발 추진



### Ⅲ. 기타 동향

#### 1. 김일성 7주기 행사동향

##### □ 개 요

- 북한은 김일성 7주기(7.8)를 맞아 각종 대내외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김일성 위대성 찬양, 유훈 실현 및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 등을 강조하였음.

##### □ 행사 내용

- 지난해와 같이 「중앙추모대회」는 없이 김정일 위원장이 7.8 군 수뇌부를 대동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

\* 행사규모 면에서는 작년보다 비교적 축소 진행

- 김용순(당비서)·송호경(아태부위원장) 등의 7.6 판문점 북측 지역 「김일성친필비」 참배

##### □ 주요특징

- 금년 김일성 7주기 행사도 대체로 차분한 가운데 특이동향 없이 김일성의 업적 찬양과 함께 김정일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 단결을 강조

- 특히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여 통일의 역사를 펼쳤다”고 강조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부각

## 2. 「조·중 우호협조조약」 체결 40돌 관련 동향

### □ 개 요

-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61. 7.11) 40주년을 계기로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혈맹관계」 등 친선우호관계의 강화를 강조하였음.

### □ 관련 동향

#### < 북한 >

- 조선친선대표단(단장 : 김윤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방중, 장쩌민 주석(7.10)과 리펑 「전인대」상무위원장(7.11) 등 예방
- ※ 장쩌민 주석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과정의 전진을 강조하였으며, 리펑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7.1)에 사의를 표하고 “피로써 맺어진 친선을 강화하자”고 언급
- 김정일·김영남·홍성남 공동명의로 장쩌민·리펑·주룽지 앞 축전 발송(7.10)

#### < 중국 >

- 중국 친선대표단(단장 : 장춘원 공산당 정치국원 겸 「전인대」상무위 부위원장) 방북, 김정일위원장(7.12)과 김영남(7.10)·양형섭(7.9) 등 예방

- ※ 김정일위원장은 “조·중조약이 쌍방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추동력”이라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현대화된 중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
- 장쩌민·리펑·주룽지 공동명의로 김정일·김영남·홍성남 앞 축전 발송(7.10)

## □ 참고 사항

-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7개조항)은 김일성-저은라이 사이에 '61.7 체결되어 발효되었는 바
  - “자동군사 개입” 조항(제2조)과 “이의없는 한 무기연장” 조항(제7조)이 핵심내용이며
  - 기타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노력(제1조), 상대를 반대하는 모든 집단·조치에 불참(제3조), 공동의 국제문제 협의(제4조), 경제·문화 등 협조발전(제5조), 평화적 민주적 기초위에 한반도 통일(제6조) 등으로 구성

### 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북한 동향

#### □ 개 요

- 북한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직후 각 사회단체와 인사들,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를 비난

#### □ 주요내용

- 4.7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난한 뒤
  -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교육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본부 등이 비난성명과 담화 발표
  - 역사학자들과 인문계 단체들도 잇따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
- 6.15 금강산대토론회에서도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4. 방북중 사망한 전 대한의협회장 시신 인도인수 동향

##### □ 개 요

- 7.12 남과 북은 방북기간중 사망한 전 대한의협회장 유성희씨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인수
  - 동인은 남북의료협력사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협회관계자 및 KBS 관계자 등 일행 6명과 함께 7.10~17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 7.10 뇌출혈로 급서
- 동인의 사망사실은 동행한 KBS 취재팀에 의해 사망당일 우리측에 통보

##### □ 주요 내용

- 동인의 시신 인도인수를 위해 우리측에서는 통관절차 관계관, 고인 유가족, 운구단 및 지원인원 등이 판문점에서 대기
  - 북측 운구원 6명으로부터 시신 인수
- 북측은 우리 일행중 홍승원씨를 대동, 고인의 개인유품을 우리 측에 인계했고, 또한 고인과 함께 방북체류 중이던 대한의사협회 일행 5명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시신 인도인수 상황을 주시
  - 시신 인도인수는 11시부터 약 30분간 진행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7. 8 김성호 민주당 의원, 「탈북자 호칭변경을 위한 대안 보고서」 발간
  - 응답자의 68%가 탈북자란 용어를 “부적절하다”고 응답, 대안으로서 자유이주민(58%), 자유북한인(18%)을 선호
- 7. 9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약분무기 1만대 북한 지원 발표
  - 7.11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할 계획
- 7. 9 한국담배인삼공사, 평양룡성공장에서 제조·반입된 남북공동브랜드 담배 「있스」 1만여 상자중 1천5백상자에서 포장 불량 발견돼 전량 재처리했다고 발표
- 7. 9 정부, 남북협력기금의 금강산관광사업 대출에 대한 입장 발표
  - \*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논리적 근거가 있는 바 이번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 기금을 대출한 것은 정경분리원칙의 함목적성의 원칙에 위해된다 할 수 없음
- 7. 9~11 남북농민공동행사 관련, 남북농민대표 금강산 실무접촉
  -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행사일정 및 행사 내용에 합의
- 7.10 김대통령, 「일류국가 도약위한 남북간 평화협력」 강조(세계한인회장단 다과회)
  - “햇볕정책은 평화공존, 평화교류하고 전쟁없이 잘 살자는 것으로, 남북이 평화협력을 이루면 반드시 일류국가가 될 것임.”
- 7.10~11 남북 민화협 대표 금강산 실무접촉
  - 민화협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
- 7.10 통일연구원 허문영 박사,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정책방향」 제하의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은 당분간 남북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한편 남북협력증진에 따른 내부 이완의 위험성을 차단기 위해 경제협력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 주장

- 7.10 국회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 통일부 상대로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승인결정 취소처분청구소송 및 기금대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 7.11 김대통령,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 7.11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차원의 남북협력기금 출연 현황 발표
  - '91년 이후 총 출연금 약20억원 중, 정상회담 이후 약 15억원 조성
- 7.11 재미실업인연합회(회장:김봉섭), 북미관계 개선시 모두 3-4차례의 북한 산업시찰단 파견계획 언급(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
- 7.11 통일부, 올 5월말까지의 남북한 전체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했으며, 위탁가공 역시 3.2% 증가했다고 발표
- 7.11 한국노총, 북한 직송에 요소비료 1천톤을 전달할 것이라 발표
- 7.11 유성희 전 대한의협회장, 「의협」 대외의료협력단 일원으로 방북중 사망
  - \* 7.12 11:30 판문점에서 유가족이 시신 인수
- 7.11 동서대학교, 1년분 밀가루와 제빵기구를 7.20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

## ☞ 북한 동향

- 7. 8 북한, “북미대화의 선차적인 의제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중방)
- 7. 9 북한, “미국은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북미회담의 의제로 전력보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측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중방)
  - \* 7.11 중앙TV도 같은 내용을 보도
- 7. 9 북한,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이나 사찰, 무력감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총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노동신문)

- 7.10 북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상호 축전 교환(중방 7.11)
- 7.11-2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순차 방문
  - \* 이광근(무역상), 강능수(문화상), 박길연(외무성 부상), 홍선옥(대외문화 연락위 부위원장) 등 수행
- 7.11 중앙방송, 대외문화연락위원회(대문연) 부위원장에 허해룡 전 북한적십자회 서기장 임명 보도
  - \* 「대문연」은 민간외교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노동당 국제부, 내각 외무성 등과 연계해서 활동
- 7.11 중앙방송, 북한 태권도선수단이 7.3~8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 보도

## ☞ 주변국 동향

- 7. 9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대북제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우리의 제의와 제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현안을 논의하지는 데 대한 대답과 의향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미국이 처리해야 할 1차적인 문제임.”
- 7. 9 토클 패터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 북미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방미 중인 한국 여야의원 면담시)
- 7. 9 스탠리 피셔 IMF부총재, “남북한이 대화로 어떤 합의를 이루면 IMF는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김대통령 면담시)



- 7.10 강택민 중국 주석, 남북대화지지 입장 표명(북한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접견시 발언)
  - “중국은 북·남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임.”
- 7.11 USA 투데이,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12개까지 제조하기에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핵폭탄 30개 제조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
- 7.12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폭넓은 협상의제를 제시했으며,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언급(워싱턴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연설회)
- 7.12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북한은 현재 수백기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보유, 한반도전쟁시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가공할 위협중 하나는 미사일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미 상원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 심의회)
- 7.12 NYT, “미국은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 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원원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와 미본토 방어 등 4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
- 7.13 미·북 뉴욕실무접촉 개최
  - \* ‘에드워드 동’ 미 국무부 한국과장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2호>

2001.7.15~7.2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대통령의 북미·남북대화 관련 발언
- 남북농민통일대회 동향
- 정부, IT 분야 남북경협사업 최초 허용

### III. 기 타 동 향

-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설문조사 응답 내용
- 쿠라드 루브르와 주한 벨기에 대사 방북결과 설명
- 미국, 우리정부에 「MD설명자료」 전달
- UN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김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대화도 북미 대화와 병행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7.20)
- 통일부는 IT분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7.18)하였으며, 우리측(UNC)은 북한군 사채1구를 북측에 인도(7.16)

## ◀ 북 한 동 향 ▶

-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에 대해 '자위적 대응조치'를 주장(7.19)하는 한편, 중방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윌포비츠 미국방부 부장관의 상원 국방예산심의회 발언(7.12)을 강력히 비난(7.18)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베트남·라오스에 이어 7.17~20간 캄보디아를 순방함으로써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완료(7.11~20)
-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통일농민대회」를 개최(7.18~19)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7.19)

## ◀ 주 변 국 동 향 ▶

- 미행정부는 우리정부에 MD관련 설명자료를 전달(7.12)
- UN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에 착수(7.19)하는 한편, 국제 엠네스티는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UN조사 협력을 촉구(7.18)
- EU집행위 대표단은 대북원조 개선방향 등의 논의를 위해 방북(7.20~7.25)하고, 체코·네팔 의회대표단도 북한을 방문(7.17)

## II. 주 요 동 향

### 1. 대통령의 북미·남북대화 관련 발언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통일협의회 임원 초청 다과회(7.19),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 간담회(7.20) 등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아울러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 간담회시

- 남북대화의 조속 재개를 위한 조율을 지속하고 대화를 준비해 나가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북미대화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보고

#### □ 김대중 대통령 발언 요지

-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는 병행 발전해야 함.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이 안되면 성공할 수 없음. 이런 점에서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해 왔음.
-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단계에 와 있음.
- 최근 북한이 미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가 안되니까 심술을 부리는 것임.(이상 7.19 민족통일협의회 임원 초청 간담회)
- 남북관계는 남북·북미관계가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좋음.
  - 특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이루어 지도록 정부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7.20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 간담회)

## 2. 남북농민통일대회 동향

### □ 개 요

- 7.18~19 남북농민통일행사가 남측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여농) 등 680여명, 북측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진행

### □ 주 요 내 용

- 행사는 개막식 및 통일연단행사, 민속경기 및 체육경기, 산행 등으로 진행
  - 개막식에서 정광훈 전농 의장은 '금번 남북농민대중의 첫 만남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만남' 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의 실천을 위해 민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자'고 강조
  - 송상섭 농근맹 위원장도 '북남 농민들은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양측은 행사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농민연대회의」 결성을 추진키로 합의
  - \* 지난 3월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직총간에 남북노동자 통일연대 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구성에 합의

### 3. 정부, IT 분야 남북경협사업 최초 허용

#### □ 개 요

- 통일부는 7.18 하나비즈닷컴의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신청을 승인
  - 동 협력사업 승인은 IT분야의 첫 합영사업으로 남북경협이 IT 분야로 확대되는 최초의 사례

#### □ 하나비즈닷컴의 협력사업 내용

- 하나비즈닷컴과 북측의 평양정보센터는 합영으로 금년 8월초 중국 단둥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건립 예정
  - 동 합영기업의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우리측이 자금(200만불 미만)을 북측이 인력과 건물부지 등을 제공할 예정
- 하나비즈닷컴은 동 센터를 IT단지로 조성, 국내 IT업체 등을 입주토록 할 계획



### Ⅲ. 기 타 동 향

#### 1. 중소기업의 남북경협관련 설문조사 응답 내용

##### □ 개 요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7.21 전국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01.6.1-6.30)한 결과를 발표
- 업체들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남북정상회담 직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대부분 업체들은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경협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향후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

##### □ 설문조사 내용

##### ○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관심없다
13.0% (23.4%)	32.0% (44.2%)	48% (26.1%)	6.5% (6.3%)

\*괄호 안은 남북정상회담 직전 응답율

##### ○ 향후 사업추진 계획

적극 추진	중·장기적 추진	추진 의사 없다
3.9%	73.2%	19.0%

○ 남북경협추진이유

북한의 값싼 노동력	통일후 북한시장 확보	판매시장 등 확보
59.4%	20.9%	16.0%

○ 남북경협 추진방식

위탁가공방식	합영 · 합작	단순물품교역
40.4%	25.7%	16.5%

○ 남북경협 진출방법

중소기업간 공동진출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진출	중소기업 단독진출
57.1%	24.7%	16.9%

○ 남북경협 진출 희망지

휴전선 인접지역(개성 등)	남포·해주 지역	내륙지역(평양 등)
52.8%	23.1%	17.5%

\* 이밖에 우선적 진출 분야로 도로·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이 각각 39.0%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우선적 지원사항으로 북한 지역 투자보장 및 손실보전(58.3%), 세제 및 금융지원(15.8%), 인·허가 절차 간소화(9.6%) 등을 주문

## 2. 쿠라드 루브르와 주한 벨기에 대사 방북결과 설명

### □ 개 요

- 쿠라드 루브르와 주한 벨기에 대사는 7.19 한국기독교언론인 클럽이 주최한 조찬토론회에서 최근 방북시 득문사항을 발표

### □ 주 요 내 용

-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갈 것’이라고 언급함.
-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느꼈음.
- 북한의 식량난 관련, 북측 관리들로부터 지난해까지 210만톤이 부족했으나 국제사회의 원조 등으로 사정이 많이 호전되어 올해에는 100만톤 가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 □ 참 고 사 항

- 루브르와 대사는 6.18-23 방북,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백남순 외무상 등과 면담
  - 동인은 2000.10 한국주재 대사로 부임, 벨기에가 금년 1월 북한과 수교함에 따라 본국으로부터 평양주재 겸임대사로 발령

### 3. 미국, 우리정부에 「MD설명자료」 전달

#### □ 개 요

- 미 행정부는 7.12 현재 추진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상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우리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 동 설명자료는 백악관이 7월 11일자로 작성하여 전세계 미대사관에 송부, △MD의 주요원칙 △질문과 응답 △MD가 ABM에 미치는 영향 △MD에 대한 오해 등 4개 장으로 구성

#### □ 주 요 내 용

##### < MD의 주요 원칙 >

- 미국은 「상호확증파괴」(MAD : 방어수단이 없는 핵무기 경쟁체제)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넘어선 새 정책방향을 추진하려 함. 냉전시대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토대를 요구함.
- ABM 협정은 냉전시대에 존재했던 두 강대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상호간의 불신과 취약성의 관계를 전제한 것임.
- 오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역지력이 필요함. 오늘날 대부분의 긴급한 위협은 수천기의 소련미사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로 무장한 불량국가들이 보유한 소수의 미사일에서 유래함.

## < 질문과 응답 >

-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에 미사일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은 왜 핵보복 위협에 의존하지 않나?
  - ☞ 많은 국가들이 탄도미사일을 매력적 수단으로 선호하는 요인중 하나는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임. MD는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무기를 획득하려는 유혹을 줄일 수 있음.
- MD 배치를 서두르기에 앞서 MD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 지의 여부를 왜 기다리지 않나?
  - ☞ 가능한 빨리 MD를 배치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은 위협의 긴박성에 의해 추진되었음. 예컨대 북한은 98년 일본을 통과하는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음. 정보당국은 이 발사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소형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현재 개발중인 대포동 2호는 훨씬 긴 사거리와 강력한 탄두탑재능력을 갖게 될 것임.

## □ 참 고 사 항

- 5. 1 부시 미 대통령, MD계획 천명
- 5. 2 부시 미 대통령, 김대통령에게 MD계획 설명(전화통화)
- 7.14 미 국방부,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 발표

## 4. UN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 동향

### □ 개 요

- 유엔인권이사회는 7.19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에 착수

\*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지칭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 □ 주 요 내 용

- 북측 대표단은 이철 주제네바 대사를 비롯,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 이기순 중앙재판소 참사, 김영철 중앙검찰소 참사, 정성일 외무성과장, 박덕훈 외무성 연구원 등으로 구성
- 심사에 앞서 위원들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북한은 심형일 법제 부장이 답변
  -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문제
  - 노동교화소와 수용소내의 고문 및 가혹행위
  - 비밀 강제수용소 존재
  - 공개처형 등 사형집행 내역 공개
  - 도청을 비롯한 북한주민에 관한 광범위한 내부감시 등
- 인권이사회는 20일 북한에 대한 추가 서면질의·답변, 27일 북한을 비롯한 5개국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개별국가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채택할 방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7.16 유엔군 사령부, 북한군 사체 1구 북한에 인도
- 7.16 녹십자, 남북 합작생산 의약품 첫 반입사실 발표
  - 지난해 9월 북한 조선광명성총회사와 합작을 통해 의약품 생산
- 7.16~21 한국이웃사랑회(회장 이일하) 대표단 방북
  - 텔런트 유인촌씨를 비롯 7명의 대표단 방북, 밀가루·의류·실내화·가방·분유 등 지원
- 7.18 통일부, 하나비즈닷컴의 IT분야 협력사업 승인
  - 하나비즈닷컴의 협력사업은 IT분야 최초의 남북합영사업
- 7.18 임동원 통일부 장관, “남북당국간 회담 기대” 표명(국회 본회의 답변)
  - 당국간 회담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7.19 김대중 대통령,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병행 발전해야 하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이 안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민족통일협의회 임원 다과회)
- 7.20 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는 남북·북미관계가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조(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오찬 간담회)
- 7.20~22 금강산사업실사단 방북
  - 관광공사 조홍규 사장,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 등 총 470여명 참여

## 북한 동향

- 7.16 북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 후 공정한 자세로 나올 경우 북·미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주장(노동신문)
- 7.16 북한, “IAEA의 사찰은 미·북기본합의문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중통)
- 7.17 김일성 90회 생일 준비를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 18~19 함경남도, 양강도, 개성시 지역 군중대회 연이어 개최
- 7.17~2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캄보디아 방문
  - \* 베트남(7.11-14), 라오스(7.14-17) 순차 방문
  - 3국방문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지지·환영」 등 공동코뮤니케 각각 발표
- 7.18 북한, 김동신 국방장관의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문제 관련 발언 비난(중통 논평)
- 7.18 북한, 월포비츠 미 국방부 부장관 상원 발언내용 비난(중방)
  - 7.12 월포비츠 미상원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심의회 발언내용 : “북한은 현재 수백기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보유, 한반도전쟁시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가공할 위협중 하나는 미사일 위협이 될 것임”
- 7.18~19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진행(금강산)
  - 남북노동자통일연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구성 합의
- 7.19 북한, 「조-러 공동선언 채택 1주년 관련 러시아와의 친선협력 및 유대 강화 강조(노동신문)
  - \* 지난해 7.19-20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서 최초로 방북,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쌍방 친선관계 발전을 천명하는 11개항의 공동선언 발표



- 7.20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실험 관련 “자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7.21 중앙통신)
  - \* 미국은 7.14 미사일 요격 실험 실시

## ☞ 주변국 동향

- 7.14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우리는 북한과 접촉(7.13 뉴욕실무접촉)했으며 북한의 응답을 매우 가까운 장래, 수일내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WP 보도)
- 7.16 중국-러시아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 \*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 7.17 체코 및 네팔 국회대표단 방북
- 7.18 국제엠네스티, 북한에 대해 인권환경 개선 관련 유엔인권위원회 조사 협력 촉구
- 7.19 백남순 북한 외무상, 하노이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총회 불참 통보
- 7.19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사 착수
- 7.20 EU 집행위원회 대표단 방북
  - 시머스 길레스피 EU 집행위원회 한국담당관 등 4명의 대표단을 구성, EU의 대북원조 개선방향 등 협의 예정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3호>

2001.7.22~7.28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동향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I)
- 6.15~8.15 남북공동행사 동향(IV)
- ARF,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 채택

### III. 기 타 동 향

- 한적, 금년도 제17차 대북지원계획 통보
- 통일부, 2001년도 상반기 남북교역동향 발표
- 통일부, 「6·15 금강산 렐리」 협력사업 승인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김대중 대통령은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의 예방시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의지가 높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권유하고 △남북·북미관계의 병행발전 및 북한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7.27)
- 통일부는 「통일염원 금강산 자동차 경기대회」의 협력사업을 승인(7.25)하고, 2001년도 상반기 남북교역동향을 발표(7.25)
- 대한적십자사는 금년도 제17차 대북지원계획을 북한에 통보(7.24)하였으며, KEDO는 북한과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에 가서명(7.24), UNC는 판문점 중감위에서 정전협정서명 제4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7.27)

##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은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예고(7.26, 중방)
  - 김정일위원장은 7.26 러시아에 입국, 8.4~8.5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예정
- 김정일 위원장은 방러중 7.26 이타르타스통신 회견시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순수 평화적 성격'의 것이며 △ '평화적 로켓계획의 실현은 북한의 자주적 권리'임을 주장(7.27, 중방 및 평방)
- 북한은 제8차 ARF에 제출한 「안보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북·미간 전쟁상태 종식 △북·미간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포함한 미국의 기존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7.25)

## ◀ 주 변 국 동 향 ▶

- 제8차 ARF는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남북한에 권고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7.25)
- 제24차 ASEAN 10개국 외무장관회의는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설립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모멘텀 지속 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7.24)

## II. 주 요 동 향

### 1.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동향

#### □ 개 요

-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이 7.27-28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 예방 △임동원 통일부장관 면담 △한·미외무장관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짐.
- \*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토퀸 패터슨 백악관 아주담당 보좌관 등 수행

#### □ 주 요 내 용

##### < 김대중 대통령 예방 >

- 김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높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권유하고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병행 발전해야 함”과
  - “미국이 자신감을 갖고 어려운 북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 특히, 지난 북미접촉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음을 설명

< 한미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시 파월 장관 발언 요지 >

-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제네바 기본합의의 개선 이행, 미사일 위협 감소문제, 군사신뢰 구축 문제 및 기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를 바람.
  -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조치가 마련된 것은 없음.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미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임.
  - 북한은 현재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풀기 위해 북미대화 재개를 권유하고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조언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개발문제가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점을 러시아측이 북한에 지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황장엽씨의 방미문제는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임.
- 미사일방어계획(MD)은 과거 군사전략의 틀을 깨는 것으로서 새로운 전략적 틀을 갖는 것은 현명한 일임. 현재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I)

### □ 개 요

-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26 오전 러시아에 입국하여 8.4~5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발표

\* 북한은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은채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공식방문 사실을 예고(7.26, 중방)

### □ 참 고 사 항

- 김정일 위원장은 7.26 08:20 하산역에 도착, 콘스탄틴 푸리코프스키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등의 영접을 받음.

\* 「하산」은 러시아 국경도시로서 블라디보스톡에서 300km 거리

### □ 김정일 위원장의 이타르타스 통신 인터뷰(7.24) 주요내용

\* 북한은 인터뷰 내용 전문을 7.27 중방 및 평방으로 공개

- 우리의 미사일 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누구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평화적인 로켓계획의 실현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임.
-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음.
- 미국의 새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을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 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음.



### 3. 6.15~8.15 남북공동행사 동향(Ⅲ)

#### □ 개 요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북측과 8·15 공동행사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1차 실무접촉을 7.18~19까지 금강산에서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 □ 주 요 내 용

- 1차 실무접촉 참석자
  - 남측 : 김종수 추진본부 위원장,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 등 18명
  - 북측 :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 정금철 민화협 참사 등 8명
- 북측은 올해 8·15 행사는 「평양」에서 열자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안될 경우 단체별로 개별 초청할 것을 언급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서울·평양 동시개최」를 주장
- 쌍방은 남측 내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말~8월초 평양에서 2차 실무접촉을 열어 동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
  - \* 이와관련 쌍방은 FAX 협의를 통해 7.28-31 평양에서 2차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우리측 대표단 출국을 앞둔 7.27 오전 북측의 요청에 따라 7.31로 순연

#### 4. ARF,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 채택

##### □ 개 요

-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7.25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지역 23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한반도 조항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채택

##### □ ARF 의장성명중 한반도 관련조항(요지)

- ARF 외무장관들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점증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을 포함, 최근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토대로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하도록 남북한에 권고했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외무장관들은 이같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EU 의장국 스웨덴 요한 페르손 총리의 최근 남북한 방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였음.
- 지난해 북한이 ARF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ARF 과정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기여로 간주하였음.

## □ 참 고 사 항

- 북한은 이번 ARF 외무장관회의에 당초 참석 예정이던 백남순 외무상 대신 허종 외무성 순회대사를 파견
  - \* 작년에는 백남순 외상이 참석하여 한·미·일 등 9개국 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개최
- 북한은 ARF에 제출한 안보보고서에서
  - “북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결과물”이라고 선전
  - 또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미간 전쟁상태가 종식되어야 함과
  - 북·미간 현안해결을 위해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을 포함, 기존합의를 미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남북한은 ARF 대표접촉(한승수 외교부 장관 - 허종 순회 대사, 7.24 저녁)을 개최

### Ⅲ. 기 타 동 향

#### 1. 한적, 금년도 제17차 대북지원계획 통보

##### □ 개 요

- 대한적십자사는 7.24(화) 11:00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금년도 제17차 대북지원물자 전달계획(문건)을 북측에 통보

##### □ 주 요 내 용

- 한적 총재는 지원물자가 남북적십자간 3차 지원의 추가분으로 2001년도 제17차 지원물량임을 명시

- 문건명의 : 한적총재(수신 : 북적 중앙위원장)

- 대북 통보내용

기증자	품목/수량/금액	지정기탁	예상수송일정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이불·의류 등 17종 1억 5,685만원 상당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7.25~7.27 (인천→남포)

## 2. 통일부, 2001년도 상반기 남북교역동향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7.25 올 상반기 남북교역액이 197,290천 달러로 전년 동기 202,795천 달러 대비 2.7% 감소했으며, 위탁가공교역 역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올 1/4분기 인천·남포항간 정기선 운항 차질 및 상업적 매매가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아울러 전반적 국내경기의 위축도 남북교역 감소에 그 원인을 제공

### □ 주 요 내 용

#### <교역 전반>

- 반입액은 63,266천 달러로 전년동기 64,487천 달러 대비 1.9% 감소
  -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
- 반출액은 134,024천 달러로 전년동기 138,308천 달러 대비 3.1% 감소
  -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

#### <위탁가공교역>

- 위탁가공교역은 45,152천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
  - 이중 반입은 23,496천 달러, 반출은 21,658천 달러
- 동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 197,290천 달러의 5.2%, 거래성 교역액 89,636천 달러의 50.4%를 차지

### 3. 통일부, 「6·15 금강산 랠리」 협력사업 승인

#### □ 개 요

- 통일부는 7.25 (주)우인방커뮤니케이션의 「통일염원 6·15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기대회」의 협력사업신청을 승인
- 동 사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되는 것으로서 북측은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 사업 파트너

#### □ 사 업 내 용

##### <경기 일자 · 구간 · 코스>

- 전체경기는 7.27-31까지, 이중 금강산 랠리는 7.29-31간 진행
- 경기구간은 총145km로 국내 95km, 금강산 50km
- 경기코스는 창원에서 출발하는 국내코스과 금강산 코스로 구성, 금강산 코스는 관광코스를 벗어난 순학리·봉화리 등 비포장 생활도로

##### <참가 인원·차량·사업대가>

- 참가인원은 선수·진행요원·기자 등 총214명이며, 이중 참가 선수는 국내선수 19명을 포함 총 72명
- 차량의 경우 경기차량·서비스차량·진행차량 등 총 40대 참가
- 동 사업대가 지불액은 총100만 달러(현금·현물 각각 50만 달러)
- 현물은 중형승용차 4대, 랠리용 경주차 2대, 타이어 3,000본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7.22 임동원 통일부 장관, “지난 3월 이후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당국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풀리면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대한상의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연)
- 7.22 외교부, 「2000년도 외교백서」 발간
  - 북한은 지난해 제네바 기본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확산 관련 의무조항을 계속 이행했다고 평가
- 7.25 통일부, 올 상반기 남북교역액 발표
  - \* 올 상반기(1-6월) 남북교역액은 197,290천 달러로 전년동기 202,795천 달러 대비 2.7% 감소, 위탁가공교역 역시 45,152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
- 7.25 통일부, (주)우인방커뮤니케이션의 「통일염원 6·15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기대회」 협력사업 신청을 승인
- 7.27 ‘통일염원 6.15 자동차질주경기대회’ 개막
- 7.27~28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 ☞ 북한 동향

- 7.22 북한, 월포비츠 미 국방부 부장관 상원 청문회 발언내용 비난(노동신문)
  - \* 월포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7.12 미상원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심의회 발언내용: “북한은 현재 수백기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보유, 한반도전쟁시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가공할 위협중 하나는 미사일 위협이 될 것임”
  - \* 7.18, 23 상기와 같은 논조로 보도(중방)

- 7.23 북한 인민보안성·철도성, 김일성 90회 생일(2002.4.15)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쉼기대회 개최
  - \* 7.17 평양시 군중대회, 7.18-19 평남·함남·양강·개성시 군중대회, 7.20-21 평북·황북·자강·강원 군중대회
- 7.24~27 북한 허종 순회대사, 제8차 ARF(베트남 하노이) 외무장관 회의 참석
- 7.24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요격 미사일 기술개발 추진 발언(7.16) 관련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노동신문 논평)
- 7.24 북한, “정치와 사상분야에서 이미 강성대국의 위치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총대 중시사상’과 ‘선군노선’에 따라 군대가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중방)
- 7.24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한반도가 평화상태로 전환되려면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7.25 중방 보도)
- 7.25 북한,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관 7.19 일본외신기자 클럽 발언 관련 “강도적 논리”이며 “북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평방)
  - \* 블레어 사령관 발언내용 : “아시아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소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며 앞으로 미국은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방위에 계속 역점을 둘 것임”
- 7.25 허종 순회대사, “중단된 북·미협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백남순 외무상을 대신해 ARF에 참석)
  - \* 이에대해 풀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협의 재개의 선결조건이 있어서는 안되고 광범위한 의제들이 다뤄져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 어디서라도 대화 재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
- 7.27 허종 순회대사, 북한-EU간 외교관계 수립관련 공동보도문 발표(하노이 대우호텔)
  - \* 북한은 지난 5.16 외무성 대변인이 중통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EU와의 수교 결정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 주변국 동향

- 7.2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과 대북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품질 보장(Quality Assurance) 및 보증(Warranties) 의정서에 가서명(뉴욕)
- 7.25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내정자, “미국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비무장 지대 주변에 배치된 북한 군사력의 철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경우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
- 7.26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명시한 핵비확산협정(NPT)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때까지 대북경수로 건설계획은 중단될 것”이라고 발언(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 7.26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과 대화재개 준비완료” 언급  
(ARF 기간중 동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였음을 기자회견에서 밝힘.)
  -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북한이 원하는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것을 제안했음.”
- 7.26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정례브리핑)
  - \* ARF 북한대표단의 “미국과의 평등한 대화 요구”에 대한 논평
- 7.27 ‘에드워드 동’ 미 국무부 한국과장,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방한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머지않아 북측의 손짓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연합뉴스 인터뷰)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4호>

2001.7.29~8.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II)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동향(V)

### III. 기 타 동 향

- 2001년도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물동량 동향
- 철원군, 지자체 최초로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 합의
- FAO/WFP, 2001년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 UN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의동향(종합)
- 판문점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통일부는 2001년도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물동량 동향을 발표(8.1)하는 한편, 금년도 대북 보건·의료지원 규모가 작년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8.2)
- 철원군은 지자체 최초로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7.28)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관계자 일행 방북(7.31)
- 서울행정법원은 한나라당의원 10명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8.1)

### ◀ 북 한 동 향 ▶

- 김정일 위원장은 8.3 모스크바에 도착, 8.4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친선관계 발전에 합의
  - 쌍방은 8개항의 「모스크바선언(북-러공동선언)」 발표
- 북한은 일본수상의 8.15야스쿠니신사 참배계획에 대해 비난(7.31,중방),북한 역사학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7.31)

### ◀ 주변국 동향 ▶

- FAO/WFP 곡물작황평가단은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예상되는 북한의 최종 식량부족량은 56만4천 톤으로 추정된다고 발표(7.27), UN인권이사회는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발표(7.27)
-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개관(7.30) 및 디디에 세르피셀 국제적십자연맹(IFRC) 사무총장, 평양상주 IFRC요원의 활동현황 점검을 위해 방북(7.31)후 방한(8.4)

## II. 주 요 동 향

###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동향(II)

#### □ 개 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 입국 9일째인 8.3 모스크바에 도착, 8.4 오전 11시(한국시간 4일 오후 4시)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

\* 정상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춘 총참모장, 연형묵 국방위원회 위원, 김국태 노동당 중앙위 비서, 조창덕 내각 부총리, 정하철 당 선전선동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김용삼 철도상, 이광호 과학원장, 박의춘 러시아주재 대사 등이 배석

#### □ 북-러 모스크바선언 요지

- 쌍방은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준수,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에 반대(제1항)
- 쌍방은 1972년 체결된 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 감축의 기초가 된다는 데 유의. 북한은 미사일계획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했고 러측은 이러한 입장을 환영(제2항)
- 북·러 공동선언(2000.7.19)과 신조약(2000.2.9)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친선관계 확대발전에 합의(제3항)
-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제분야의 쌍무적 협조발전의 방향과 조치에 합의. 일련의 해당 협정들의 체결에 만족(제4항)

- 쌍방은 공동건설된 기업소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재건계획을 우선 실현시키기로 약속. 이를 위해 러시아는 외부 재정원천 인입방법을 이용하는 의향을 확인(제5항)
- 한반도·러시아·유럽 연결 철도수송로 창설계획 실현 노력 약속 및 북·러간 철도 연결사업의 본격실현 단계 진입을 선포(제6항)
-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통일문제의 자주적·평화적 해결 및 외부방해 불허용, 러시아는 향후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책임적 역할 수행 용의를 확인(제7항)
- 북한은 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설명. 러시아는 이에대해 이해 표명 및 북한과 미·일 등과의 회담에서 성과 도출을 기대(제8항)

## 2. 6.15~8.15 남북공동행사관련 동향(IV)

### □ 개 요

- 남측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북측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와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관련 제2차 실무접촉을 갖기 위해 북경을 경유(7.30) 평양 향발(7.31 11:00)

### □ 주 요 내 용

#### ○ 제2차 실무접촉 남측 참석자

- 김종수 추진본부 위원장, 7대종단 2인, 민화협 2인, 통일연대 2인, 청년 및 여성대표 각 1인 등 총 9명

\* 지난 제1차 대표단은 총 18명으로 구성(청년대표 4인, 여성대표 3인, 실무자 4인 포함)

#### ○ 이동 일정

- 7.30(월) 서울 → 북경
- 7.31(화) 북경 → 평양
- 8.4 (토) 평양 → 북경 → 서울

\* 당초 7.28~31 평양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7.27)

※ 제1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서울·평양 동시 개최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은 평양 개최 입장을 고수



### Ⅲ. 기 타 동 향

#### 1. 2001년도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물동량 동향

##### □ 개 요

- 통일부는 8.1 상반기중 남북한간 선박운항이 편도기준 982회로 전년동기 1,009회에 비해 2.7% 감소한 반면, 해상 물동량은 593,799톤으로 전년동기 393,476톤에 비해 50.9% 증가했다고 발표
- 운항횟수 감소는 인천·남포항간 및 금광산 관광 등의 운항 차질에, 물동량 증가는 대북지원 및 농산물·기계류 등의 반입 증가에 기인

##### □ 주 요 내 용

###### <운항횟수>

- 남한→북한 운항은 묵호 146회 등 총 466회
  - 동해(97회), 인천(70회), 부산(53회), 속초(48회) 등
- 북한→남한 운항은 장전 160회 등 총 516회
  - 흥남(113회), 해주(68회), 남포(47회), 나진(44회) 등

###### <물동량>

- 남한→북한 물동량은 동해 196,597톤 등 총 495,701톤
  - 주요 반출품은 농산물(과채류)·비료·요업제품·유류제품 등
- 북한→남한 물동량은 나진 64,411톤 등 총 98,098톤
  - 주요 반입품은 채유용농산물·수산물·철강금속제품·광산물 등

## 2. 철원군, 지자체 최초로 북한과 교류협력사업 합의

### □ 개 요

- 철원군은 7.30 철원군수 등 9명의 남북교류협력팀이 북한 방문일정(7.21~28)을 마치고 귀환, 방북결과를 보고
- 동 방문기간 중 북측 초청자인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본회의(2회) 및 실무회의(4회)를 개최, 농업교류협력사업에 합의

### □ 주 요 내 용

#### <농업교류협력사업 합의>

- 북측 철원군·금화군·평강군 등에 벼재배 시범포 및 벼재배 실험농장을 남측 영농 방식으로 운영키로 합의
- 남측은 농자재·농기계 등을, 북측은 인력·농지를 지원키로 함

#### <문화교류협력 및 기타>

- 고려 건국배경에 관한 학술회의는 북측이 추진
- 경원선·금강산선 조기복원을 중앙에 건의
- 봉래호 용수지원 관련 문제는 (북측이) 검토
- 상호 직접연락망을 구축, 실무협의회 계속 추진

### 3. FAO/WFP 2001년 북한 곡물작황 평가보고서 발표

#### □ 개 요

- FAO/WFP 곡물작황평가단이 평양,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등을 방문('01.6.23~7.3), 현 양곡회계년도('00.11~'01.10)의 식량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금년 주요작물 및 옥수수, 감자 등의 수확전망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합동 곡물작황평가보고서 발표('01.7.27)

#### □ 주 요 내 용

- 최근 수년 내에 가장 심각했던 가뭄이 100일 이상 지속되어 농업용수 부족, 저수지 고갈, 관개시설 마비 등 결과 초래
  - 경작지의 10% 상당이 손상, 작년 발표한 금년 예상수확량 수정
  - 6~10월 사이 식량상황 악화로 최근 수년간 계속된 식량난 가중
- 낙후된 농업기반과 기계설비, 비료부족으로 중·단기적인 농업 전망이 좋지 않은 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사회의 원조가 필수적
- 금년 예상수확량('00.10 기준 전망) 292만톤 → 257만톤(12% 감소) 추정
  - 금년 봄가뭄으로 인해 주요 봄작물인 밀·보리와 감자의 수확량 감소 예상이 주원인
  - \* 밀·보리 : 평균 수확량 2톤/ha → 금년 0.85톤/ha
  - 감자 : 평균 수확량 10톤/ha → 금년 3.77톤/ha

- 벼, 옥수수, 감자 등 주요작물 현황(가을 수확예정)
  - 옥수수의 45%가 가뭄으로 발육상태 불량, 벼농사는 비료, 연료, 전기공급 개선으로 전반적 양호
  - 금년 쌀 수확량은 북한의 연중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7~8월의 강수량 등 기후조건이 좌우
    - \* 예상 수확량(만톤) : <쌀> 당초 109.8 → 평가결과 109.8,  
 <옥수수> 104.1 → 104.1, <감자> 47 → 29,  
 <밀·보리> 24.6 → 7.9, <기타작물> 6.5 → 6.5
- 예상 수요량 476.9만톤은 식량용 387.1만톤, 사료용 30만톤, 기타 종자 등의 용도 59.8만톤으로 구성
  - 식량용 387.1만톤은 북한인구 2,318만명 대상, 1인당 연간 쌀 100kg, 옥수수 67kg 공급 기준(1인당 1일 1,600kcal 섭취, 1일 최소요구 섭취량 2,130kcal의 75% 수준)
- 금년 10월까지 예상되는 식량부족분은 219.6만톤
  - 식량부족분 219.6만톤에서 이미 확보된 식량수입 10만톤, 차관수입 53.6만톤, 인도적 지원분 99.6만톤을 제외하면, 최종 식량부족량은 56.4만톤으로 추정(2001.10월 기준)
- 현 양곡기간중(2000.11~2001.10) 82.8만톤의 식량을 1,500만명에게 배급
  - 1인당 1일 배급량은 215g(작년 동기 배급량 200g), 지난해 대량의 국제사회 지원 등으로 배급량 증가
  - 7~9월에는 1인당 150g의 감량배급이 불가피
- 공공배급이 아닌 도시-농촌간, 공장-농장간, 지역간 직접교환, 농민시장 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

#### 4. UN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심의 동향(종합)

##### □ 개 요

- UN인권이사회는 7.19~20 북한이 16년만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
  - 7.19 회의에서 ①북측 기조연설 ②서면질의에 대한 북측대표 답변 ③위원 구두질의 진행
  - 7.20 회의에서 위원 구두질의에 답변 및 보충질의
- 7.27 UN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관련 「권고사항」 발표
- ※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지칭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 □ UN인권위의 대북 권고사항 주요내용

- 인권제도 및 실태
  -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보장(최고인민회의의 최종 법률 해석권)
  - 국내법과 B규약간 충돌규정을 3차 보고서 포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검토
  - 국제인권단체 및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시, 정기적 접근 허용 및 필수적 정보에 관한 접근성 보장

## ○ 신체의 자유

- 사형제도와 관련된 형법조항을 일치시키고, 공개처형 금지
- 협약 제15조(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적용 금지)와 양립할 수 없는 형법 제10조 폐지
- 부당한 처우·고문·가혹행위 등 법률 집행자의 권한남용 방지
- 교화소, 기타 구금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시찰 허용을 강력히 권고
- 강제노동 개연성이 있는 노동법 개정
- 재판전 구금자의 숫자와 기간 및 구금사유 현황 등 제출

## ○ 여행의 자유

- 국내여행증명서 발급제도 폐지 검토
- 북한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행허가 및 출국비자 발급제도 폐지 및 제한
- 외국인 추방 관련 내용 입법 명문화

## ○ 종교의 자유

- 종교신자와 시설, 신앙보장 조치에 관한 최신자료 제출

## ○ 언론·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 특정간행물 금지 사유 명시 및 일반국민의 외국신문 구독 금지 조치 중지
- 기자들의 해외여행제한을 완화 및 국가안보의 위협 개념 악용 소지 차단
- 공공집회의 요건에 관한 추가자료 제공

## ○ 여성 인권

- 여성인신매매와 관련된 추가조사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공공분야의 여성참여 신장조치 및 통계자료 제출

## □ 참고사항 (UN인권이사회 참석, 북측대표단 동향)

- 북측 대표단은 회의 10일전인 7.9 제네바에 도착, 위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갖는 등 외교활동 전개
- 북측 대표단장의 연설 요지
  - 지난 '83년 1차 보고서 심의시 제기된 문제 보고
    - \* ①국제법 효력인정(「조약법」 '98.12) ②형법개정 ③가정과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④참정권 보장(「선거법」) 등
  - 「6.15 공동선언」의 의미 강조 및 협조당부
  - 향후 국제협약 존중, 국제기구와의 협력 약속
- 주요 쟁점사항
  - 국제법의 효력문제
  - 생명권 등 인권상황(사형제도와 시민·정치적 권리관련 현황)
  - 강제송환 탈북자 등 문제(송환된 자는 7명이 아닌 6명으로 주장)
  - 기타 정치범 수용소 존재, 이순옥 고문사례, 분배투명성 문제 등
- 평가
  - 북한측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회의과정 전반에 걸쳐 협조적·적극적 자세 표출
  - \* 향후 북한내 NGO활동보장 등 관련자료와 금년 9~10월경 여성차별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을 약속
  - 사형제도를 거론하면서, 정치범의 존재를 간접 시인

## 5. 판문점 동향

### □ 중감위 스위스 대표단, 건국 7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단은 8. 1(수) 12:00 판문점 중감위 대표단 캠프에서 스위스 건국 7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 행사에는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및 주한 대사관 관계자, 유엔사 및 군정위관계자 등 240명이 참석
  
- 스위스 대표단 에베코 수석대표는 치사를 통해 한국인 조각가(임옥상 화백)가 제작한 조형물 「엘자」(스위스 상징동물 「암소」)가 판문점 중감위캠프에 설치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스위스와 한국인의 유대를 위해 매우 뜻깊은 일임”을 강조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7.29 임동원 통일부장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필요성 강조 ('이산가족 재회와 남북 화해협력을 촉구하는 대회' 축사)
- 7.30 철원군, 철원군수 등 9명의 남북교류협력팀이 북한방문일정(7.21-28)을 마치고 귀환, 방북결과를 보고
  - 북측 철원군, 금화군, 평강군 등지에 버 재배시험농장 운영 등 농업교류 합의사실 발표
- 7.31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 9명 방북
  - 7.31~8.4 북측 준비위원회와 8.15 공동행사 개최관련 실무협의 추진
- 7.31 통일부, 김정일 위원장 9월 답방 약속설 부인
- 7.31 외교통상부, 한·미 외무장관회담(7.27, 서울) 주요 협의내용 발표
- 8.1 서울 행정법원,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승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
- 8.1 통일부, 2001년도 상반기 남북선박운항·물동량 동향 발표
  - \* 올 상반기(1-6월)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반면, 물동량은 50.9% 증가
- 8.2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미국에 대북특사 파견 제안(미 상하양원 외교·군사·통상 관련 전문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워싱턴)

- “미국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 8.2 현대아산, 7월중 금강산 관광인원을 총 2,911명으로 발표
  - \* 이중 상업운항 개시를 위한 운영시스템 점검차 금강산을 다녀온 현대아산 임직원 등을 제외한 순수 금강산관광객수는 1,678명
- 8.2 통일부, 올해 대북 보건·의료지원 규모가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지난해 1천380만달러 지원, 올 상반기중 840만달러 지원)
- 8.3 국가정보원, 2001년 7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09명으로서, 지난해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312명 규모에 근접한다고 발표
- 8.4 국제적십자연맹(IFRC) 디디에 셰르피텔 사무총장 방한

## ☞ 북한 동향

- 7.3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 의사당에서 기네 대통령 특사 ‘장 뵐 샤르’ 농업 및 축산상과 담화
- 7.30 「조국전선」 중앙위 대표단, 라오스·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 7.30 「김정일 위원장의 7.24 이타르 타스 통신사와의 회견」에 대한 외무성과 대외 문화연락위원회 소속원들의 반향 보도(중방)
- 7.31 일본수상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비난(중방)
- 7.31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위협설’ 비난(평방)
- 7.31 북한 역사학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 8.1 일본 외상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를 북한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관계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비난

- 8.1 김일성 노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자' 발표 1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8.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비난(평방)
  - 「조선역사학회」의 글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를 보도
- 8.3 평방, 남한에서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탄압중지' 촉구
- 8.3 김정일위원장, 모스크바 도착
- 8.4 김정일위원장,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 주변국 동향

- 7.29 FAO·WFP, 을 북한의 식량상황에 관한 조사실시(6.23-7.3) 결과 발표
  - \* 을 10월까지 북한은 476만9천톤의 식량이 필요하나 북한의 식량조달 능력은 423만3천톤으로 추정
- 7.30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개관
- 7.30 국경없는 의사회(MSF), 북한은 기아사태가 '자연재해'의 결과인 점을 부각하기 위해 홍수 피해과장을 위한 공사 실시(프랑스 일간지 회견)
- 7.31 '디디에 세르피텔' 국제적십자 연맹 사무총장 평양 도착
- 7.3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연구개발소위원회, 내년도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 예산 81억달러 통과
- 8.2 셸리그 해리슨 센추리 재단 연구원, 북·미 대화 재개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을 위한 미국의 약속 이행 필요성 지적(뉴욕타임스 기고)

- 8.3 러시아 소리방송, 김정일 위원장 금년말 서울 방문 가능성 보도
- 8.3 제네바 주재 유럽유엔본부 출입기자단(ACANU), ACANU는 북한외교관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이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에게 발송
  - \* ACANU는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 서기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7.27 북한보고서 심의결과와 권고사항 발표)에 참석해 기자 동향파악, 일부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5호>

2001.8.5~8.1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한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 성명 발표
-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동향(VI)

### III. 기 타 동 향

-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동향(종합)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간소화조치 발표
- 북한,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성명 발표
- UNC, 북한군 이승훈 하사 송환
- 日朝協會,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출연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韓赤 서영훈 총재는 8.10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71.8.12) 성명을 통해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조속한 시일내 90세이상 고령이산 가족 1,800 여명에 대한 상봉 및 생사확인의 우선적 실시를 제의
-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8.4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 제8항)이 △근본적 변화인지 대미협상용인지 그 진위를 지켜보아야 하며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통일후에도 한반도 평화 및 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8.7)
- 통일부는 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시 현행 구비서류의 대폭 간소화 조치를 8.13부터 시행한다고 발표(8.8), UNC는 지난 8.4 강원도 김화군 남대천에서 표류중 구조된 북한군 이승훈 하사를 북한측에 송환(8.7)

## ◀ 북 한 동 향 ▶

- 아·태평화위는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관광대가를 군사적 목적(미사일 개발)에 이용한다고 국제여론을 오도,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광특구 지정시한(8.8) 지연」 등 사업부진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8.8 대변인 성명)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및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최근 미국의 대화재개 제의 및 북미관계개선과 관련, △미측의 3개 협상 의제(핵·미사일·재래식무기 감축) 철회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8.8)
-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는 △남측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평양 개최 8.15행사 장소변경 요청(8.9)을 거부, △장소변경 불가 및 남측 단체 개별 초청 의사 통보(8.10)

## ◀ 주변국 동향 ▶

- 미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8.4) 제8항에 명기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 이는 △한·미 양국간 협의사항이며 △외국정부의 견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강조(8.7)
  -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8.7~8.8간 워싱턴에서 「MD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 전략핵무기 감축과 MD체제 연계문제 논의
- IFRC 디디에 세르피텔 사무총장은 7.31~8.4간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장재언 부적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8.4~8.6간 방한하여 임동원 통일부장관·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서영훈 한적 총재 등을 예방(8.6)
- 일본 공산당 계열의 日朝協會 오사카연합회는 경의선 복원 공사를 위해 자체모금한 276만엔(한화 2,860만원)중 절반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기탁하고, 나머지 절반(138만엔)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출연(8.8)



## II. 주 요 동 향

### 1. 한적,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 성명 발표

#### □ 개 요

-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71.8.12 제의)을 기념하여 8.10(금) 오전, 총재 명의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총재 성명문을 북측에 전달

#### □ 주 요 내 용

- 일시 및 형식
  - 2001.8.10(금) 09:30, 한적 총재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 동시에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적」 장재언 위원장에게 전통문으로 전달
- 성명문 요지
  -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협의·확정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 9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1천8백여명의 재북가족 상봉 또는 생사 여부 확인의 조속한 시일내 우선적 실시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대화 재개에 쌍방 적십자인이 노력
- 기타사항
  - 한적 총재는 성명문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번 추석때 기존 상봉자·생사확인자·서신교환자(약 600명)들에 대해 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계획중”임을 언급

## 2. 6.15~8.15 남북공동행사 관련동향(V)

### □ 개 요

- 남측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북측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와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관련 제2차 실무접촉 개최(8.1~3, 평양)
  - 우리측은 김종수(상임위원장) 등 대표 9명, 북측은 허혁필(민화협 부위원장) 등 대표 9명 참석
  - 2차례 실무접촉과 개별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 채택

#### <공동보도문 주요내용>

-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진행하는 '2001년 민족통일대추전'에 남과 북, 해외대표단이 참가
- 쌍방은 실무적 문제협의 및 성과 있는 진행을 위해 공동 노력

※ 3차 실무접촉은 하지 않고, 구체적 사항은 Fax로 협의

### □ 주 요 내 용

- 북측은 우리측이 「평양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고수
  - 우리측은 평양 행사는 참가하되, 「조국통일3대현장기념탑」 앞에서의 행사 개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제시, 이에 대해 북측은 동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를 주장
- 행사기간은 8.14~21로 합의, 본행사는 8.15~16 양일간 개최하고, 나머지 기간은 백두산, 묘향산 등 답사

- 8.15 오전 개막식, 오후 부문별(청년학생, 여성계, 노동계 등) 모임, 8.16 오전 일본 교과서 왜곡 사진전시회 참관, 오후 폐막식
- 개막공연은 우리측 20분, 북측 40분으로 하고, 개막식·폐막식 등에서 남북 및 해외대표 각 1인 연설
- 행사규모는 기자단을 제외하고 약 300여명 선으로 합의
  - 기자단은 약 20여명으로 하되, 구성은 우리측이 결정토록 일임
  - 북측은 별도로 해외동포 200명 초청 예정(한국 국적 소지자 30명 포함)
- 우리측이 판문점을 경유한 육로이동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전세기 희망
- 기타사항
  - 행사기간중 통신수단은 남북 「민화협」간 연결창구인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경유 연락망을 이용하기로 합의
  - 북측은 우리측 방송 편의를 위해 위성장비(SNG)를 이용한 방송 송출도 허용할 것임을 언급

### Ⅲ. 기 타 동 향

#### 1.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동향(종합)

##### □ 개 요

- 국제적십자연맹(IFRC) 디디에 세르피텔 사무총장이 7.31~8.4간 북한을 방문하고, 8.4~8.6간 방한하여, 통일부·외교부장관 예방 및 한적 총재를 면담하고 방북결과를 설명(8.6)
  - 동인은 동북아 5개국 적십자사와의 교류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몽골, 중국, 북한, 일본 등을 차례로 순방
  - 방북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수현 외무성 부상, 장재언 북적 위원장, 백용호 북적 서기장 등을 면담하고, 개성과 판문점 및 평남지역 방문
- \* 몽골(7.21~25), 중국(7.25~31), 북한(7.31~8.4), 한국(8.4~8.6), 일본(8.6~9)을 각각 방문, '99.10 취임후 방북은 이번이 처음

##### □ 주 요 내 용

- 북한 방문시 세르피텔 사무총장이 남북적십자간 직접대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 북한 당국자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상황이 복잡하다.”고 답변(북미관계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라는 느낌)
- 최근 북한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었으며, 가뭄으로 쌀 작황에도 영향

- 북측 인사는 “비가 많이 와서 개성 근처 건물이 무너져 4명이 부상했다.”고 언급
  - \*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은 북한 홍수피해관련 보고서에서 이번 홍수피해로 지난 7.27 FAO와 WFP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북한의 금년 곡물생산량 전망치 257만t(당초보다 12% 감소)보다 감소한 250만t(당초보다 14.4% 감소)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
- IFRC는 대북 보건의료부문 지원과 관련
  - 2000년에는 1,180만 스위스프랑 상당 지원했으며, 금년 12월에 2002년과 2003년 지원계획을 세울 예정
- WFP, UNICEF 등에서는 올해 10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

## 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간소화조치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8.8 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시 현행 구비서류 (경제협력자금 18종, 반출입자금 21종)를 대폭 간소화 (경협11종, 반출입 12종)하여, 8.13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발표
  - 동 조치로 남북경협 및 교역을 위한 남북기금대출신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 주 요 내 용

- 대출 신청기업이 기존에 통일부 앞으로 제출하였거나, 통일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징구 생략(2종)
  - 대북 거래 실적 확인 자료
  - 사업 타당성 보고서
- 대출 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기재 내용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징구 생략(3종)
  - 지급 보증서 발급 협약서
  - 담보 제공 예정 증명서
  - 반입 물품 판매 계약서
- 기업의 제출자료 없이도 사실확인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징구 생략(4종)
  - 사업자 등록증(사본)
  - 무역업 등록증(사본)
  - 중소기업 확인 서류, 인감·명판 신고서

### 3.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성명 발표

#### □ 상 황

- 북한은 8월 8일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부진상태에 몰아넣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는 등 미국을 비난하는 「아·태 대변인」 성명 발표

#### □ 주 요 내 용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서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은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었음.
- 관광대가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오도하였고, 관광대가를 미사일개발에 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니아를 벌였음.
- 제반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진척시켜 나가는데 기본장애라는 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 주고 있음.
-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 관광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하여 나선다면 그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 평 가

- 금번 북한의 「아·태 대변인」 성명은 시기적으로 금강산 관광 특구 지정 관련 현대-아태간 합의서(6.8)의 약속시한(8.8)에 맞추어져 발표된 것이 특징
  - 북측은 지난 6.8 현대측과의 합의를 통해 2개월내 금강산 관광특구지정 관련법안을 공표키로 약속
  
-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관광특구 지정시한 지연 책임 등을 미국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와함께 주한미군 철수문제 제기(8.4 북·러 모스크바 선언),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7.24 외무성 대변인) 등 최근 북미 대화 재개관련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대미 및 대남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



## 4. UNC, 북한군 이승훈 하사 송환

### □ 개 요

- 유엔사는 8.4 강원도 김화군 군동리 남대천(南大川)상류에서 표류, 구조된 북한군 이승훈하사(28세)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송환(8.7)

### □ 주 요 내 용

- 8.4 북측, 판문점 공동일직장교(JDO)간 직통전화를 통해 유엔사에 표류병사 송환을 요청하는 전화통지문 발송
  - \* 이후 8. 5(일) 21:40까지 유엔사-북측간 5차례의 전화통지문을 주고 받은 끝에 8. 6(월) 10:00 쌍방 실무장교 접촉을 개최기로 합의
- 8.6 유엔사, 북측과 실무장교접촉을 개최 및 이승훈하사 송환 문제 합의
- 8.7 신병 인도인수(인도장소 : 판문점) 및 군정위회의실에서 인도인수증서 교환

### □ 참 고 사 항

- 금번 이승훈하사 송환으로 정전 이후 판문점에서의 「생존 북한군인 송환」은 '97. 9.10 조강건 하사('97. 8.25 강화도 해역에서 조난·구조) 송환을 비롯 모두 5차례 이루어짐.(송환인원 합계 : 총 6명)

## 5. 日朝協會,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출연

### □ 개 요

- 일본 공산당 계열의 日朝協會 오사카연합회는 1.1-3.31까지 일본 공산당 지부 등 단체 및 개인 1,0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2,762,470중 절반인 ₩1,381,235을 8.8 민단 서울사무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출연

- 동 모금액중 나머지 절반은 북측에 전달해 주도록 「총련」에 기탁

###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출연 현황

- 금년(7.1 현재) 민간분야 기금 출연액은 7건 총 922,092,030원

- 총 출연액('91-'01.7.1 현재)은 33건 총 20억933만9,930원

### 〈2001년 민간의 기금출연 현황〉

년도	출연자	금액(원)	일자	비 고
2001 (7건)	서울방송 동아일보	500,000,000	1.18	경의선 철도 복원 침목기증 성금
	"	1,111,080	2.1	"
	"	8,550,800	2.6	"
	오효정	100,000,000	3.6	전 태화건설 대표(이산가족)
	서울방송 동아일보	10,000,000	4.2	경의선 철도 복원 침목기증 성금
	민주평통	300,516,150	6.8	6·15남북공동선언 구현 성금
	신림교회 청년부	1,914,000	6.30	통일성금 모금 기탁
	소 계	922,092,030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8.6 대한탁구협회, 코리아오픈탁구대회(9.15~18, 서울)에 북한 선수단 초청 사실 발표
- 8.6 대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녘 청년 운전기자재 지원(대형트럭 2대)사업' 발표
- 8.7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2001 백두대간 햇불기도회 개최(8.15, 평창군) 및 자전거 3,000대 지원계획 발표
- 8.7 유엔사, 북한 이승훈 하사 대북 송환
- 8.7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련 브리핑
- 8.7 (주)엔트랙 등 IT관련 6개 기업 남북협력기업대표단 방북(7.31-8.4), 북측 민경련과 사업 분야별 실무협의 및 합의서 체결 사실 발표
- 8.8 통일부, 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간소화조치 발표
- 8.8 日朝協會 오사카연합회, 경의선 연결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
- 8.8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발원문 채택(8.15 발표 예정)
- 8.9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북측 준비위원회에 평양 개최 8.15행사 「장소변경」 요구
- 8.10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71.8.12) 30주년 관련 성명 발표 및 대북 통지문 발송

### ☞ 북한 동향

- 8.5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흐르니체프 우주센터 및 중앙우주비행조정센터 참관

- 8.6 북한, 제53차 유엔인권소위(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과 일제 식민지배 희생자에 대한 공식사과 및 국가배상 촉구
- 8.8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상봉(중방, 내용 없이 사실만 보도)
- 8.8 북한 「아·태 대변인」,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대미 비난 성명 발표
- 8.10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 남측 추진본부에 평양 개최 8.15행사 장소변경 불가 및 남측 단체 개별초청 의사 통보

## ☞ 주변국 동향

- 8.6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북·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미국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환영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 8.7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북·러간 노동력-채무 상제 부인 성명
- 8.7 미 국방부 대변인,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간 협의 사항임을 강조
- 8.7 미·러 MD 실무 전문가회의 개최(8.7~8, 워싱턴)
  - 전략핵무기 감축과 MD 체제 연계문제 논의
- 8.8 제21회 하계유니버시아드(8.21~9.1, 베이징) 대회조직위, '북한의 참가신청서 제출(8.4) 확인'
  - \* 북한은 지난해 9월 시드니올림픽에 참가 후 올해 폴란드 자코파네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오사카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에 잇따라 불참
- 8.9 카터 전미대통령, 임진각 망배단에서 남북평화통일기원 메시지 채택
- 8.10 「바이든」 미 상원외교위원장 방한(8.10~11)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6호>

2001.8.12~8.2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촉구
- 8·15 통일대축전 관련동향(VII)

### III. 기 타 동 향

- 남북불교도, 6·15 공동선언 실천 동시법회 개최
- TKR-TSR 연결사업 관련 러시아 동향
-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중 대통령은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햇볕정책이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함과 △최근 북미 및 남북대화의 정체상태와 관련, 북미 양측이 대화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8.6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조국통일 기원을 위한 남북불교도 8.15동시법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8.15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동발원문을 발표

## ◀ 북 한 동향 ▶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는 6·15공동선언 적극실천 등 5개항으로 구성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 발표(8.21)
-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8.15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내고, 지난 8.4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토대로 양국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8.15)

## ◀ 주변국 동향 ▶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광복 56주년 관련 「8.15축전」을 전달, 북·러간 다방면적 협조의 적극화 및 전통적 친선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바체슬라브 트루브니코프 러시아 외무성 제1차관은 주러 북한대사관 광복 56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현 남북한간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 노력을 지지(8.15)
- 국제엠네스티는 중국 강택민 주석앞 서한을 통해,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8.14), 유엔인권위원회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사실상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철회와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를 촉구(8.16)

## II. 주 요 동 향

### 1.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촉구

#### □ 개 요

- 김대중 대통령은 8·15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햇볕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과, △최근 남북 및 북미대화의 정체상태와 관련, 남북 및 북미간 대화재개를 위해 미북 양측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

#### □ 8.15 경축사 주요내용

-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임.
- 햇볕정책은 미·일·중·러 등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도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하였음.
- 그러나 지금은 북미대화 중단 등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음.
-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서로 함수관계이며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바, 북·미 양국은 대화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람.



## □ 관련 사항

- 북한과 러시아는 제56주년 광복절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간 축전 및 답전을 교환하고, △지난 8.4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의의와 △이를 토대로 한 양국간 친선협조관계의 다방면적 협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양국간 우의를 과시
- 미국은 8.16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

## 2. 8·15 통일대축전 관련동향(VI)

### □ 개 요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은 8.15~16간 「6.15-8.15 민족통일축진을 위한 북측 준비 위원회」와 평양에서 「8·15 통일대축전」 개최

### □ 주 요 내 용

- ① 방북승인 관련, 통일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참석치 않는 조건으로 승인(8.14)
- ② 대표단 및 방북경로 : 김종수 신부(단장, 추진본부 상임위원장) 등 365명(대표단 311, 기자단 26, 승무원 28), 서해직항로 이용
- ③ 제1일차(8.15) 일정 : 통일대축전 개막식(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 남측 통일연대·민주노총 일부 인사 등 100여명 참석), 만수 대예술극장 및 김영남 주최 양각도 호텔 만찬
- ④ 제2일차(8.16) 일정 : 새 세기 청년들의 통일연대무대(청년문화회관), 일제침략 및 역사왜곡 전시회(인민문화궁전) 등 남북 공동행사 진행
  - \* 「일제만행 및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남, 북, 해외 공동결의문」 채택하고, 부문별·단체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 종교, 경제, 여성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남북민간협력방안 논의
  - \*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접촉을 통해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이행 예정
  - \* 폐막식 행사(21:15~21:27)에 남측 대표단은 불참, 다만 일부 인사만 폐막식 직후 진행된 경축 야회에 참가

⑤ 제3일차(8.17) 일정 : 남북 쌍방 대표접촉( 09:30~11:40, 고려호텔), 평양일원(김일성 생가-동명왕릉-정릉사-3대헌장기념탑-인민대학습당) 관광

\* 남북 양측은 내년 8.15 행사시 북측 대표단의 서울방문 문제를 포함하는 공동보도문을 내는 조건으로 남은 일정을 진행하며, 김정일 위원장 주최 만찬(8.20)을 추진키로 합의

\* 남측 추진본부는 8.17 오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⑥ 제4일차(8.18) 일정 : 백두산 (제1진)및 묘향산(제2진) 등정, 계층별·부문별 모임(노동자·농민·기자·통일연대·예총·여성 등 6개 분야) 개최

⑦ 제5일차(8.19) 일정 : 백두산(제2진) 및 묘향산(제1진) 등정, 계층별·부문별 모임 개최

⑧ 제6일차(8.20) 일정 : 방문단 관광(주체사상탑, 학생소년궁전 등), 유교관계자 단군릉 방문, 계층별·부문별 모임 개최

\* 남측방문단 주최의 만찬거행

⑨ 제7일차(8.21) 일정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 채택후 남측방문단 순안공항 출발, 14:20경 김포공항 도착

<공동보도문 요지>

▲6·15 공동선언의 적극실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과 민족의 안전·평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의 적극 연대 ▲내년 8·15 통일대축전의 서울·평양 동시개최 및 북측대표단의 서울행사 참가 ▲남북, 해외대표들의 민족화해와 대단결 실현 및 각계층의 연대·연합 강화를 위한 민간급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활성화 ▲일제만행 등을 폭로하는 공동행사 강화

\* 남측방문단은 서울 도착후 발표한「도착성명」을 통해 평양체류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 Ⅲ. 기 타 동 향

#### 1. 남북불교도, 6·15 공동선언 실천 동시법회 개최

##### □ 개 요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와 북측 조선 불교도연맹은, 지난 8.6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조국 통일 기원을 위한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개최키로 합의한데 따라 8·15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발원문을 발표

\*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혜초(대고종 총무원장), 정린(협의회 민족공체추진본부장), 효암(진각종 통리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지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등 참석

\*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 행사는 공동발원문 낭독, 민족화합불자선언, 남녘 및 북녘 불자에게 보내는 통일 메시지 낭독, 불교통일기금 모금 등으로 진행

##### □ 주 요 내 용

- 우리 불자와 겨레 모두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는 확고한 이정표임을 절감하고
  -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 나간다면 통일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
- 우리 불자들은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 2. TKR-TSR 연결사업 관련 러시아 동향

### □ 개 요

- 최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첼코 철도차관(8.15)과 「러시아의 소리」 방송(8.17) 등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의 중요성과 △이미 동 사업이 시작 되었음을 강조

### □ 주 요 내 용

- 알렉산드르 첼코 철도 차관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고 언급(8.15, 기자회견)
  - “30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내 TKR를 구성하게 될 960km에 이르는 철도를 재차 점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완료했음”을 언급
- 8.17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연결 사업과 관련하여
  - “조선반도의 전략적 안정문제가 해결되고 워싱턴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의 길로 나간다면, 쌍방이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해서 인방(隣邦)나라와 관계를 수립한다면 철도연결 계획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것임”과
  - “이 철도건설계획을 실현하면 모든 유관국들과의 경제·무역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 3.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

#### □ 개 요

- 경기도는 8.16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을 발표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임창렬 지사를 비롯 지역주민·공무원·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 동 접경지역 계획(안)은 남북한 인적·물적교류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경도시 기능을 갖게 될 「남북교류협력단지 거점」으로 파주·문산·연천·철원을 선정

#### □ 주요 내용(접경지역 계획안)

##### ① 취지 및 기본방향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 기반 등을 조성
-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확보
-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 및 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

## ② 남북교류협력단지

- 「과주남북교류협력단지」는 출입국 심사시설 기능을 갖게 될 경의선 도라산역, 생산기능의 과주첨단산업단지, 물류유통기능의 문산 등으로 구성
  - 동 단지는 개성자유경제지대 사업의 출입국·통관기능을 담당하고, 개성시-개성공단-과주남북협력단지-과주첨단산업단지-서울로 이어지는 남북교류의 루트기능 분담
- 「연천남북교류협력단지」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 강원도 철원과 연천을 한 단위로 묶은 단지로 조성
  - 연천지역은 농업기술교류와 유통시설을 중심으로한 기술·물자·인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고, 철원지역은 물자와 인적교류 관련시설을 구비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8.13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평양 「8·15 통일대축전」 참가 발표
- 8.14 통일부, 남측 추진본부의 「8·15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방북신청 승인 결정 발표
  - 공동행사 개최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와 3대헌장 기념탑 주변에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추진본부측의 입장을 감안
- 8.15 「8·15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남측 대표단 방북(인천공항, 서해 직항로)
- 8.1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조국통일 기원을 위한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및 공동발원문 발표
- 8.15 김대중 대통령,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 발표
- 8.16 3당 대변인, 평양 「8·15 통일대축전」 참가 남측 대표단 일부의 개막식 참석 관련 대변인 논평
  - 민주당, 유감을 표명하며 방북단 귀환후 진상파악 및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 촉구
  - 한나라당, 개막식 참석자들에 대한 처리와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
  - 자민련,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법조치 촉구
- 8.17 「8·15 통일대축전」 참가 남측 추진본부,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 8.21 「8·15 통일대축전」 참가 남측대표단, 김포공항 도착후 「도착성명」 발표



## 북한 동향

- 8.14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준공식(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 개최
- 8.15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 「8·15 통일대축전」 개최
- 8.15 김정일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광복절 축하 전문에 대한 답전
- 8.15 북한 외무성 대표단(단장:궁석웅 부상) 멕시코 방문
- 8.17 김정일위원장, 강택민 중국 총서기 생일 축하 전문 발송
- 8.21 「8.15 통일대축전」참가 남북대표단, 5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주변국 동향

- 8.13 미-중, 미사일 비확산 회담 개최
- 8.13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8.14 국제엠네스티, 중국 강택민 주석 앞 서한 전달 및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8.15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에게 광복절 축하 전문
- 8.16 필립 리커 미국무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 강조
- 8.16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
- 8.18 세계식량계획(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방북(식량분배상황과 가뭄 및 장마피해 현장점검)
- 8.20 미국의외협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7호>

2001.8.22~8.25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방북 동향

### III. 기 타 동 향

- 김정일 위원장 귀환 관련 북한 동향
- 우리측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동향
-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북한 반응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김대중 대통령은 8.24 통일·외교·안보분야 간담회를 통해 △8.15 통일대축전의 남측 대표단 방북과 관련, △소수의 돌출행동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법행위자의 처벌과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합법적인 것은 보호하고 불법적인 것은 처벌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
- 국방부는 8.20-8.31간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군사연습(UFL)과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OSI) 등을 실시

## ◀ 북 한 동 향 ▶

- 외무성 대변인담화(8.22)를 통해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6.15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우리측 군사당국을 비난하고 △미측에 대해서는 대화의 일방적 전제조건 철회 등 북미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
- 중방 및 중앙TV 보도(8.20), 노동신문 사설 및 평방 보도(8.22)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성과에 고무되어 남과 북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진행했다고 주장

## ◀ 주 변 국 동 향 ▶

- 세계식량계획(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은 8.18-8.21간 북한의 식량 수급사정 및 구호물자 분배상황 조사를 위해 방북하고 8.26 방한하였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대북식량지원 방안 협의를 위해 8.25-8.29간 남북한 동시방문
- 미국과 중국은 8.22-8.24 북경에서 「미사일 전문가회담」을 개최, 미국과 러시아는 8.21-8.22 모스크바에서 ABM협정과 관련하여 「미·러 전략 문제 실무회담」을 개최, 독일 농업부는 8.24 금년 9월말 북한에 쇠고기 6000톤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

## II. 주 요 동 향

### 1.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방북 동향

#### □ 개 요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은 북한의 식량수급사정 및 구호물자 분배과정 조사를 위해 8.18~21간 방북 후 8.21 북경에서 기자회견
- \* 방북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백남순 외무상 등과 면담하고 평안남북도 등을 방문, 8.26 방한 및 8.27 기자회견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도 북한 식량난 실태 파악 및 대북 식량지원방안 협의를 위해 8.25-8.29간 남북한 동시방문 예정

#### □ 주 요 내 용

-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총 600만t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나 실제 생산량은 33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로부터 총 120만t을 공급받을 예정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0만t 정도 부족 예상
-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전문가들은 6%의 식량증산이 이뤄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전체 식량생산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
- \* FAO·WFP의 북한 식량사정에 관한 공동보고서(2001.7)는 북한은 가뭄

피해로만 금년도 식량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약 56만 4000톤이 부족한 250여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

○ 북한은 WFP의 구호식량 분배과정에 대한 폭넓은 감시활동을 허용하였으며

- WFP가 대상지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분배과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봄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 현재까지는 북한 당국이 사전에 선정해 둔 곳에 대해서만 식량분배 실태의 점검이 가능

○ 북한은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아져도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식량원조가 필요하며

- 식량구입에 필요한 외화확보를 위해 북한 경제체제의과감한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

### Ⅲ. 기 타 동 향

#### 1. 김정일 위원장 귀환 관련 북한 동향

##### □ 개 요

- 김정일의 방러 귀환(8.18) 이후 「당중앙위·당군사위·국방위원회 공동보도」 형식으로 귀환소식을 보도한 이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방러 성과를 선전

##### □ 주 요 내 용

- 북한은 북·러공동선언 발표(8.4) 이후, 8.18 「당중앙위·당군사위·국방위원회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귀환(8.18) 소식을 최초로 보도
- 이후 8.20 중방 등을 통해 「러시아 연방 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제하로 북·러 정상회담 성과를 집중 선전
  - “회담들에서는 △양국의 정치·경제 등 제분야의 성과와 경험 통보 △북러친선의 공고한 발전문제 △국제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
- 8.22 노동신문 사설 및 평방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새 세기의 북·러친선과 자주위업의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 또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역사적 사변’ 등으로 선전
- \* 8.21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북·러양국은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ABM조약이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의 초석임에 공감하였으며, 독점적 세계지배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엄숙한 경고임”을 주장, 미국의 MD체제 구축과 관련 북·러간 공동대처 입장을 강조



## 2. 우리측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련동향

### □ 개 요

- 통일부는 8.22 △대북 위탁가공기업인 「서전어패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10억원)을 승인하고 △IT산업관련 「엔트랙」이 북측 광명성총회사와 합영으로 추진하는 「고려기술개발제작소」 설립을 남북경협사업으로 승인

\* 통일부는 '99.10 제정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관련규정을 개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

### □ 주 요 내 용

#### ① (주)서전어패럴의 남북경협사업 관련

- 서전어패럴은 '94년부터 대북 의류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한 이래 2000년도엔 교역규모가 700만불로 성장

\* 동사는 '01.4.30 북측 조선봉화총회사와 단체복·케주얼복 등 의류생산을 위해 위탁가공계약 체결

- 협력기금 대출조건은 연리 6%로 대출한도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내, 위탁가공품 반입일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내 대출

## ② (주)엔트랙의 남북경협사업 관련

- 사업주체 및 투자규모 관련, 엔트랙은 북측 광명성총회사와 합영으로 평양에 400만달러 상당의 「고려기술개발제작소」 설립 추진
  - 우리측은 건축에 필요한 자재·설계·시공을, 북측은 제품개발에 필요한 자재·장비 보장
  
- 「고려기술개발제작소」는 연구개발동 8개동, 교육관리동 1개동을 조립식 건축물로 추진
  - 금년 9월말 연구개발동 1개동을 우선 건립, 나머지 8개동은 건물분양 상황에 따라 '02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

### 3.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북한 반응

#### □ 개 요

- 북한은 8.16-18 해군의 동해 해상기동훈련과 8.20-8.31 을지포커스 스텐즈 한미합동군사연습(UFL) 및 연합전시증원연습(RSO)) 등을 6.15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우리측 군사당국과 미국을 비난

#### □ 주 요 내 용

- 8.21 평방 시사논평을 통해서는 8.16-18간 우리측 해군의 동해 해상기동훈련과 관련하여 우리측 군사당국을 비난
  - “이는 남조선 군사당국자들이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정세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 8.22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서는 「을지연습」(8.20-31)을 △ 6.15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측 군사당국을 비난하고 △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 철회」를 주장
  - “침략적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대화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를 어느 때든지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기도를 보다 현대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실증”
  - “실지 북미간 대화를 바란다면 △일방적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것과 함께 △건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남조선 군사당국은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이 6.15 북남공동선언에 배치되며 북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후과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8.22 통일부, (주)엔트랙·북측 광명성총회사간 합영추진 「고려기술개발 제작소」 설립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 8.23 검찰, 8.15 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국가보안법 위법사항 관련 범민련 부의장 등 7명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16명중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수사)
- 8.25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 대북 식량지원방안 협의 관련 방한

### ☞ 북한 동향

- 8.22 외무성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연습 관련 비난성명 발표
- 8.21 평방(시사논평),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연습 및 연합전시증원연습 (ROSI) 비난 보도

### ☞ 주변국 동향

- 8.21 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방북관련 기자회견(북경)
- 8.21 미·러, ABM협정 관련 전략문제 실무회담 개최(8.21-22, 모스크바)
- 8.22 러시아 코메르산트 데일리紙, 북한 식량난 보도
  - 식량난 해소를 위해 최소 600만t의 쌀이 필요하나 국제 구호단체들이 준비한 지원 물량은 120만t에 불과
- 8.22 미·중 미사일 전문가회담 개최(8.22-8.24, 북경)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8호>

2001.8.26~9.3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북한, 남북 당국대화 재개 제의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8.15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

### III. 기 타 동 향

- 2001 평화촌행사조직위, 「2001 평화촌」(PEACE CAMP OF KOREAN DMZ 2001) 행사 추진계획 발표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남북평화정착사업(안)」 제안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7대 종단」 대표는 8.31 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 관련 남측대표단의 방북허용에 대한 국내 정당간 통일부장관 책임여부 논쟁과 관련, △대북화해정책의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음과 △8.15 통일대축전문제는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7대 종단의 책임으로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해 더 이상의 정쟁 중지 등 자제를 촉구
- 2001 평화촌행사 조직위원회(공동의장 : 김종수 신부·황석영 소설가)는 8.27 금년 10월 DMZ내 연인원 2만명이 참석하는 「2001 평화촌 : PEACE CAMP OF KOREAN DMZ 2001」 행사 계획을 발표

## ◀ 북 한 동향 ▶

- 조평통 임동욱 부위원장은 9.2 우리측 임동원 통일부장관앞 방송통지문(9.3 전화통지문 발송)을 통해 남북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
- 민족화해협의회는 8.28 대변인 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 기간중 남북 민간단체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의, 이와관련 8.28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남측 대표단중 「통일연대」 소속 일부 불법행위자의 사법처리 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및 보수계층을 비난

## ◀ 주변국 동향 ▶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8.27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북계획을 공식발표 하였으며, 이와관련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시 서울답방 준비과정 통보 및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8.29)
- UN은 8.28 「아·태 평화군축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및 역내 안보협력방안을 논의(8.28-8.31, 일본 이시키와, 한·미·일·중 등 20개국 참가), UN식량농업기구(FAO)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8.28 대북식량 지원 방안 협의 등을 위해 방북(8.25-8.27 방한)

## II. 주 요 동 향

### 1. 북한, 남북 당국대화 재개 제의

#### □ 개 요

- 북한은 9.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임동욱 명의의 우리측 통일부 임동원장관 앞 대남 방송통지문(평방)을 통해 남북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

\* 북측은 9.3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동 내용의 대남전통문을 발송

#### □ 주 요 내 용

-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은 전반적인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임.
  -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은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커가고 있음.
  -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그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음.
  - 우리측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함.
- \* 통일부는 9.2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의 제의를 환영함과 △앞으로 북측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힘.



## □ 평 가

- 금번 북측 제의는 북·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그간 미·러 등 국제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해 온 점과 함께
  - 지난 84 북·러 정상회담에서 TKR-TSR 연결합의 등으로 북측 내부적으로도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 이와함께,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훼손·후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평가

## 2.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8.15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

### □ 개 요

- 북한은 8.28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의

\* 조평통 대변인 성명(8.28)을 통해서는 8.15 통일대축전 참가 일부 불법행위자의 구속 등과 관련하여, “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의 반통일 책동”이라고 비난

### □ 주 요 내 용

#### 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요지)

-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이 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들의 활동을 범죄시 하는 것은 북남대결을 정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
- 우리는 대축전기간에 진행된 여러 단체들의 상봉과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임.
- 우리는 당면하게 이번 축전기간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제반사항」 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해당단체들 사이의 실무협의를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인정함.

② 조평통 대변인 성명(요지)

-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우익세력들이 사법처리 운운하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의 대결 상태로 몰아가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 책동임.
-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다시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함.
- 남조선 당국은 통일애국 운동에 나선 각계층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통일애국 인사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Ⅲ. 기 타 동 향

#### 1. 2001 평화촌행사조직위, 「평화촌」 (PEACE CAMP OF KOREAN DMZ 2001) 행사 추진계획 발표

##### □ 개 요

- 2001 평화촌 행사 조직위원회(공동의장 : 김종수·황석영)는 금년 10월초 경의선 통과 서부비무장지대 안에서 연인원 2만 여명이 참가하는 「2001 평화촌」 행사 추진계획을 발표(8.27 프레스 센터 내외신 기자회견)

##### □ 주 요 내 용

- 명칭 : 「2001 평화촌 : PEACE CAMP OF KOREAN DMZ 2001」
- 일시 및 장소 : '01.10.6~10.10(5일간), 경의선 통과 서부비무장 지대
- 행사내용

1) 개막제	입촌식 및 남북 합동공연단 축하공연
2) 평화촌	대회기간 전일(5일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1일 존장으로 추대, 입촌민 500명 상주 추진
	행사참여 연인원 2만명 예상

3)세계분쟁지역 작가회담	대회 2일차에서 4일차(3일간)
	노르웨이 주최 '노벨상 100주년 기념 문학제' 참여 작가 등 분쟁지역 작가(10여개국 20명) 초청, 한반도의 평화통일 세미나 개최
4)2001 경 의 선 평화음악회	개막식 및 폐막식 남북합동공연단 음악회 및 평화음악회 공연
5)평화학교 운영	서울 국제평화세미나 개최(종단 및 평화NGO)
6)생태문화학교 운영	환경 NGO, 문화NGO, 사학계 등
7)문화 행사	토론회, 문학작품 발표회(평화,통일,경의선 등 주제)
	DMZ를 주제로 한 무용 공연
	연극 공연
	영화 상영
	미술 및 사진, 조각 전시회 상설
	건축 분야 전시회
	기타 장르 발표회
	평화통일 퍼포먼스
8)폐막제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선언(UN에 제출)
	「한반도 DMZ를 세계평화박물관(PEACEUM)으로 추진위원회」 발족

\* 참고사항 : 동 행사는 지난 8.15 통일대축전에서 북한측이 참여키로 합의, 주최측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장소는 지뢰 미제거지대의 DMZ내라는 점에서 남북당국간 합의가 필요

##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남북평화정착사업(안)」 제안

### □ 개 요

- 제주발전연구원은 8.27 제주도에 제출한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안) 보고서에서 제주도에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6대 사업을 제안

### □ 주 요 내 용

- ① 「평화의 섬」 이미지 부각을 위한 「제주평화포럼」의 정기적 개최
  - 중국과 북한 인사를 초청,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관련 단체를 동 포럼에 참여토록 유도
- ②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행사 개최
  - 한라산과 백두산의 합수제·합토제 등 개최
- ③ 남북한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개방선언」 발표
- ④ 제주도에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⑤ 제주도에 「정상들의 집」 건립
  -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과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한 자취를 기념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
- ⑥ 평화에 관한 연구·교육 및 국제회의 장소 제공 등을 위한 「남북평화센터」 설치·운영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8.27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 중요성 강조(3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부부초청 만찬)
- 8.27 2001 평화촌 행사 조직위원회, DMZ내 「평화촌 행사」 추진계획 발표
- 8.30 유엔사, 북측에 한국전 사망 중국군 유해 송환 관련 실무장교접촉 제의
- 9.2 통일부 대변인, 북측 조평통 부위원장의 남북당국대화 재개 제의 관련 환영논평 발표

### ☞ 북한 동향

- 8.27 중·평방,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방북 계획(9.3-5) 보도
- 8.2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자크 디우프 면담
- 8.28 조평통대변인, 8.15 통일대축전 참가 불법행위자 구속 관련 한나라당 및 일부 보수우익에 대한 비난성명 발표(평방)
- 8.28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8.15 통일대축전 공동합의문 실천을 위한 민간 단체간 실무협의 제의(평방)
- 9.2 조평통 부위원장 임동욱, 통일부 장관 앞 방송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대화 재개 제의

### ☞ 주변국 동향

- 8.27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강택민 국가주석 방북계획 발표
- 8.28 UN 아·태 평화군축회의 개최(8.28-31, 일본 이시카와)
- 8.29 「러시아의 소리」 방송, 북·중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준비과정 통보 보도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19호>

2001.9.2~9.8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남북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합의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개천절 행사 공동개최 제의

### III. 기 타 동 향

- 북·중 정상회담 개최
-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관련 입장 발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우리측은 북측의 남북당국간 회담 재개 제의(9.2)와 관련하여, 9.6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 북측 단장 앞 대북 전통문을 통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9.15-18, 서울)를 제의하였으며, 북측은 이에 동의하였음.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리측 내부의 논쟁과 관련, 9.4 성명을 통해 민족의 화해협력이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통일정책이라는 정부의 현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발표

## ◀ 북 한 동 향 ▶

- 김정일 위원장과 방북(9.3-9.5)한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간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
  - 양국은 중국의 대북 식량 20만톤 및 디젤유 3만톤 무상지원과 쌍방간 당·국가차원의 친선유대관계의 강화 및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 등에 합의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9.7 금년도 개천절행사의 공동개최 및 독도 영유권 관련 남북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9.7, 평방)

## ◀ 주변국 동향 ▶

- 한·미·일 3국은 9.5-9.6 일본 동경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를 개최하고, 중국 강택민 주석 방북 이후 남북한 및 북미 관계개선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프리처드 미 국무부 한반도담담장특사는 9.8-9.11 북미 대화의 정체상태 타개방안 등의 협의를 위해 방한

## II. 주 요 동 향

### 1. 남북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합의

#### □ 개 요

- 남북한은 9.6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9.15-9.18, 서울)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3월 개최기로 한 장관급회담이 6개월만에 재개될 예정

#### □ 주 요 내 용

##### ① 북측, 남북당국간 회담 재개 제의 방송통지문(9.2)

-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은 전반적인 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임.
-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은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더욱 커가고 있음.
-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그것을 더욱 뚜렷이 입증하였음.
- 우리측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함.

\* 북측은 9.3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동 내용의 대남전통문을 발송

## ② 우리측,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 대북전통문(9.6)

- 귀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함.
-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로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 나가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남과 북은 앞으로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더욱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비롯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③ 북측, 장관급회담 개최 동의 대남전통문(9.5)

-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함.
- 우리는 본 회담이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 □ 평 가

- 남북장관급회담은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분야별 각종 회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왔음.

- 제5차 장관급회담이 재개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유지와 ▲그간 중단된 분야별 남북 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 \* <관련경과> : '00.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1.3월중 제5차 회담 개최 합의→ '01.2.27 남측, 제5차 회담 개최(3.13-3.16, 서울) 제의→ 3.7 북측, 제5차 회담 개최 동의→ 3.13 북측, 제5차 회담 불참 통보 → 9.2 북측, 남북 당국회담 재개 제의→ 9.6 남측, 제5차 장관급회담 재개 제의→ 9.6 북측, 제5차 장관급회담 개최(9.15-18, 서울) 동의

## 2.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개천절 행사 공동개최 제의

### □ 개 요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9.7 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북측 단군릉에서의 개천절 행사 공동개최 및 △독도 영유권 관련 남북학술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9.7, 평방)

### □ 주 요 내 용

-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북남 및 해외의 대표들은 북남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9.2 북남 당국대화의 재개를 제의하였음.
- 우리는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제5차 북남상급회담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며, 남측 공안당국이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구속된 인사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함.
- 8.15 통일대축전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의 합의사항은 하루 빨리 이행되어야 함.
- 이와 관련 △독도영유권을 위한 북남 학계토론회와 △10.3 단군릉에서의 개천절 행사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조속히 가질 것을 제의함.
- 우리는 다시한번 6.15 북남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밝히면서, 남측의 해당 단체와 인사들도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Ⅲ. 기 타 동 향

#### 1. 북·중 정상회담 개최

##### □ 개 요

-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9.3~9.5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정당, 정부 차원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를 논의
- 양국은 강택민 주석의 공식적 방북형식 및 자격을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의한 강택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공식친선방문”으로 발표
- \* 북한과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시(8.4)와는 달리,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의 대외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북한은 9.6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강택민 주석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친선방문에 대한 상보”를 발표

##### □ 주 요 내 용

###### ① 북한측 「상보」 주요내용

- 양국 지도자는 회담에서 쌍방의 정치·경제 형편들을 상호 통보하고 북·중 친선 발전과 국제 및 지역정세와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폭넓은 견해일치에 도달
- 쌍방 친선관계 발전 관련, 양국의 고위급 교류·왕래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별 교류·협조의 강화와 보다 높은 단계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노력키로 합의



- 강택민 주석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정세 및 쌍방 국내형편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중·조 친선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
-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성과와 「3개대표사상」 등 중국의 노선과 정책이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 한반도 정세 관련 중국측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쌍방의 노력과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최근 조치를 평가하고 이를 지지
- 대외관계 관련, 중국측은 북한의 미국·유럽동맹 등과의 관계개선 및 정상화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
- 대북지원 관련, 중국측은 금년초 북한의 심각한 가뭄 피해를 고려,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을 무상원조기로 통보
- 양국 지도자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주권의 상호존중·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

## ② 중국측 발표 주요내용

- 중국측은 9.5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王家端) 및 부비서장(劉洪才)의 대언론 공식브리핑을 실시,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양국간 당 및 국가차원의 고위급 왕래 전통 계승 및 청소년을 포함한 제반분야의 인적교류 강화에 합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문제는 남북한이 협의할 문제

- 미국의 MD추진 관련,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반대

## □ 평 가

- 금번 江澤民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01.8) 이후 얼마 되지 않았고, 10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개최된 점과
  - 형식면에서, 정상회담 이후 의례적인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경제인사의 방북 수행 저조 등 黨的 비중이 강조된 점
  - 내용면에서도 김정일 방러의 경우와 달리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적고, 김정일 위원장의 「3개대표론」 긍정 평가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 등이 특징임.
- 양국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당 및 국가차원의 유대 강화와 함께 상호 경제 운영방식 인정 및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협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동 방북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과거 「양국 지도자 교환방문의 관행」을 되살림으로써
  - 양국간 유대를 가일층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 ('92.8) 이후 다소 소원했던 양국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 \* 금번 강택민 주석의 중국 최고지도자로서의 방북은 ▲'92.4 楊尙昆 주석이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4.15)을 축하하기 위해 방북한 이후 9년 만이며 ▲강택민 주석의 '90.3 당 총서기 자격 방북 후 11년만에 이루어짐.

## 2.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관련 입장 발표

### □ 개 요

- 민화협은 9.4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우리측 내부의 논쟁과 관련하여, 민족의 화해협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통일정책이라는 입장을 표명

### □ 주 요 내 용

- 민족의 화해·협력은 우리민족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통일정책이며,
  - 6.15 남북공동선언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것은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열어놓았기 때문임.
  - 8.15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 일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5 통일대축전의 성과는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북측은 8.28 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각 부문 단체간 교류활성화를 제안하였고, 9.2 조평통은 중단된 당국간 회담재개를 제의해 왔음.

- 8.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나타난 일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빌미로 대북정책 주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은 다수의 국민이 찬동하고 모든 우방들이 지지를 표명한 화해협력정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일임.
- 화해·협력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번 통일부 장관 해임안 국회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번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과 통일문제를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삼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9.2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제의 환영 논평
- 9.6 통일부 인도지원국, 8월중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발표
- 9.6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 대북 전통문

### ☞ 북한 동향

- 9.3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 방북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9.3-9.5)
- 9.5 북측, 중국군 유해송환 관련 유엔사측의 실무장교접촉 제의 동의 대남전통문 (접촉일자 : 9. 6 → 9. 13 변경)
- 9.7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개천절 행사 공동개최 관련 실무접촉 제의
- 9.6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 동의 대남전통문

### ☞ 주변국 동향

- 9.4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造) 수석 대변인, 중국의 남북대화 조기 재개 희망 논평
- 9.6 미국무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환영 논평(정례 브리핑)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0호>

2001.9.9~9.22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범민련, 강령 및 규약 수정 발표

### III. 기 타 동 향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내용 발표
-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 관련 개선과제 발표
- 통일부, 1-8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2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9.15-18 서울에서 개최되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제6차 장관급회담 개최(10.28-31) 등 5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을 채택
- 김대통령은 9.11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현 남북관계는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제2단계 진전이 필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불가침 협정, 군사공동위 설치 등을 위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
-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북측과 방문단 최종명단 교환 등 사전 실무절차를 확정키 위해 9.20-9.22간 4차례의 전화통지문을 교환하는 등 북측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

## ◀ 북한 동향 ▶

- 북한은 9.18 중방·평방·조선중앙TV 등 주요매체를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공개하고 “이번 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했으며,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룩하는데 새로운 전환적 국면과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9.12 미국의 테러참사(9.11)와 관련하여 중통(KCNA) 기자회견을 통해 “UN 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공화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북한의 테러반대 입장을 표명

## ◀ 주변국 동향 ▶

-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9.17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북미대화 재개의사를 재확인(한·미 외무장관회담 공식기자회견)
- 러시아 교통성 기술실무조사단(바체슬라프 발라킨 철도부 국제협력국장 등 15명)은 9.14 북한을 방문, 9.4 방북한 실무조사단 제1진과 함께 TKR-TSR 연결관련 경제성, 궤도 규격 및 교체가능성 등 동부해안선의 구체적 조사에 착수(9.10 평방, 9.11 러시아소리 방송, 9.18 알렉산드르 첼코 철도부 제1차관 인테르팍스통신 기자회견)

## II. 주 요 동 향

### 1.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 개 요

- 남북한은 9.15~18간 서울에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
  -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 등을 진행하여 쌍방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 북측 대표단(김령성 단장 등 3명)은 9.17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

#### □ 공동보도문 주요내용

- (1)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 (2)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10.4) 개최
  - ④ 남-북-러 철도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 개최

- ⑥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 협의를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⑦ 남북경협 관련 「4개 합의서」의 빠른 시일내 발효
- ⑧ 동해 공동어로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 ⑨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4) 태권도 시범단 상호교환(10월 북측시범단 방한, 11월 우리측 시범단 방북)

(5)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10.28~31) 개최

## □ 평 가

- 남북 당국간 회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 확보
  -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 및 확대 발전에 합의
-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 남북관계 증진의 계기 마련
  -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합의사항 실천방향 및 일정에 합의하고 경의선,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금강산 도로, 국방장관회담 등 미흡한 사항은 추가적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
-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도 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부분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 국제적인 위기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당초 합의한대로 회담을 개최

## 2. 범민련, 강령 및 규약 수정 발표

### □ 개 요

- 범민련은 9.18 수정된 강령과 규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강령과 규약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9.19, 평방)

\* 동 규약은 범민련 북측본부·남측본부·해외본부가 동시에 발표

### □ 주 요 내 용

- 통일 실현을 위해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민족자주 및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벌여 나갈 것과 당면과업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강조
- 「강령」 전반을 6.15공동선언에 맞추어 개정
  - 제3항에서 6항까지 6.15 공동선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적용
  - 제4항에서는 연방제를 삭제하고 6.15 공동선언의 통일 조항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로 개정
- 「규약」 내용 제3조 중 “조국통일 3대헌장 정신을 활동의 지침으로...”를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변경하고 범민족대회 관련조항을 완전히 삭제
- \* 8.29 범민련 남측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령 중 연방제 통일방안과 규약중 범민족대회 관련 규정, 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관련조항을 강령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Ⅲ. 기 타 동 향

####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내용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9.18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정착지원금지급 등 정부차원의 지원내용과 각급 종교·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

##### □ 주 요 내 용

-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경제적 기반 제공을 위한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주택알선 등을 제공하고, 사회편입 후의 생활·의료 보호, 학비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등 지원
  -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은 1인 가족인 경우 3,700만원 수준, 4인 가족인 경우 6,440만원 수준
  - 「하나원」 교육중 직업전문상담가의 진로지도, 직종안내, 현장견학 등의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편입후 노동부 노동사무소(46개소) 취업보호담당자의 전문상담을 통해 직종별로 각급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주에 임금의 1/2(월 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하는 취업보호제를 통해 고용기회 확대

-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 의료보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특례 대학입학 및 학비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각급 사회·종교 등 민간지원단체들을 통해 분야별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
  -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운영(북한인권시민연합), 종교 및 사회단체들과의 결연사업(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화탐방 등 사회동화프로그램(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탈북학생 대상 장학사업(천일장학회, 운봉장학회, 라이온스 장학회 등) 여성 대상 직업훈련(YWCA) 등
- 지역차원에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협력연결망」 구축을 위해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추진(1단계 10개 지역 계획)
  - 동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 후원 종교·사회단체, 고용사업체, 자원봉사자, 각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 평통협의회 등으로 구성

## 2.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 관련 개선과제 발표

### □ 개 요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동북아경제센터」는 9.6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01.8.2-10)를 발표

\* 동 센터는 '99년부터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상황의 진행상황과 개선과제를 조사·발표하여 왔음.

### □ 주 요 내 용

- 원산지 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 원료제공형 위탁가공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제도 면제
- 대화창구 단일화 ⇒ 대만·중국 사례처럼 관민 합동 창구 개설, 북측 민경련을 카운트 파트너로 지정
- 인천-남포간 정기선 운항확대
  - 인천·남포간 정기선을 복수로 운항하여 운항지연으로 인한 위험부담 경감
  - \* 동 향로 정기선을 복수 운항하면 물동량의 집중으로 소석탈 제거
- 수출보험에 의한 리스크 해소
  -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를 수출보험공사에 지원하여 그 금액 내에서 수출보험에 가입
- 남북협력기금 관리 은행의 복수화
  - 남북협력기금 관리 은행 복수화 및 경협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 3. 통일부, 1-8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9.19 금년도 1-8월 중 남북교역동향을 발표
  - 금년도 교역액은 253,190천달러로 전년동기 295,739천달러 대비 14.4% 감소했으며, 위탁가공교역 역시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남북교역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국내경기 침체와 남북관계 소강국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 주 요 내 용

##### <교역 전반>

- 반입액은 91,547천달러로 전년동기 88,101천달러 대비 3.9% 증가
  - 주요 반입품목은 농수산물·섬유류 등
- 반출액은 161,643천달러로 전년동기 207,638천달러 대비 22.2% 감소
  - 주요 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섬유류 등

##### <위탁가공교역>

- 위탁가공교역은 70,906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
  - 이중 반입은 35,410천달러, 반출은 35,495천달러



- 동 교역액은 전체교역액 253,190천달러의 28.0%, 거래성 교역액 132,248천달러의 53.6% 차지

## □ 평가 및 전망

- 2001년 1-8월중 남북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한 것은 국내경기 침체와 남북관계 소강국면 등에 기인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남북교역은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9.13 유엔사- 북측, 중국군 유해(5구) 송환 관련 실무장교 접촉(판문점)
- 9.14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북측 「민화협」에 8.15 통일대축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9.24-26, 금강산) 제의
  - \* 북측 민화협은 9.21 내부사정에 의해 당분간 연기함을 통보
- 9.17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대중 대통령 예방
- 9.21 한적,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300명) 선정 발표
  - 직계가족 상봉자·고령자 우선 최종 100명 선정 예정

### ☞ 북한 동향

- 9.12 외무성 대변인, 미 테러참사 관련 북한의 테러 반대입장 표명(중통 기자회견)
- 9.13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개최(10.3) 관련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9.18 범민련, 강령 및 규약 수정 발표
- 9.18 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535부대 및 제211부대 시찰

### ☞ 주변국 동향

- 9.14-19 제5차 「총련」 고향방문단(71명) 방한
- 9.17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재개 방침 재확인(한미 외무장관회담 공식 기자회견)
- 9.17 IAEA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사무총장,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 이행 촉구(제45차 총회 개막연설, 오스트리아 빈)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1호>

2001.9.23~10.6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개최
- 북한,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공식유감 표명

### III. 기 타 동 향

- 통일부,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북한의 태권도 현황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2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남북한은 10.3-10.5 금강산에서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을 개최하고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문제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10.19 제2차 회담에서 계속 협의키로 합의
-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9.26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방문단 후보자 명단(200명)을 교환하였으며, 10.8 생사주소확인 회보서 접수 및 10.9 최종방문단 명단(151명)을 교환할 예정
- 우리측은 10.6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남북 쌍방이 기합의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의 서명·발효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제의

## ◀ 북 한 동 향 ▶

- 이형철 UN주재 북한대사는 10.5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북한 정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유감을 표명(제56차 UN총회 5일차 회의)
- \* 이형철 대사는 기초연설(9.26)을 통해서도 △UN이 강대국들로 하여금 작고 약한 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분쟁문제를 강대국의 지배주의 실현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
- 10.6 「중·평방」 보도를 통해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의 개최 사실을 간략히 발표하고, 동 회담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도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보도

## ◀ 주변국 동향 ▶

- 중국은 9.24 북경에서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4차 회의를 개최하고 「압록강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9.26, 중방),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9.26 “현단계 남북관계를 경제·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러시아의 소리 방송)
- UNICEF는 9.30 대북한 기증국 보고서(DPRK Donor Update 14 Sep. 2001)를 통해, 8월말 현재 금년도 대북지원 목표액 1,050만 달러 가운데 30%인 316만 달러만을 확보했다고 발표

## II. 주 요 동 향

### 1.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개최

#### □ 개 요

- 남북은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을 10.3~5 금강산에서 개최, 육로관광·관광특구 지정 문제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없이 종료
- 언론발표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차기회담은 10.19(금) 개최하기로 합의

#### □ 주 요 내 용

-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를 남북당국간에 협의·해결한다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만큼
-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현리(남)-고성(북)간 도로연결 등 육로관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
- 아울러 북측이 현대-북측 아태간 6.8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
- 북측은 금강산관광이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 기존의 해로관광을 본 궤도에 올려 놓은 토대위에서 다른 문제들도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표명
- 또한 북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협력의 시범적·상징적 사업인 만큼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

## □ 평 가

-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이 공식적으로 만나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상호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제2차 회담 일자에 합의함으로써 당국 차원의 안정적 대화채널을 마련
- 정부는 앞으로 대북협상을 시장경제원리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되, 북측에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북측의 태도변화와 육로관광 호응을 유도해 나갈 계획

## 2. 북한,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공식유감 표명

### □ 개 요

- 북한 이형철 유엔대사는 10.5 「국제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조치」를 의제로 한 유엔총회 본회의 5일차 회의에서 미 테러사건(9.11)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

\* 10.1부터 시작된 이번 본회의는 189개 유엔 회원국 중 145개국 대표들이 발언을 신청하는 등 유엔 사상 단일의제로는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가

### □ 주 요 내 용

- 테러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지난 달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비극적임.
-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을 주장하는 독립국가를 테러국가로 낙인 찍어 군사적 개입과 점령, 일방적 압력 및 제재조치 등으로 주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도 국가 테러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함.
- 북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지속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 참 고 사 항

- 북한은 9.12 외무성 대변인의 중통기자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미국 테러참사가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Ⅲ. 기 타 동 향

#### 1. 통일부,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9.25 최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전국의 만20세 이상 일반국민 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22~23, 코리아리서치센터) 결과를 발표

##### □ 주 요 내 용

-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64.9%)가 이번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 가장 큰 성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61.1%),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조기 착수 합의(24.1%) 등을 지적
-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56.0%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79.4%가 금강산 육로 개설시 관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76.8%)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81.3%)
  -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60.0%가 찬성하였으며,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2.5%)를 차지

- 향후 과제로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32.2%),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28.7%)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 53.3%가 美 테러사태로 인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2. 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 □ 개 요

○ 통일부는 9.27 제8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4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총 22억7천5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결정

-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키로 결정(4.18)하고 상반기중 10개 단체에 53억원의 기금을 지원

\* 금년도 지원키로 결정된 남북협력기금액은 총 75억7천5백만원

### □ 주 요 내 용

(단위:억원)

업 체	지원액	지원개요
국제옥수수재단	7.02	○ 25개 협동농장에서 옥수수 재배 및 증산을 지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6	○ 자강도, 양강도 거주 어린이, 인민학생 대상 방한용품 및 급식용 식량 지원
한국이웃사랑회	7.17	○ 젖소 10마리, 우유생산 기자재, 사료, 비료, 약품 등 지원 ○ 유아용 급식, 보육용품, 주방용품 및 설비, 의약품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5.5	○ 3개 어린이병원에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을 통해 어린이병원 현대화 사업 지원 ○ 평양시 빵공장에 빵재료 지원
합 계	22.75	

## □ 평 가

- 금번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도움은 물론 남북 주민간 접촉 및 교류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3. 북한의 태권도 현황

#### □ 개 요

- 북한은 '72년 국방체육 강화의 수단으로 기관·기업소 마다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육성, 이후 '82년 최홍희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으며 군부대를 중심으로 전문선수 양성
  - \* 최홍희 : 함북 길주 태생으로 '66 서울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하였으며 '72년 캐나다로 망명한 친북 인물
- 세계태권도 조직은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김운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비동맹 및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제태권도 연맹(ITF, 총재 최홍희)에 가입
  -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0 「WTF」를 승인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 □ 주 요 내 용

##### (1) 전투적이고 매우 격렬

- 겨루기(대련)시 머리, 가슴, 낭심 등에 보호대 없이 경기용 글로브만 착용하고 격투
  - 자유 겨루기에서는 1:3 경기도 하며 얼굴 가격도 허용
- \* 북한은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태권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수부대 출신 교관들이 훈련을 담당하며 “총폭탄·결사용위” 등의 기합을 사용

## (2) 다양한 기본동작 및 품세

- 실전과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기본동작 및 품세를 개발
  - 기본동작 : 3,200개 동작 (남한: 1,000개 동작)
  - 품 세 : 24틀 180개 동작 (남한: 19품세, 173개 동작)

## (3) 선수 양성

- '82년부터 노동력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태권도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전문선수 양성

## (4) 일반 보급

- 북한 「태권도위원회」는 '93년 집단주의 정신함양과 신체발전을 위해 전군중적 운동으로 율동식의 「건강 태권도」 보급
  - 어린이나 노약자도 경음악에 맞춰 따라하기 쉽도록 기본동작을 개편하여 50개 동작으로 단순화
-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소조」 조직
  - 각시·도에 「청소년태권도학교」 설립

## (5) 태권도 전당

- 각종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92.8 관중석 2,400석 규모로 개관된 체육시설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위치(우리측의 국기원에 해당)

□ 참고사항(남북한 태권도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국제 조직	「세계태권도연맹」(WTF) - '73 창립, 본부: 서울 - 총재 : 김운용 - 회원국: 164국 - 회원: 5천만명	「국제태권도연맹」(ITF) - '72 설립, 본부:빈 - 총재:최홍희 - 회원국:112국 - 회원:150만명(WTF의 3%)
경기 방식	8체급, 3분 3회전 방식 단일득점제(1점)	5체급, 2분 3회전 방식 차등득점제(1~3점)
경기 특징	스피드 위주의 스포츠적 성격	파괴력 위주의 실전 무도적 성격
품 세	유급자: 태극1~8장 유단자: 고려,금강 등 11품세 총19품세 173개 동작	단군, 을지, 포은 등 총24틀 180개 동작
도 복	사범과 수련생 흰색 동일	사범은 흰색도복 테두리에 검은 줄로 구분
띠	5단계(하양-노랑-파랑-빨강-검정)	6단계(하양-노랑-초록-파랑-빨강-검정)
착용 도구	보호대 착용 (글로브 미착용)	글로브 착용 (보호대 미착용, 발등보호구 및 마우스피스 착용)
경기종목	품세 겨루기 호신술 격파	틀 맞서기 특기(높이차기, 종합격파 등) 위력

※ 남북한은 지난 9.15-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10월중 북측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과 △11월중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방북에 합의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9.26 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관련 방문후보자 명단(200명) 교환
  - \* 10.9 최종 방문단 명단(151명) 교환 예정
- 10.3-5 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개최(북측 지역 금강산)
- 10.4 UNC 군정위 비서장, 금년도 2차분 미군유해보상금 전달관련 군정위 접촉(10.12, 판문점) 제의 대북전통문
- 10.6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10.12, 10.15 판문점) 개최 제의 대북전통문

### ☞ 북한 동향

- 9.26 이형철 UN주재 북한대사, 제56차 UN총회 연설(10.2, 평방)
- 9.28 「조선반핵평화위」대변인, 일본의 대형 운반로켓 발사시험 관련 담화 발표(9.29, 중방)
- 10.6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진행 사실 발표(중·평방)
  - 이번 회담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도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보도

### ☞ 주변국 동향

- 9.24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4차 회의 개최(북경) 및 「압록강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결정서」 채택(중방)



- 9.24-28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제16차 총회, 미사일 포기국에 대한 국제협력 제공 관련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지침 초안(ICOC)」 채택(캐나다 오타와)
- 9.27 아디사이 보다라믹 태국 상무장관, 현재 대북 쌀 50만톤 수출협상 진행사실 확인
  - \* 태국은 금년 4월 북한이 쌀 50만톤의 외상구매를 요청했으나 이미 지난 '93-'95년 외상구매한 쌀 40만톤의 대금 1억 1천 50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 9.30 UNICEF, 「대북한 기증국 보고서(DPRK Donor Update 14 Sep. 2001)발표
- 10.5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현재까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정례브리핑)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2호>

2001.10.7~10.1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북한,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 연기 발표

### III. 기 타 동 향

- 노동당 창건 56돌 기념행사 동향
-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
- 삼성전자, 남북공용 「통일워드」 개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는 10.12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10.12 조평통 대변인 담화)한데 대해 강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우리측은 동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한적 총재 및 대한태권도협회장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속 개최를 촉구

##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10.12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을 연기하고, 이어 10.13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 김택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제2차 회담장소를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
- 10.13 중앙방송을 통해 10.9-10간 동해안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우와 해일로 인해 일부 인명피해와 3만여 가구와 수만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되었다고 보도
- 10.12 평방을 통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태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사일 생산중단 가능성을 시사
- \* 10.9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서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10.8)에 대해 “테러와의 투쟁방법도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여 스스로 할 바를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 ◀ 주 변 국 동 향 ▶

- 영국 해외투자지원처(BCB)는 10.9 컨설팅 업체와 에너지 회사 등을 포함한 영국정부지원 무역대표단이 10.16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 브라질 연방상원은 10.11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II. 주 요 동 향

### 1. 북한,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 연기 발표

#### □ 개 요

- 북한은 10.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16 예정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10월중 북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방문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

- \* 북측은 동일 북적 중앙위 장재언 위원장 및 조선태권도위원회 황봉영 위원장 명의 우리측 한적 서영훈 총재 및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서 연기사실을 공식 통보

#### □ 주 요 내 용

##### <담화요지>

-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져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있는 때에 우리를 결코 긴장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에 배치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위협한 행위임.
- 남측의 살벌한 경계태세 분위기 하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음.

- 이에따라 제4차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우리측은 10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 제6차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회담은 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할 것임.
- 이 회담들의 개최장소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바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함.

#### <우리측 조치내용>

-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10.12)
  -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북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유감스러움.
  - 북측이 이번 담화를 즉각 철회하고 장관급회담의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
-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 전통문 발송(10.12)
  - 그동안 차질없이 준비되어 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과 태권도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우리측의 경제조치들은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제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는 북측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음.
  - 만약 중요한 합의사항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연기된다면 남북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개최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남북관계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 김택룡 단장은 10.13 우리측 수석대표 앞으로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을 10.19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대남전통문을 발송

○ 국방부 대변인 성명 발표(10.12)

- 북한이 우리군의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이유로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과 태권도 사업단 교환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유감임.
- 우리군의 조치는 외부의 테러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임.
- 우리 군은 지난 10.6 남북 철도·도로연결 군사보장 합의서의 서명·발효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제의시 밝힌 바와 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교류행사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측이 이에 즉각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임.
- 한적 총재 및 대한태권도협회장은 북적 중앙위 위원장 및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유감 표명 및 이행촉구 대북전통문 발송(10.12)

### Ⅲ. 기 타 동 향

#### 1. 노동당 창건 56돌 기념행사 동향

##### □ 개 요

- 북한은 10.10 노동당 창건 56돌을 맞아 당·정·군 간부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및 예술공연·경축모임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

##### □ 행 사 동 향

- 당·정·군 간부 및 각종 사회단체의 금수산기념궁전과 각지 김일성 동상 참배
- 각종 사회단체의 예술공연, 경축모임 등 기념행사 개최
  - 미술전시회, 체육대회, 예술공연, 경축야회 등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근로자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상훈·학위를 수여
  - 주북 외교단의 김정일에 대한 꽃바구니 및 축하편지 전달
- 해외 친북단체 주관으로 기념행사 개최
  - 영화감상회, 도서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연구토론회, 친선모임 등 축하행사를 간략히 진행

## □ 평 가

- 금년도 당창건 56돌 기념행사는 「중앙보고대회」 없이 예년보다 다소 간소하게 진행(15여건)
- 올해가 소위 ‘꺾어지는 해’가 아닌 ‘평주년’인 데다 이틀전인 10.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등 관련 기념행사들을 함께 진행하였고
- 더욱이 내년이 김정일 회갑(2.16)·김일성 90회생일(4.15)이 되는 해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연례차원의 의례적 행사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 2.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동향

### □ 개 요

- 북한은 '90년 하반기부터 전력난이 심화되자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96.1 「전력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 건설원칙의 법규화도 함께 추진

\*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동 건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낮은 발전 효율과 빈번한 설비고장으로 정책적 관심은 낮았음.

### □ 주 요 내 용

- 북한은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있어 양보다는 질 중시
  - '98년의 약 5천개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었으나 '99년에는 1천개로 줄었고 작년부터 북한 당국은 매년 500개 정도의 건설을 계획
  - 발전능력은 크게 증가하여, '98년도 7KW의 평균 발전능력이 '99년에는 80KW로, 지난해는 200KW로 각각 증가
  - 또한 최근에는 김철발전소, 봉화화학공장화력발전소 등 발전능력이 수천KW인 중형발전소들을 다수 건설중
- 발전소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난립형 발전소 건설을 지양, 성천강(함남) 비류강(평남) 등 각지 강·하천에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
  - \* 북한은 동 형태의 발전소를 성천강에 33개, 남대천에 12개 건설

- 시기면에서 북한은 '90년대 하반기부터 발전소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70년말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99년부터는 규모가 대형화

## □ 평 가

- 북한이 이처럼 중소형발전소에 정책적 관심을 쏟는 것은
  - 발전소건설에 현지의 노동력 투입이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큰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과
  -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경제적 윤택을 가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임.
- 그러나 이같은 중소형발전소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적합치 않으며, 겨울철과 같은 갈수기에 수력형 중소형발전소는 가동율의 현저한 저하 등의 단점이 있음.

### 3. 삼성전자, 남북공용 「통일워드」 개발

#### □ 개 요

- 삼성전자는 10.8(월) 북측 조선컴퓨터센터(KCC)와 공동으로 남북공용 워드프로세서인 「통일워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
- \* 삼성전자는 '00.3부터 북측의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북경에 개발센터를 개설, 동 사업을 진행

#### □ 주 요 내 용

- 통일워드는 삼성전자가 훈민정음을 기반으로 남북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개발한 워드프로세서로
  - 북측 컴퓨터 및 남측 컴퓨터에서 모두 동작하며 남북이 추가 작업없이 문서 호환이 가능
  - 영문윈도우에서 조선어 입력 기능을 지원하며 국규모드(우리의 KS 한글코드에 해당) 사용시 북측의 컴퓨터에서 최적화 기능을 제공
  - 훈민정음 문서파일 불러오기 지원 및 북측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내용의 제공 등이 주요특징임.

#### □ 평 가

- 금번에 개발된 통일워드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대북 경제협력사업 추진기업의 공식 워드파일 포맷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 남과 북의 정치·경제적인 활용 외에도 이산가족이나 해외동포와의 전신 및 서신교환 수단이 됨으로써 남북간 해외동포사이의 문화교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0. 8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00명 생사확인 결과 교환
- 10. 9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명단 교환
  - 10.16-18간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할 이산가족 각 100명, 지원인원 및 취재진 등 우리측 151명, 북측 145명의 명단 교환
- 10.12 2001년도 제3차 통일고문회의 개최
  - 조영식 의장 등 통일고문 19명이 참석, 현 단계 남북관계 상황과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토의 진행
- 10.12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연기 관련 논평 발표
- 10.12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 홍순영 수석대표,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연기 관련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
- 10.12 국방부 대변인,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연기 관련 논평 발표
- 10.12 서영훈 한적 총재,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연기 관련 북적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 10.12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북측의 태권도 시범단 파견 연기 관련 조선태권도위원회 황봉영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

### ☞ 북한 동향

- 10.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 10.9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비난
- 10.9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제의에 관련 대남전통문
  -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류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은 우리측 수석대표 앞으로 UNC 군사정전위틀 통한 전화통지문에서 10.6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검토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통보

- 10.10 노동당 창건 56돌(10.10) 기념행사 진행
- 10.1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등 관련 담화 발표
- 10.12 북적 장재언 위원장, 한적 총재 앞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 관련 대남전통문
- 10.12 조선태권위원회 황봉영 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장 앞 태권도시범단 파견 연기 관련 대남전통문
- 10.13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 김택룡 단장, 우리측 조명균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 주변국 동향

- 10.9 영국 해외투자지원처(BCB)는 10.16-20간 영국정부 지원 무역대표단의 최초 북한방문 사실 발표(샤론 위틀 국장 공식기자회견)
- 10.11 브라질 연방상원, 대북포용정책지지 결의안 채택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3호>

2001.10.14~10.2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간 전통문 교환
- 남북대화 일정 관련 북한 동향

### III. 기 타 동 향

- UN 인도지원조정국, 북한의 홍수피해 상황 발표
- 통일부, 금년도 1-9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한국무역협회, 북한 IT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제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0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10.16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하고 당국간 회담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남북간 관례를 존중할 것과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및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기 합의대로 각각 「설악산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
- 10.22과 10.24 대북전통문을 통해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의 재조정과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제6차 회담의 10.28 평양 개최와 △10.28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를 각각 제의

## ◀ 북한 동향 ▶

- 북측은 10.18, 10.23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 우리측 홍순영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의 10.16자 대북전통문과 관련하여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및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각각 10.28, 10.25, 11.5에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 할 것을 주장
- 10.20 조평통 서기국 보도(10.21 중/평방)와 10.21 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 및 10.20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연기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방문단교환을 위한 조건과 환경 조성 및 △북측이 제시한 당국간 회담의 일정 및 회담장소를 수용할 것을 거듭 주장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언장은 10.16 우리측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앞으로 금년도 한적의 비료 20만톤 지원(5.4-6.7, 총 24항차)에 대한 비종별 도·시·군 단위의 분배결과를 통보

## ◀ 주변국 동향 ▶

- 베트남 정부 경제대표단(단장:마이 반 다우 상업부 차관)은 10.15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이용남 무역성 부상과 북-베트남 경제 및 경제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서를 체결(10.18)
- 호주정부는 10.16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0만 달러(호주달러) 상당의 밀을 북한에 지원, 일·북 농업교류일본협회(회장:요시다 마사오)가 10.13 일본 도쿄(東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

## II. 주 요 동 향

### 1.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간 전통문 교환

#### □ 개 요

- 남북한은 10.16~10.24간 각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추진 문제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당국간 회담의 「일정 및 회담장소」에 대한 쌍방 입장을 교환

\* 북측은 10.12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등 기 합의된 당국간 회담들의 개최장소로 금강산지역을 주장

#### □ 주 요 내 용

##### ①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대북전통문(10.16)

-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쌍방간에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상봉하는 문제는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남북 쌍방은 이 같은 문제의 절박성을 반영하여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음.

- 남북 쌍방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의 일정을 하루속히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당국간 회담의 장소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한 전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측 지역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힘.
- 기 합의한 대로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은 설악산에서 개최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함이 마땅함.
- \* 북측은 10.16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김택룡단장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박창현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조명균수석대표와 김진표위원장 앞 대남전통문을 통해 양 회담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② 김령성 북측 단장 대남전통문(10.18)

-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우리와 화해하고 단합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 상대방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임.
- 당면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남당국회담과 관련하여 회담장소문제를 가지고 회담의 개최를 저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함.
-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은 10월 25일에, 남북경협추진위 제2차 회의는 11월 5일에,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10월 28일에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③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대북전통문(10.22)

- 귀측이 「안전성문제」라는 것을 내세워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연기하는가 하면 당국간 회담 장소로 금강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제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남북 사이에 국제사회의 반테러 움직임 등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 등 지난번 제5차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다시 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선차적 과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그 중요성에 비추어 오는 10월 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

### ④ 김령성 북측 단장 대남전통문(10.23)

- 귀측이 북남대화를 진전시켜 나아갈 의사가 있다면 회담 장소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함.

-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할 데 대한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회담 자체를 지금까지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귀측 제주도에서까지 가졌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임.
- 우리측으로서는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이미 쌍방이 합의한 바 대로 10월 28일 금강산에서 할 것을 다시금 주장함.

**⑤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대북전통문(10.24)**

- 귀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우리측 지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한데 이어, 장관급회담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 남북장관급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심협의체라는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회담진행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그러나 귀측이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양 인근인 묘향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귀측이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진전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장소문제로 회담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될 것임.

## 2. 남북대화 일정 관련 북한 동향

### □ 개 요

- 북한은 10.20 조평통 서기국 보도(10.21중/평방), 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10.21) 및 노동신문 논평(10.20) 등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연기 책임이 미 테러전쟁과 관련한 우리측 비상경계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 □ 주 요 내 용

#### ① 10.20 조평통 서기국 보도(10.21 중방)

- 우리는 10.12 남측에서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이어 10.18 북남상급회담 우리측 단장의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보냈음.
-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정당한 발기와 주장에 아무런 호응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북남관계 발전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우리측의 성의에 비방중상으로 대하고 있음.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눈앞에 박두한 때에 외부의 일에 턱을 대고 미국으로부터 술한 공군무력을 끌어 들여 대결의 찬바람을 일으키며 위험한 사태를 조성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남측이었음.
- 또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걸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까지 취하면서 민족내부에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도 바로 남측에 있는 것임.



- 쌍방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남측의 부당한 처사는 결국 동족인 우리를 주적으로 취급하는데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임.
- 남측이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함.
- 이와함께 남측은 북남 사이의 대화를 발전시키려는 염원에서 신축성 있게 제안한 우리측의 여러 갈래의 회담일정들을 받아들이고 회담장에 나오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임.

## ② 10.21 북적 중앙위 대변인 담화(10. 22, 중방)

- 남측이 외부에서 벌어진 일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여 방문단 교환사업 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그 타개방도를 제기하고 환경과 분위기부터 시급히 일신할 데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남측은 지금까지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책임 회피와 전가에 급급하고 있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
- 지난 10.18 우리측 전화통지문에서 밝혀 둔 바와 같이 남측은 무엇보다도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태도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우리측은 남조선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혈육들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보장된다면 어느 때든지 방문단을 교환할 것임.

### Ⅲ. 기 타 동 향

#### 1. UN 인도지원조정국, 북한의 홍수피해 상황 발표

##### □ 개 요

- UN 인도지원조정국(UNOCHA)은 10.16 최근 북한 강원도 지역의 「홍수피해상황 추가보고서」를 통해 UNDP, UNICEF, WFP 등과 피해상황 조사 및 동 결과를 토대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
- \* 북한은 10.13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10.9-10간 동해안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우와 해일로 인해, 일부 인명피해와 3만여 가구 및 수만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되었다고 보도

##### □ 주 요 내 용

###### ① 피해상황

- 금번 홍수(10.9-10.10)는 북한 강원도 지역의 기반시설, 농업생산시설과 가옥 등을 파괴시키고 많은 인명피해 야기
  - 큰물피해대책위원회가 집계한 10.17 오전 현재 피해상황은 사망 81명, 부상 84명, 실종 33명 등
  - 1,000개 가옥 붕괴, 3,000개 가옥 거주 불가능 등으로 4,000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총 6만가구의 피해사례 파악
  - 대부분의 피해는 산림 황폐화의 결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

○ 피해농지 면적 확대

- 10.12일자 보고서에 나타난 13,000ha의 피해면적은 동해안 일대 총 피해면적의 일부에 불과하며

-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5만ha의 경작지가 홍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

\* UN 인도지원조정국은 지난 10.12 1차보고서를 발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조만간 추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

○ 원산시(인구 30.9만명)는 이번 홍수로 인해 학교, 공장, 가옥 등 많은 건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 발생

- 원산시의 식수공급 시설 등이 피해를 입고 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기능이 중지된 바, 식수정화 시설·급수시설·수로 등에 대한 긴급보수를 요하는 상황

② 구호활동

○ IFRC의 지원으로 북한 적십자는 즉각적인 구호활동에 착수

- 원산시 1,200가구에 구호물품 전달(밀 1만톤·담요 3,600톤, 부엌용품 192세트·물통 1,200개·식수정화기 11만개 등)

- 동 지역 140만명 주민을 위한 「강원병원」은 홍수로 인해 이틀간 전력과 식수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홍수피해로 입원한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시설과 약품이 부족한 상황

\* 북한 적십자가 보건/식수/위생 분야의 자세한 피해상황을 조사중

○ 수인성 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탈수방지제와 의약품 등 기초 의약품이 부족하여, UNICEF는 40개의 약품세트와 탈수방지소금·식수정화기를 긴급지원

- 북한당국은 탈수방지 소금·기초의약품 등 식수위생 분야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
- 유엔인도지원조정국은 UNDP, UNICEF, WFP 등 기타 국제기구와 함께 금번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동 결과를 토대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
- 피해지역(원산)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WFP는 동 지역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북한당국과 협의중이며
- IFRC도 금번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APPEAL을 발표하고, 대규모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

### ③ 평 가

- 피해지역 주민들은 겨울동안 자체생산 곡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번 농작물 피해의 여파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수 주일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이므로 가옥의 손상·붕괴로 거처를 잃은 8,000천 가구 주민의 생계가 우려되나 북한당국은 이들 주민들에게 적당한 거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피해지역의 개별가정과 협동농장은 겨울을 대비하여 쌀과 채소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자체재배식량이 필요하나 홍수피해로 인해 금년에는 어떤 식량도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2. 통일부, 금년도 1~9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10.17 금년도 1-9월중 남북교역액이 총 2억 9,110만 7천달러로 전년동기 3억 2,999만 3천달러 대비 11.8% 감소, 위탁가공교역 역시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했다고 발표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총 342개(위탁가공업체 111개)이며, 품목은 총 542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50개)로 집계

### □ 주 요 내 용

#### ① 교역전반

- 반입액은 109,970천달러로 전년동기 105,278천달러 대비 3.9% 증가
- 주요 반입품목은 농수산물·섬유류 등
- 반출액은 181,137천달러로 전년동기 224,715천달러 대비 19.4% 감소
-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섬유류 등

#### ② 위탁가공교역

- 위탁가공교역은 86,708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6% 감소
- 이중 반입은 45,937천달러, 반출은 40,771천달러

- 동 교역액은 전체교역액 291,107천달러의 29.8%, 거래성 교역액 157,267천달러의 55.1%를 차지

## □ 평가 및 전망

- 금년도 1-9월중 남북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한 것은 국내경기 침체와 남북관계 소강국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향후 남북교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정세 및 국내 경제상황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3. 한국무역협회, 북한 IT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제시

#### □ 개 요

- 한국무역협회(KITA)는 10.16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정책건의 보고서(북한 IT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를 통해 S/W 및 H/W 분야 등 남북간 정보기술 협력의 유망한 분야 및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제시

#### □ 주 요 내 용

##### ① IT산업 현황 및 기술수준

- 북한의 S/W 기술은 전반적으로 남한의 중급수준(3~5년 뒤짐)에 있으나, 음성인식·지문인식 등의 분야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 북한은 바둑게임 프로그램인 「은바둑」으로 '98·'99년 일본 세계선수권 바둑대회에서 연속 1위를 차지

- H/W 산업은 32비트급 PC 조립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

-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60년대 도입기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나 70년대 이후 급변하는 기술추세에 부응하지 못해 급격히 쇠퇴

- 통신인프라는 정보통신 활성화가 체제불안요인으로 인식되어 매우 낙후, 인터넷 역시 체제위협요인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통제

## ② IT분야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 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 분야별 단계별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수입모델 개발 필요
- IT분야 경험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4대 경험합의서」의 후속절차 조속 이행
  -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개선과 대북 진출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
-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품화가 안된 북한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사업화 지원
- IT분야 표준화 및 학술·문화교류 확대 지원

## □ 평 가

- 동 보고서는 북한의 IT산업의 현황과 기술수준 및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제시해 줌으로써
  - 남북경협을 준비하거나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북투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 및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0.16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북측 김령성 단장앞 대북전통문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조속 추진 및 당국간 회담 장소 관련 남북간 관례 및 기 합의사항 존중 촉구
- 10.1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 북측의 이산가족방문단 연기에 따른 남북관계 대응방안 논의
- 10.22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
  - 제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일정 재조정 및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 협의를 위해 제6차 장관급회담의 10.28 평양 개최 제의
- 10.24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
  - 제6차 장관회담의 평양 또는 묘향산 개최 제의

### ☞ 북한 동향

- 10.1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박창련 위원장, 우리측 김진표 위원장앞 대남전통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제 날짜(10.23-26)에 진행 하되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0.16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북측 김택룡 단장, 우리측 조명균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을 10.19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0.16 북적 중앙위원회, 금년도 한적의 비료 20만톤 지원에 대한 분배 결과 통보
- 10.18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은 10.25, 남북경협추진위 제2차회의는 11.5, 제6차 장관급회담은 10.28에 모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0.21 북적 중앙위 대변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환경과 조건 조성 촉구 담화(10.22, 중/평방)
- 10.23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제6차 장관급회담의 10.28 금강산 개최 재주장

## ☞ 주변국 동향

- 10.16 부시 미 대통령,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 언급(연합뉴스 인터뷰)
- 10.16 호주정부 지원 밀(5백만 호주달러 상당) 북한 도착
- 10.17 EU 집행위원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 의약품 등 127만 유로 상당의 원조제공 결정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4호>

2001.10.25~11.3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남북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합의
- 한적,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 III. 기 타 동 향

- 북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발언 사과 주장
- 美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관련 내용
- 美 전략문제 연구소, 「남북관계 보고서」 발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0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남북한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1.9-12간 북측 지역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우리측은 11.2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금강산 개최주장을 수용하면서 제6차 회담을 11.9-12 개최할 것을 제의
  - 북측은 11.3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우리측 제의를 수용

## ◀ 북한 동향 ▶

- 북한은 11.3 외무성 대변인 KCNA 회견을 통해, “국제적 반테러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키로 결정”하였음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에도 가입키로 하였음을 발표
- 외무성 대변인의 KCNA 기자회견(10.30) 및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언 북적 위원장)의 성명(11.2)을 통해, 최근 미국의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IRF)」가 북한을 종교탄압국가로 지목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용납못할 도발행위”라며 미국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
- 농업성 대표단(단장:농업상 김창식)은 UN FAO 제31차 총회(로마) 참가차 10.30 평양을 출발, UN총회 제56차 회의(10.22) 제4위원회 회의에서 북측 대표는 “북한 미사일 위협설”은 미국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독점하려는 꾀변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중단을 주장

## ◀ 주변국 동향 ▶

- 미국(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는 10.25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폐쇄 체제 개방 등을 목표로 창립선언을 채택하고 공식활동에 착수
  - 향후 활동과제로 ▲대북 원조식량의 분배 검증 ▲대북 경제원조에 대한 북한 인권개선, 난민보호 및 기근구제와의 조건부 연계 ▲탈북자 처벌금지 및 중국내 탈북자 정치난민 자격 인정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개방 방안 모색을 통한 북한주민 개방화 조치 등을 설정
- \* 동 위원회는 프레드 아이클 박사(전 국방차관)를 위원장으로 하고 스티븐 솔라즈(전 하원의원), 리처드 앨런(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릴리(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번쉬타인(인권운동가) 및 미국내 각종 민주인권재단 회장 등 15명을 이사진으로 구성

## II. 주 요 동 향

### 1. 남북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합의

#### □ 개 요

- 남북한은 11.2 및 11.3 각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지난 10.12 북측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후 회담장소문제로 지연되어 온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1.9-12간 북측지역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합의
- \* 우리측은 11.2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그간 북측의 「금강산 개최 주장」을 수용하고 회담 개최일(11.9-12)을 제시, 북측은 11.3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이를 수용

#### □ 주 요 내 용

##### ① 우리측 수석대표 대북전통문(11.2)

- 남북간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당국간 회담들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내외의 우려가 매우 높음.
-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남북간에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 남북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회담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남북 사이의 관례라는 귀측의 주장에 유의하여 제6차 회담을 금강산 지역에서 하자는 제의를 수용키로 하였음.
- 회담날짜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할 것을 제의함.
- 이산가족방문단 상호교환을 비롯하여 남북간에 합의는 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의 추진일정을 새로 정하는 문제와 쌍방이 제기하는 현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② 북측 단장 대남전통문(11.3)

-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함.
-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질 것임.

## □ 회담추진 배경

- 금번 제6차 회담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은 남북대화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한 것임.

① 테러사건으로 조성된 국제적 긴장상황의 한반도내 긴장 고조로의 확대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남북대화 유지의 필요성

②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유도해 내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긴요

\*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당사자의 염원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③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반테러 국제연대 등 국제정세의 흐름과 우리국민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기회로 활용

\* 북측이 정세판단을 잘못하고 있을 경우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

④ 회담장소문제와 관련 금강산 개최를 수용한 것은 북측이 금강산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에서

- 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상대측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는 북한측의 지적과

- 그간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회담을 개최했고 한라산에서도 1회 개최한 점

- 그리고 본질문제가 아닌 회담장소 문제로 회담이 무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등에 기초함.



## 2. 한적,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 □ 개 요

-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는 10.27 오전 대한적십자사 창립 96주년 축사를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재개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 주 요 내 용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우리 국민은 물론 남북의 동포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민족적 과제이며, 적십자사의 주요임무임.
-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기된 것은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임.
- 남북적십자사는 북측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잠시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시급히 재개하도록 노력함이 마땅함.
- 이는 민족재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적십자 본연의 사명인 평화애호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임.
- 북한적십자회에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임.

### Ⅲ. 기 타 동 향

#### 1. 북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발언 사과 주장

##### □ 개 요

- 북한은 10.29 노동신문 논평 및 10.26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0.23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10.19 APEC 정상회담 참가시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 ▲북한에 대한 사죄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입장에 도달해야 가능하다고 주장

\* 부시 대통령은 10.19 APEC 정상회담 참석전 공식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은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비밀스러우며 공식적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발언

##### □ 주 요 내 용

- 부시의 언동은 국가수반은 커녕 일개 정치가로서 초보적인 예의도 없는 무뢰한 짓으로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 조미관계가 다시 탱탱해지고 파탄된 것은 전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임.
-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조미대화의 재개제안이라는 것도 본질에 있어서 대화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불순한 목적을 노린 것임.
- 부시 행정부는 저들의 망발에 대하여 조선인민앞에 깊이 사죄하여야 하며, 신의있는 조미대화의 재개는 부시 행정부가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취했던 입장 수준에 도달해야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

## 2. 美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관련 내용

### □ 개 요

- 美 국무부는 전세계의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for 2001)를 발표(10.25) 하고,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규정

\* 동 보고서는 '99년 미국무부가 의회에 처음 제출한 이래 세번째로 제출, '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102조b항에 의거, 매년 9.1까지 국무부 장관이 하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10.25에 제출함.

### □ 주 요 내 용(북한 관련사항 요약)

#### ① 개 황

-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이외에는 조직적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 북한정권은 최근 몇년간 비인가 종교집단을 탄압, 지하 기독교 신도들을 처형(미확인 보도 인용)
  - 북한주민들중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와 연관되거나 전도사업을 한 사람들을 처형(미확인 보도 인용)
  - 북한은 외국정부의 대표자나 언론인, 기타 방문객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의 인권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곤란
- 남북정상회담이 한국과의 접촉을 증대시켰으나,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끼친 영향은 불명확함.

## ② 종교인구

- 북한에는 기독교인 1만명, 불교도 1만명, 카톨릭교인 4천명이 있고 천도교 청우당이 활동함.
- '88년 이후 2개의 개신교회와 카톨릭성당이 설립되었고, 300개의 불교사찰이 존재
- \* 북한에 300개의 사찰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현존 사찰은 60여개로 파악

## ③ 종교자유

- 헌법에 종교자유가 허용되어 있으나 진정한 종교자유는 불인정함.('92년 개정된 헌법은 반종교 조항을 삭제)
- '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의 은덕정치를 강조하기 위해 종교차별 정책을 완화하고 정부규제하에 몇몇 종교단체의 설립을 허용
- 기독교와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3년제 대학이 몇개 존재함.
- '89년 김일성대학에 종교학 프로그램 신설, 졸업생들은 대외 무역부문에 진출
- 북한 정부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포함, 모든 체제 위협세력을 탄압함.
- 신앙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일반범보다 더욱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
- 북한 외부의 종교 및 인권단체들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매맞고 투옥되거나 처형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 ④ 사회적 요구

- 종교자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함.
- 북한정권이 외국정부 대표, 언론인, 방문객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⑤ 미국정부의 정책

-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어 공식기관이 북한에 주재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과 교회 및 종교단체의 대북 식량·의료지원 활동 등은 허용함.

#### □ 평 가

- 동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정보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보고서 등을 보충하여 국제적 종교실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 정책수립, 외교관계 설정, 종교관련 지원·훈련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 이를 근거로 미 대통령은 해당국가에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번 보고서에서는 총 195개 국가의 종교실태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에 포함하고 있는 바

- 지난 8.16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와 함께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무장관에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미국이 금년 3월 제57차 UN인권위에서 예년보다 강도높게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종교·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동 보고서 발표가 북미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됨.

### 3. 美 전략문제연구소, 「남북관계 보고서」 발표

#### □ 개 요

- 美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0.30 「2001년 3/4분기 남북 관계 분석 및 향후전망」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
  - CSIS는 8월 범민련 평양방문으로 인한 한국 내부의 논란·갈등과 9월의 남북대화 재개 및 경제분야 남북합의가 3/4분기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건으로 지적하고
  - 향후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등 구체적 사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내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보다 북한에 보다 덜 관용적인 사람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

#### □ 주요내용(경제분야 남북합의 관련평가)

- ① DMZ관련 4개 합의 : 도로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개발, 가스관 통과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관련, 현재 남측구간은 사업이 대부분 진척됐으나 북측은 아직 DMZ내 공사에 관한 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를 통해 한반도-유럽을 잇는 화물철도인 「철의 실크로드」 구상에 적극적

-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은 남북 양측이 원칙적 입장만 합의한 상태로 실질적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대대적인 투자가 수반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서
  - 중국의 심천특구가 홍콩에 한 역할을 개성이 서울에 해줄 경우 DMZ 주변의 안보상황에 실질적인 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베리아 사카(야쿠티아)와 한국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계획은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약 10년전에 구상한 것으로
  - 북측 군부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② 남북경제협력 관련합의

- 일반적 사항의 2가지 합의(10월 제2차 경추위 개최,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비준·시행)와 함께 3개 분야에 관해 구체적 논의 추진에 합의함.
  - 남북한 해역의 상호 상선통과 허용문제, 어업협력 문제, 임진강 수방협력 문제 등



### ③ 미합의 사항들 : 정치적 사항 및 전력·식량지원 문제

- 김정일 답방 및 반테러공동 선언문제 등 정치적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북측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전력·식량지원도 합의되지 못한 바
- 전력지원은 기술적·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전력지원 없이는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참 고 사 항

- 동 보고서는 美 미래전략연구소(워싱턴)에 의해 분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1/4분기와 2/4분기 보고서는 경제 및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바 있음.
- 또한 보고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된 직후의 남북관계의 낙관론과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담 자체보다는 성과 있는 회담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 현 남북관계는 양측이 합의한 문서상으로만 보면 밝아 보이나 북측이 언제 또다시 남북관계를 중단시킬지 모르는 바
- 향후 북한이 보편타당한 남측의 규칙에 얼마나 가깝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전망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0.27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북한적십자회에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촉구(한적 창설 96주년 기념사)
- 11.2 남북장관급회담 홍순영 수석대표, 북측 김령성 단장 앞 대북전통문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11.9-12간 금강산 개최 제의

### ☞ 북한 동향

- 10.25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제6차 장관급회담의 금강산 개최 재주장
- 10.30 외무성대변인,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CIRF) 연례보고서」 내용 비난(KCNA 기자회견)
- 10.30 북한 농업대표단(단장:김창식 농업상),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31차 총회(로마)에 참석차 평양 출발
- 11.3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김령성 단장, 홍순영 남측 수석대표 앞 대남전통문  
- 우리측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11.9- 12 금강산) 개최 제의 수용
- 11.3 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결정 발표(KCNA 회견)

### ☞ 주변국 동향

- 10.25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창설
- 10.25 미 국무부, 북한을 종교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규정
- 10.26 침례교 월드 에이드(Baptist World Aid),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평양 상주사무소 임대계약 체결 발표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5호>

2001.11.4~11.24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북측의 대남동향

### III. 기 타 동 향

- 미국의 대북한 「생물무기개발국」 공개지목 동향
- FAO/WFP, 금년도 북한 곡물작황평가보고서 발표
- 제13차 IFRC 총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동향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20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남북한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1.9-14간 북측 지역 금강산에서 개최
  - 우리측은 회담에서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북측의 올바른 인식 유도과 ▲제5차 회담 합의사항 일정 재조정 ▲남북간 대화국면 유지 등의 입장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측의 비상경제태세 등에 대한 북측의 이해부족으로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
- 대한적십자사는 11.19 북한측에 지난 11.18 강원도 고성군 저진 해상에서 표류 중 우리측 해군함정에 의해 예인된 북측 선박 및 선원(2명)을 송환 통일부는 11.22 남북간 교역동향을 통해 금년도 1-10월중 남북교역액이 329,728천달러로 전년동기 365,760천달러 대비 9.9% 감소했다고 발표
-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11.19 국회 예산결산위 답변을 통해 “북한이 6개 저장 시설에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천연두 균체 등 생물무기를 보유, 필요한 경우 충분한 배양이 가능하여 화생방·세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1.6 북한의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결정」 관련 환영논평을 통해 북한이 테러방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

## ◀ 북한 동향 ▶

- 북한은 11.14 제6차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과, 11.15 회담관련 「상보」, 11.24 조평통 서기국 보도(813호) 등을 통해 “북남 당국대화 자체가 중단 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무성의와 특히는 북남상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의 반복 대결자세에 있다”고 제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 11.24 중방 논평을 통해 우리측 국방백서의 「주적」 명시 관련,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이 남북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성해 통일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국테러사건을 핑계로 「비상경제조치」를 취하고 군사 훈련을 벌여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시범단 교환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측을 비난
  - 북측은 최근 제6차 장관급회담 이후 현 남북관계 교착상태와 관련 11.16 중앙TV, 11.21 평방 및 노동신문, 11.19 / 11.22 중방 등을 통해 남측의 「우익보수세력 및 군사당국」을 집중적으로 비난

- UN총회 제56차 전원회의(11.13)에서 북측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한 미군철수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등 「대미 대화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인질반대 국제협약에 가입·서명한 사실을 지적, 북한 당국의 테러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

#### ◀ 주변국 동향 ▶

- FAO와 WFP는 북한의 2001-2002년도 양곡회계연도 곡물작황평가 공동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북한의 예상수확량이 354만톤으로 지난해 수확량 257만톤에 비해 38%증가했으며, 예상수요량은 501만톤으로 내년도 예상 부족량을 147만톤으로 추정
- WHO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은 11.17-20 방북 후 11.21 방한, 프레스센터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긴급구호 대상자 중 5%만이 보건·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참담한 상황에 있다”고 밝히고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호소
  - \* 동인은 방북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최창식 보건성 부상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면담하고 황북 사리원인민병원, 평양산원, 고려의학 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 시찰 및 11.19 WHO 평양대표부 개소식에 참석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는 11.24 EU 집행위원회가 11.20 북한 강원도 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20만 유로(한화 약 2억2천만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과 지원금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원조국(ECHO)을 통해 전달될 계획이라고 발표
  - \* 동 지원금은 1만 2천명의 강원도 지역 이재민들에 필요한 담요, 취사도구, 물통, 정수제와 의약품상자 등을 공급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며, 동 사업은 국제적십자사(IFRC)를 통해 추진될 예정

## II. 주 요 동 향

### 1.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 개 요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11.9~14간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나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 및 기존의 합의사항 일정 재조정 문제에 대한 쌍방 이견으로 「공동보도문」 발표없이 종료

#### □ 주 요 내 용

##### ① 우리측 기본입장

-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 테러사태 이후 최근의 내외정세에 대한 북측의 올바른 인식 유도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일정 재조정
  - 남북간 대화국면의 지속 유지 등 3가지 기본입장으로 임했음.

##### ② 우리측의 비상경계조치 및 대외활동

- 북측은 우리의 경계강화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례적인 군사훈련, 미 공군력 증강 등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주장

- 비상경제조치 해제 등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실질 현안문제 협의와 연계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테러사태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
- 비상경제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평화를 위한 대내적 조치이고
- 대외활동 및 외교조치는 우리의 평화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족자주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 국제관계가 긴장될수록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공존 프로그램과 교류행사를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③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일정 조정 문제

- 남북 쌍방은 12월 초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등에는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장소,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

### □ 평가 및 의의

-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
- 회담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측 입장 관철 노력



- 우리측은 회담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화지속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경직시키겠다는 입장을 시사
    - \* 북측은 회담종료 후 북측 대표단 성명(11.14), 회담관련 「상보」(11.15) 등을 통해 우리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
- 남북간의 오해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신뢰구축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금번 회담을 통해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
- 이번 회담에서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 재조정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남과 북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
  - 대화국면 유지자체가 남북간 평화공존의 증거로서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쌍방에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계획

## 2.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북측의 대남동향

### □ 개 요

- 북측은 제6차 장관급회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보도를 내보냈음.
  - 제6차 회담결과 보도(11.14 12:08 중·평방)
  -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성명(11.14 21:00 중·평방)
  - 제6차 북남상급회담에 관한 상보(11.15 22:00 중·평방)
  - 노동신문 논평(11.17 13:55 중·평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813호(11.24, 평방)

### □ 주 요 내 용

- 북측은 우리측 수석대표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이를 회담결렬 책임의 「전가 수단 및 선전」으로 활용
  - 제6차 북남상급회담 결과 보도(11.14 중/평방) : 남측 수석대표는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제6차 상급회담을 아무런 결실도 없는 첫 회담으로 되게 하였음.
  - 북측 대표단 성명(11.14 중/평방) : 북남상급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남측 수석대표의 태도에 있음
  - 제6차 북남상급회담에 관한 상보(11.15 중/평방) :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수석대표가 회담을 앞두고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신뢰구축이 없는 현 조건에서는 주적개념이 불가피하다며 국방장관의 「주적발언」을 비호

- 노동신문 논평(“책임은 남측에 있다” 11.24 평방) : 남측은 설득력 없는 언동으로 여론을 우롱하지 말고 회담을 결렬 시킨 자기측 수석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북측이 우리측 수석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담 결렬책임의 우리측 전가 및 ▲협상전술차원의 의도적 행태인 것으로 평가
  - 회담결렬 책임을 남측 당국보다도 수석대표 개인의 문제로 왜곡시킴으로써 「책임전가 선전력」 제고
  - 우리측 내부에 「책임소재 논쟁」을 야기 시킴으로써 향후 우리측 대표단의 자율적 협상능력(입지) 약화 의도
  - 이와함께 금번 회담에서 수석대표가 명백한 논리 및 입장으로 북측을 압도한 데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Ⅲ. 기 타 동 향

#### 1. 미국의 대북한 「생물무기개발국」 공개지목 동향

##### □ 개 요

-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11. 19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에서 북한을 알 카에다, 이라크 등과 함께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 개발국으로 공개 지목하고 생물무기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음.

##### □ 주 요 내 용

- 북한은 수주일내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 북한은 생물무기 제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매개물을 개발·생산한 데 이어 이미 무기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
- 미국은 북한 당국이 BWC를 준수, 생물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 참 고 사 항

- BWC는 지난 72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남북한을 비롯, 세계 144개국이 가입
- BWC는 지난 80년 1차 평가회의를 가진데 이어 86년부터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갖고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생물무기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 이번 회의는 11.19~12.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북한은 불참

## 2. FAO/WFP, 금년도 북한 곡물작황평가보고서 발표

### □ 개 요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세계 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북한의 2001/02 양곡회계연도(2001.1.11~2002.10) 곡물작황평가 보고서를 발표(10.26)
- \* 2001.9.25~10.5까지 평안도, 황해도, 평양 등 북한의 7개 지역을 방문하여 곡물별 작황을 조사

### □ 주 요 내 용

#### ① 북한 식량수급 예측(2001/02 양곡회계연도)

- 예상 수확량 : 354만톤(지난해 수확량 257만톤에 비해 38% 증가)
  - \* 쌀 134만톤, 옥수수 148만톤, 감자 47만톤, 밀·보리 등 기타 작물 25만톤
- 예상 수요량 : 501만톤
- 예상 부족량 : 147만톤
  - 예상 식량수입량 10만톤을 감안해도 137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 2001/02 양곡회계연도중 외부식량지원 확보량 : 33.1만톤 - 13.1만톤 ('01.11-12월 중 전달예정) + 20만톤(중국의 지원약속분)

< 2001/02 양곡회계연도 북한 식량수급 예측 >

구분	세부내용	규모(천톤)	
자체 생산량	재고	-	3,544
	자체생산	3,544	
총 수요량	식량용	3,929	5,011
	사료용	300	
	종자	144	
	기타(손실분 등)	638	
예상 부족량	예상 수입분	100	1,467
	외부지원 요구량	1,367	

② 작황결과 분석

- 적절한 강수량, 농업분야 예산배분 증대(10%), 비료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기인한 농업여건 호전이 결정적 영향
- 2001/02 양곡회계연도 예상 수확량 354만톤은 내년도 봄작물(밀·보리·감자) 등의 예상생산량을 포함한 수치
  - 봄작물은 연간 수확량의 10%를 차지하는 바, 내년도 봄작물의 실제 수확량에 따라 예상치 354만톤 재조정 필요

③ 평가 및 전망

- 북한은 현재 구조적인 경제붕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장기적 차원의 경제복구와 식량생산지원 등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의 외부식량지원이 당분간 필수적

- 곡물작황평가단이 제시한 필수 지원분야
  - 비료·농장시설·부품 등 수출을 위한 산업복구 지원
  - 식수 및 농·공업용수 공급과 홍수·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 토질 개선·재산림화·유기비료 등 환경복구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 단일작황으로 인한 역효과 방지와 기상피해에 대비한 작물 다양화
  - 작물 및 가축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세부 연구조사

### 3. 제13차 IFRC 총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동향

#### □ 개 요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제13차 IFRC총회 및 대표자회의를 세계 178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아랍권의 적십자사)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11.7~14)

\* 「한적」에서는 서영훈 총재 등 대표단 7명 참석, 「북적」은 김석철(북적 중앙위 국제부장겸 부서기장)과 김정호(북적중앙위 상급지도원)만 참석

#### □ 주 요 내 용

##### ① IFRC총회(11.7~10) 및 대표자회의(11.12~14)

- 총회에서 연맹총재 선출(Del Toro Ribero, 스페인), 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발전 방안 등 논의

\* 연맹총재의 임기는 2년이며, 전 총재는 A. Heiberg(노르웨이)

- 대표자회의시 국제적십자운동의 전반적인 전략, 실항사민 및 난민문제 등을 분야별 위원회에서 논의

##### ② 남북적십자 대표단 활동

- 한적은 2회의 공식연설을 통해 남북이산가족교류 현황을 설명하고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
- 한적 대표단은 회의 참가외에 남북이산가족문제 등 한적의 활동에 대한 각국 적십자사의 이해와 협조 유도에 주력



- 북측은 회의기간 중 한 차례의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휴식과 리셉션시에도 다른 나라 적십자 대표들과의 접촉 전무
  - 봉두완 부총재의 총회 발언을 경청하였으나 무반응
    - \* 북측은 회의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인상
    - \* 북적 장재언 위원장은 자체 결정으로 불참, 백영호 서기장은 원산 수해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불참

### ③ 남북적십자간 접촉

- 남북적십자간 접촉은 회의장 내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한적의 3~4차례 식사 초대에 대해 북적이 거절하여 무산
- 우리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이행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북측 대표단은
  - 북한 적십자회 권한 밖의 일(정치적 성격)이라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 제6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대응
- 우리측은 북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면 우리측이 지원할 것이 많다고 강조하고
  - 북측이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해 노동신문, 방송 등을 통해 감사 표시를 할 경우 우리 여론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1.9-14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금강산)
- 11.19 대한적십자사, 북측 표류선박 및 선원(2명) 대북 송환
- 11.21 김동태 농림부장관, 남한 쌀과 북한의 어산물·광산물의 대북구상무역 검토 언급(국회에결위 답변)

### ☞ 북한 동향

- 11.5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미국의 「국제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북한 종교탄압국 규정 관련 비난 담화
  - 11.5 조선중앙통신 논평, 11.6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11.7 조선카톨릭교협회 대변인 담화 등 발표
- 11.5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발족 관련 비난 논평(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
- 11.6 범민련 북측본부, 8.15 통일대축전 참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의 국가 보안법위반혐의 구속·기소 관련 비난 성명(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 배신)
- 11.13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북·미 대화 조건 제시(11.16 중·평방)
  - 주한미군 철수, 클린턴 정부 수준의 대북 태도, 북한의 자주권 존중 등
- 11.14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제6차 장관급회담 관련 성명
- 11.19 세계보건기구(WHO) 평양 대표부 개소(11.20 조선중앙방송)
- 11.20 범민련, 범민련 결성 11돌 즈음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와 주한미군 증강의 부당성 강조

## ☞ 주변국 동향

- 11.7 제13차 IFRC 총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11.7~14)
  - 북적 장재언 위원장 불참으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무산
- 11.7 러시아의 소리, 10월중 몽골 정부의 육류 1만t 및 육류 가공품 대북지원 사실 보도
- 11.8 독일 농업부, 대북지원 냉동쇠고기 1차 선적분 6천t 북한 도착(11.12) 발표
- 11.15 한·미연태안보험협회(SCM) 개최(워싱턴)
- 11.20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방북 11.17~20, 방한 11.20-21) 및 국제사회에 대북 보건·의료지원 호소(11.20 북경 기자회견)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6호>

2001.11.25 ~ 12.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 개최
- 국방부, DMZ내 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대북성명 발표

### III. 기 타 동 향

- UN, 「2002년도 UN 합동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WFP, 「2002년도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주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국방부는 11.29 북한군의 DMZ내 우리측 초소에 대한 총격사건(11.27)과 관련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북측이 동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UNC의 접촉 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과 ▲향후 DMZ내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일체 금지를 촉구
  - \* 북한군은 11.27 10:42경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인근 DMZ내 북한군 15사단 242GP에서 우리측 25사단 247GP로 기관총 3발을 사격하여 우리측도 이에 대응사격
- 국내 7대중단 대표는 11.30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등을 위해 정치권이 남북문제에 관한 정쟁을 중단할 것과 미국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 등을 촉구(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11.27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9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11.27-12.4, 평양) 참석을 위해 방북,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11.30 제주도산 감귤 1만톤 및 당근 4천톤의 대북지원계획(12월 중순부터 '02.1월말까지)을 발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1.30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 ◀ 북한 동향 ▶

- 외무성 대변인은 11.28 KCNA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테러사건 관련 부시 대통령의 대북발언(11.26) 등과 관련하여 “제반사실은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요원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부득불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를 비난(11.29, 중방)
- 11.28 평방 논평(‘용납할 수 없는 반통일세력’)을 통해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과 관련하여 “남측의 군부호전세력과 우익보수세력에 대한 반대투쟁을 촉구”하는 등 대남비난 및 선동, 북적 중앙위는 11.29 평양 현대아산 종합체육관 공사현장에서 숨진(11.28)현대 기술자(이용희)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인도

## ◀ 주변국 동향 ▶

- 미국 부시대통령은 11.26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확산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들이 국제적인 사찰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국제사찰 수용을 촉구
- UN은 11.26 내년도 「UN 합동 대북지원계획」을 발표하고 '02년도 대북 지원 규모를 2.6억달러로 확정, WFP도 11.27 「2002년 WFP 대북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대북지원 목표액을 2억 1,585달러로 책정

## II. 주 요 동 향

### 1.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 개최

#### □ 개 요

- 한·미·일 3국은 11.27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Oversight Group)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

\* 각 국 수석대표 : 임성준 외교통상부 차관보(한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미국),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일본)

#### □ 주 요 내 용(공동언론발표문 요지)

- 3국 대표단은 북한이 2개의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제 반테러 노력에 대한 협력 및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 3국 대표단은 남북대화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94년 제네바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3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
- 한국 대표단은 최근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 이후의 남북대화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간 기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음.



- 미국 대표단은 전제조건없이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북한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표명하였음.
  
- 일본 대표단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2. 국방부, DMZ내 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대북성명 발표

### □ 개 요

- 국방부는 11.29(목)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우리측 GP에 대한 총격사건(11.27)과 관련하여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이의 진상규명 및 향후 정전협정위반의 일체 금지를 촉구

### □ 주 요 내 용(대북성명)

- 유엔사는 현장조사 결과 이번 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안으로 확인하고 비서장급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한 후 현재까지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
- 우리는 금번 북한군의 총격사건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남북간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군은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의 접촉제의에 즉각 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 앞으로 DMZ내에서의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초래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전적으로 북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 □ 참 고 사 항(사건경과)

- '01.11.27(화) 10:42경 총격사건 발생
  - 북한군 15사단 242GP에서 우리측 25사단 247GP로 기관총 3발 사격 및 우리측 대응사격(k-3, 10여발)
  
- '01.11.27(화) 13:00~15:30 UNC 현장조사
  - 현장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
  
- '01.11.27(화) 18:20 군정위연락단, 비서장급 접촉을 위한 대북 전통문 전달 통보
  - 군정위 비서장급회의 개최 제의(11.29 10:00)
  
- '01.11.27(화) 18:50 북측, 대북전통문 접수거부 통보
  
- '01.11.27(화) 21:00 군정위연락단, 대북전통문 전달 재통보
  
- '01.11.29(목) 15:30 국방부, 대북성명 발표
  
- '01.11.29(목) 16:30 UNC,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을 위한 대북 전통문 통보
  - 군정위 비서장급 회의 개최 제의(11월30 10:00)

### Ⅲ. 기 타 동 향

#### 1. UN, 「2002년도 UN 합동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 개 요

- UN은 11.26 제네바에서 「2002년 UN 합동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1.27 「인도지원 공여국 회의」를 갖고 대북 인도지원 요청액을 공식 확정

##### □ 주 요 내 용

- 2002년도 UN의 대북지원사업 규모는 약 2.6억불
  - 2001년도 대북지원 목표 3.9억불의 67% 수준
  - \* UN기구의 대북지원 규모 감소는 금년도 북한의 식량 증산 등 식량 사정 완화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으로 평가
- 분야별로는 식량안보 90.1%, 보건 7.4%, 식수·위생 1.9%, 사업 조정 0.4%, 교육 0.2%의 순서
  - 2001년도 식량안보 94.4%, 보건·위생 5.2%, 사업조정 0.3%, 교육 0.1% 비율에 비교할 때, 식량안보 비중은 감소하고 보건·식수·위생 및 교육지원의 비중은 증대
  - 식량지원 등 긴급구호 사업만으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복구·개발사업의 중요성 강조
- 한편 UN은 북한의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복구·개발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 북한 당국이 국제원조기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의

□ 참고 사항

① 기구별 사업 내용

기구	주요 사업	규모(만불)
FAO/UNDP	이모작·감자생산, 토질·비료생산성 향상 지원	1634
OCHA (유엔인도지원조정국)	2002년 인도지원사업 조정, NGO 사업 지원	96
UNDP (유엔개발계획)	고구마 전분 국수 생산, 산림 사업, 재해 예방 및 피해감소	176
UNFPA (유엔인구기금)	가족계획 지원, 산부인과·비뇨기과 서비스에이즈 예방 교육	100
UNICEF (유엔아동기금)	기초교육·필수약품 지원, 면역확대사업, 여성·어린이 보건 구호, 식수·환경 위생	1037
WFP	긴급구호(식량지원) 특별구호(취로사업, 지방 식량생산, 식량분배)	2,1361
WHO	필수 의약품 지원, 면역확대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말라리아·에이즈·기타 전염성 질병 퇴치·예방, 결핵관리	724
Children's Aid Direct (CAD)	함남지역 식량생산 지원, 산림사업, 임신·수유여성·어린이 지원, 수인성 질병 예방	187
Cooperazione e Sviluppo (CESVI)	강원지역 어린이 겨울나기 지원 강원지역 수인성 질병 예방 지원	115
Canadian Foodgrain Bank (CFGB)	강원지역 보건·영양 통합지원	65
Concern Worldwide	가축사육 지원, 환경보호 및 복구 농촌지역 급수 지원	130
DWHH/German Agro Action(GAA)	겨울밀 종자 관리·개발 지원	26
Handicap International Belgium	장애인 대상 정형외과 서비스 및 재활지원	57
Triangle Generation Humanitarire	평안남도 지역 산림 및 환경보호, 8개 협동농장 대상 급수·위생 분야 지원	105
총 계		2,5813

\* WFP 사업계획서에서는 총 사업규모를 21,585만불로 제시

## ② UN의 북한 취약계층 평가

1급 취약계층		
5세이하 어린이	220만명	높은 질병·사망 위험 영양부족 상태 백만명 성장지체 저체중아 다수
임신·수유여성	45만명	영양상태 불량, 빈혈 30만명 출산시 사망률 증대 과중한 육체노동, 수유능력 부족
일반 취약계층		
고아원 어린이	1.5만명	제도적·지역적 차원의 보호 불가능
취학아동	4백만명	보건·영양상태 불량 교육의 질 저하
노인	2백만명	보건·영양상태 불량 식량획득 기회 부족(노동불가능)
결핵환자	4.5만명	보건·영양상태 불량 치료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위험
장애인	미상	정보부족
지역적 구분		
동북부 지역	5백만명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산악지대 농업용지 부족, 기후조건 불리 대부분 공업도시로서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주민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일부 해안지역	10만명	자연재해의 피해가 큰 지역
중소도시 주민	1200만명	기반시설 붕괴로 식수·위생 서비스 저하 농지·식량획득이 어려움
북한 주민 전체		
전체 인구	2300만명	식량 획득 기회부족 보건·식수·위생·교육 등 기초 서비스의 질 저하

## 2. WFP, 「2002년도 대북지원 사업계획」 발표

### □ 개 요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11.27 워싱턴에서 2002년 「WFP 대북지원 사업계획」을 발표

### □ 주 요 내 용

#### ① 사업개요

- 사업명 : DPR Korea EMOP 10141.0
- 사업기간 : 2002.1.1 ~ 2002.12.31(12개월)
- 수혜인원 : 640만명
- 식량규모 : 611,202톤
- 식량비용 : 1억 3,494만불
- 총비용 : 2억 1,585만불

#### ② 지원내용

구분	규모(톤)	금액(US\$)
곡물	522,838	85,222,594
기름	20,626	13,510,030
콩류	26,802	6,968,520
설탕	10,016	2,804,340
분유	6,124	17,758,150
가공식품	24,797	8,678,950
합계(식량비용)	611,202	134,942,584

### ③ 북한상황 평가 등

- WFP는 북한이 여전히 외부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업복구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결론 도출
- 어린이·임산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영양부족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저체중아와 영아 사망률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
  - \* 지난 3년간 식량지원 효과 및 현재 북한주민 영양상태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1998년 WFP/UNICEF의 공동 조사에 이어 후속적인 영양실태 조사를 2002년중 실시 예정
- 북한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삭주에 대한 모니터링가능성을 시사한 바, 접근가능 지역은 현재 211개 시·군중 167개 지역에서 168개 지역으로 증가할 전망
  - 북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모든 모니터링 기획을 개별 팀에 위임, 지역별 사무소와 공공배급소, 어린이 보육시설, 수혜가정 및 취로 사업 현장 등을 방문
  - 현재 국제요원 56명중 30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요원 증원 이후 월별 평균 모니터링 수는 350회로 증가



④ 수혜자 분포

구 분		수혜자 규모(명)	비 율(%)	
고아원 어린이 (0세-16세)		7,100	75.2%	
보육원 어린이(6개월-4세)		1,356,400		
유치원 어린이(5세-6세)		649,600		
초등학교 학생(7세-10세)		1,394,100		
중등학교 학생(11세-16세)		676,000		
임신·수유여성		357,000		
노인		365,000		
소아병원	환자	24,400		
	가족	24,400		
심한 영양부족 환자(소아병원)		60,000		
소계		4,829,600		
취로사업		1,200,000		18.7%
춘궁기 대비 지원분		144,000		2.2%
재난 대비 지원분		250,000	3.9%	
총 계		6,423,600	100.0%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1.26 제6차 총련동포 고향방문단 방한(11.26-12.1, 총 72명 : 단원 62명, 수행원 8명, 기자 2명)
- 11.2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9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11.27-12.4 평양) 참석 관련 방북
- 11.27 합참, 북한군의 DMZ내 우리측 초소에 대한 총격 사실 발표
- 11.27 유엔사, 비무장지대내 북측 총격사건 발생관련 대령급 접촉제의
- 11.27 현대상선, 동해항 여객터미널 내 현대상선 동해사무소 폐쇄 결정
- 11.30 (사)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산 감귤 1만톤 및 당근 4천톤 대북 지원 계획 발표
- 11.30 7대종단 대표, 국내 정치권의 남북문제 관련 정쟁 중단 및 미국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 촉구
- 11.30 국회(통외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 채택

### ☞ 북한 동향

- 11.29 북적, 평양 현대아산종합체육관 건설중 사망(11.28)한 남측 기술자 시신 대남인도(관문점)
- 11.29 북한 군축대표단(단장 : 외무성 소장식 구주국 부국장), 독일 외무부와 '한반도 군축세미나' 개최(베를린)
  - \* 독일은 당초 동 세미나에 남북한 대표단을 동시 초청하였으나 북측의 거부로 북측 단독참가로 최종 결정

### ☞ 주변국 동향

- 11.26 부시 미대통령,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국제사찰 수용 촉구
- 11.26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2002년도 대북 인도지원 사업계획 발표
  - \* 북한이 식량난 등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지적,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전략 및 접근방식 재검토 요청
- 11.28 미국 하원, 의회와 대통령에 대해 '재미한인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 노력 촉구 결의안' 채택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7호>

2001.12.2~12.1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한적,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 III. 기 타 동 향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북 농산물지원 동향
- IFRC, 2002년 및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 발표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0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김대중 대통령은 12.4 유럽 방문중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지와 회견을 통해 ▲현재 미·북 양측이 모두 대화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북한 자신의 필요성 ▲국제적인 권고 등으로 볼 때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 김대통령은 12.7 노르웨이 NRT TV와 회견을 통해서도 한반도 주변 4대국 등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12.4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영국 BBC 방송과 회견에서 남북대화의 소강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적 서영훈 총재는 12.11 북적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의 연내 실시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개최(12.14)를 제의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한국노총은 12.1 각각 ▲북한 민족화해 협의회의의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금강산) 실무접촉」 제의 사실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한국노총 간부 방북 초청 사실을 발표

## ◀ 북 한 동향 ▶

- 북한은 12.4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주장 (평방, “기자들과의 대담”)
- 12.6 평방 보도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12.3)을 비난, 12.4에는 일본의 「조총련」 강제수색(11.29) 규탄 군중대회를 원산시에서 진행
  - \* 「조총련」 강제수색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11.30)·청년동맹 중앙위(12.2)·농근맹 중앙위(12.4)·여맹 중앙위(12.5) 성명 및 노동신문 논평(12.3) 등 발표

## ◀ 주변국 동향 ▶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12.4 2002년도 및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을 발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2.13 북한과 「경수로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에 서명
-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12.7 중국의 탈북자 난민판정 여부에 대해 “UN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독립주권국이며, 내부 정치상황이 안정된 한 나라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 중국의 북한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이 곤란함을 지적(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강연)

## II. 주 요 동 향

### 1. 한적,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 □ 개 요

-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는 12.11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 대북전통문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내 실시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개최를 제의

#### □ 주 요 내 용

- 서영훈 총재는 통지문에서 이미 방문단교환의 세부절차 문제에 대해 남북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준비해 연내에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촉구
  - 구체적인 사항은 12.14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 금번 한적의 제의는 생사를 확인하고도 상봉하지 못해 상심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상봉을 실현시켜 달라고 요망하는데 따른 인도적 조치로
  - 11.30 개최된 「남북적십자교류전문위원회의」의 연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노력 건의(자문)도 고려

### Ⅲ. 기 타 동 향

#### 1.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북 농산물지원 동향

##### □ 개 요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금년도에 생산된 제주도산 감귤, 당근 등 총 14,000톤 규모 농산물의 대북지원('01. 12월 중순~'02. 1월말)을 추진

##### □ 주 요 내 용

- 동 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인도적 대북지원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정례적으로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
  - '98년 감귤 100톤, '99년 감귤 4,336톤, '00년 감귤 3,031톤 및 당근 2,000톤 등 지원
- 금번 농산물지원은 감귤 1만톤·당근 4천톤 등 총 42억 상당으로 금년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해로(제주도-남포항)로 전달할 계획
- 농림부는 12.7 올해 수매 감귤 가운데 1만톤을 대북지원용으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무상지원키로 결정
  - '98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주도민들이 3년간 연속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을 벌인 업적을 평가해 무상 지원 결정
- 농산물의 지원은 북측에 대한 인도적 도움은 물론, 국내 농가소득 보전 등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2. IFRC, 2002년 및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 발표

### □ 개 요

- 디디에 세르피텔 국제적십자연맹(IFRC) 사무총장은 12.4 IFRC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

### □ 주 요 내 용

- 2002년도와 2003년도 IFRC의 대북지원 목표를 각각 1,241만 스위스 프랑(약 753만불) 및 1,218만 스위스 프랑(약 739만불)으로 설정
  - 2002년도 목표는 2001년도(696만불) 대비 약 57만불 증가
  - 2003년도 목표는 2002년도(753만불) 대비 약 14만불 감소
- 분야별 지원계획 내용

(단위 : 스위스 프랑, 1CHF=0.6065 USD)

구 분	2002년 목표	2003년 목표
재난구호 대비	1,084,213	1,079,157
보건구호	10,344,719	10,234,607
조직개발	392,809	277,640
사업조정	591,854	591,854
합 계(식량비용)	12,413,596(약753만불)	12,183,258(약739만불)



○ I F R C의 대북지원 실적

기 간	목 표	실 적
1차 ('95.10~'96.6)	415만불	349만불
2차 ('96.4~'96.10)	574만불	443만불
3차 ('96.11~'97.11)	2,813만불	2,159만불
4차 ('97.12~'98.11)	1,400만불	826만불
5차 ('99.1~'99.12)	900만불	295만불
6차 ('00.1~'00.12)	659만불	301만불
7차 ('01.1~'01.12)	696만불	397만불('01.11)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2.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금강산) 실무접촉」 제의 사실 발표
- 12.1 한국노총,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한국노총 간부 방북 초청 사실 발표
- 12.7 농림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대북지원용으로 수매 감귤 1만톤 무상지원 결정 발표
- 12.11 한적 서영훈 총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내 실시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개최 제의 대북전통문

### ☞ 북한 동향

- 12.3 관광총국 대표단(단장 : 여승철 총국장), 스페인의 세계관광기구 본부 방문차 평양출발
- 12.4 일본의 「조총련」 강제수색 규탄 원산시 군중대회 개최  
\* 외무성 대변인 (11.30) · 청년동맹 중앙위 (12.2) · 농근맹 중앙위 (12.4) · 여맹 중앙위(12.5) 성명 및 노동신문 논평(12.3) 등 발표
- 12.5 김정일 위원장, 주북 러시아 신임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접견
- 12.6 평방, 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12.3) 비난 보도

### ☞ 주변국 동향

- 12.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서울사무소 개소
- 12.3 KEDO-북한간 「경수로 품질보증 및 보증의정서」 서명
- 12.4 국제적십자연맹(I F R C), 2002년 및 2003년도 대북지원계획 발표
- 12.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개최(12.6-7, 서울)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2001-제28호>

2001.12.12 ~ 12.21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조평통 대변인, 최근 남북관계 관련 담화 발표

### III. 기 타 동 향

- 통일부, 1-11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0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 내 동 향 ▶

- 정부는 12.20 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과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과 남북간 선박운행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 이와함께 12.13 제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 강영석)의 대북농산물지원(총비용 42억원 상당)에 따른 수송비·조작비 중 15.8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
- 통일부는 12.19 금년도 「1-11월중 남북교역동향」을 통해 동 기간중 남북 교역액이 총 3억 6,268만 2천달러로 전년동기 9.3% 감소했음을 발표

## ◀ 북 한 동 향 ▶

- 북한은 12.17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남측의 조속한 비상경제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존중 및 남북간 기 합의사항 이행의지가 변함이 없음을 강조
- 평방(12.17)을 통해 미국의 ABM조약 탈퇴 결정 발표(12.13)를 간략히 사실 보도하고, 12.13 주한미군철수 주장(중방 보도)과 12.14 미국의 남태평양 상공에서의 미사일 요격실험(12.4) 비난(중방 시사논평), 12.16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를 비난(평방 보도)하는 등 대미비난을 강화

## ◀ 주변국 동향 ▶

- 미국 부시 대통령은 12.13 미국의 ABM조약 탈퇴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 등 주요국 수반에 이를 공식통보
  - \* 이와관련 동일▲러시아(푸틴 대통령 성명)는 “미국의 결정은 실수”라며 반대입장을 발표 ▲중국(江澤民 주석 신화통신 회견)은 “현 상황에서 ABM협정의 존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발표, 일본(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언론회견)은 “부시 대통령의 냉전 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패러다임 구축 모색을 이해한다”며 지지
-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12.11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북미간 갈등설」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및 군사충돌 발생시 최대피해자가 한반도 국민임을 강조하고, 긴장완화로 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어떠한 변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II. 주 요 동 향

### 1. 조평통 대변인, 최근 남북관계 관련 담화 발표

#### □ 개 요

- 북한은 12.17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비상경제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측의 조속한 전환적 조치’를 요구

#### □ 주 요 내 용(담 화 요 지)

- 지금 온 겨레는 현 북남관계가 풀려 6.15 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에 부합되게 하루빨리 쌍방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어 모든 일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 있음.
- 남측은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벌써 몇 달째 대화 일방을 심히 자극하는 비상경제조치를 지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결렬시키고 감히 주적론까지 고창하면서 나라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음.
- 더욱이 남조선 통일부장관은 우리의 군부까지 거들며 갈등이니 고립이니 하고 시비질하고 있음.
- 남측이 시간을 아끼고 용단을 내려 더 늦기 전에 온 겨레가 납득할 수 있는 전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함.
-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것을 확고히 지켜나가며 북남 사이에 합의된 모든 일정들을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 통일부 대변인 담화(12.20)

-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음.
-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함.
- 북측이 금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평가하며, 조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금번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도 상호 인정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대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해소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민족의 안전과 존엄, 번영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다시 한번 북측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우리측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로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힘.

### Ⅲ. 기 타 동 향

#### 1. 통일부, 1-11월중 남북교역동향 발표

##### □ 개 요

- 통일부는 12.19(수) 올해 1-11월중 남북 총교역액이 3억 6,268만 2천 달러로 전년동기 399,765천달러 대비 9.3% 감소했음과
  - 이같은 남북교역액 감소가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수요 위축과 남북간 운송여건 및 제도적 장치 미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 주 요 내 용

##### ① 교역전반

- 2001년도 1-11월중 남북교역액은 362,682천달러로 전년동기 399,765천달러 대비 9.3% 감소
  - 반입액은 155,989천달러로 전년동기 140,558천달러 대비 10.9% 증가
    - \*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섬유류 등
  - 반출액은 206,693천달러로 전년동기 259,207천달러 대비 20.3% 감소
    - \*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섬유류 등
- 1-11월중 명목교역수지는 50,704천달러로 남한이 흑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9,626만 8천 달러 흑자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368개(위탁가공업체 122개)이며, 품목은 총 584개 품목(위탁가공교역 품목 269개)

## ② 거래성 교역

- 1-11월중 거래성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은 210,903천달러(반입 153,585천달러, 반출 57,31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58.2%
  - 상업적 매매거래는 93,662천달러(반입 84,022천달러, 반출 9,63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25.8%, 거래성 교역액의 44.4%
  - 위탁가공교역은 117,241천달러(반입 2,403천달러, 반출 47,678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32.3%, 거래성 교역액의 55.6%

## ③ 비거래성 교역

- 1-11월중 비거래성교역은 151,779천달러(반입 2,403천달러, 반출 149,37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41.8%
  - 협력사업용 교역은 48,640천달러 (반입 2,403천달러, 반출 46,238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1%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13.4%, 비거래성 교역액의 32.0%
  -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은 103,13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하고, 전체교역액의 28.5%, 비거래성 교역액의 68.0%

## □ 평 가

- 남북간 교역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거래성 반출입의 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출입에 있어서는 불균형 심화가 크게 완화
  - 이는 경수로사업물자·금강산관광사업 물자 등 협력사업용 반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또한 남북교역에 있어서 위탁가공의 비중이 큰 바, 올 1-11월 중 위탁가공교역은 117,241천달러로 전체교역액의 32.3%, 거래성교역액의 55.6%를 차지
  - 이는 동 교역방식이 남한의 임금상승 요인과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및 체제안정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 향후 남북교역이 진정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우리민족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 남한 경제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일방적 대북지원 등의 방식에서 탈피, 상호주의 원칙 등의 시장경제원리가 점차 강화되어야 할 필요
  - 또한 위탁가공교역 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직접교역이나 남북공동개발 방식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필요

## 2.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 개 요

- 통일부는 2001.12.13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 「통일교육 3개년 계획」 및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심의·의결

\*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설치

### □ 주 요 내 용

#### ① 통일교육 3개년 계획

- 사회 각계 논의를 토대로 통일교육 내용체계의 표준들을 정립하여 통일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기본지침,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함.
- 통일교육관련 기관간 통일교육 프로그램·자료·강사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정부·민간 통일교육 협력체제를 강화함.
- 생활속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학습시설 확대 및 통일문화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강좌 등 사이버 통일교육을 강화함.
-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 교육훈련기관의 통일교육강좌 설치를 확대 추진함.

- 통일교육현장 지원체계 운영, 통일교육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및 통일교육 연구교수제 도입 등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함.

## ② 2002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헌법 제4조 통일조항, 교육법, 통일교육지원법 등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추구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함.
- 통일교육기본지침서와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교과서 개편작업에 반영토록 함.
  - 특히,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부응하는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함.
-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남북대화과 협력과 함께 우리 사회내부의 계층별 세대별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규정함.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12.13 기독교탈북자회 등 탈북자 관련 5개단체, 탈북자 호칭 변경 국회청원 제출
- 12.13 통일부,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12.13 금강산 사랑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 12.20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대변인 담화(12.17) 관련 논평 발표

### ☞ 북한 동향

- 12.10 평방,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 제하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강조
- 12.10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 창설
- 12.11 평방,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행위' 제하 남측 비상경계조치 및 군사연습 비난
- 12.13 노동신문, 일본 국회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개정안 채택 비난 논평
- 12.17 조평통 대변인, 최근 남북관계 관련 담화 발표

### ☞ 주변국 동향

- 12.10 북·러 제15차 어업협상 개최
- 12.10 EU-KEDO간 협력방안 발표
- 12.13 부시 미 대통령, ABM협정 탈퇴 발표
- 12.13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ABM협정 탈퇴 관련 성명 발표

<끝>



# 주간 남북관계동향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제29호>

2001.12.22 ~ 2002.1.2

## < 목 차 >

### I. 개 황

### II. 주 요 동 향

-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III. 기 타 동 향

- 북한, 일본의 피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 IV. 분야별 일지

이 자료는 지난 12일간 남북대화 관련 대내외 주요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I. 개 황

## ◀ 국내 동향 ▶

-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2.21 언론회견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옥수수) 10만톤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지원할 방침임을 설명
- 통일부는 12.21 「금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와 전망」을 발표하고, 2001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
  - 2002년도 경제시책과 관련, 대내적으로는 「라남의 봉화」 기치 아래 집단적 생산문화(계획경제)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외자유치를 위해 상황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이원적 경제시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 ◀ 북한 동향 ▶

- 1.1 「2002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 가야 함”을 강조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자주 및 민족공조 실현을 주장
-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2.27 중방을 통해 김일성 주석 생일 90돌 즈음 「대사(면) 실시」에 대한 정령(12.13)을 발표
- 외무성 대변인은 12.27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괴선박 추격 격침(12.22)과 관련한 최근 일본측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본이 동 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측과 결부시키고 있다며 “금후 일본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 ◀ 주변국 동향 ▶

- 일본 해상보안청은 12.22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서북 약 240km 해상)에 출현한 怪船舶을 추격,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기관포 공격을 가해 격침시킨 사실을 발표
  - \* 이와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12.23 괴선박 침몰 후 바다에 뛰어난 선박승무원 15명중 3구의 시체를 발견, 그 중 2구를 인양했음과 ▲시신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글문자 표시 및 한글이 표기된 과자봉지가 발견되었음을 발표
- 미국 상원은 12.20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 이와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강신권 집행위원장은 북한측과 재미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구체적 협의(12.20)를 마치고 조만간 협약을 체결 '02년 2월부터 상봉이 실현될 수 있음을 언급(12.21 연합뉴스 회견)

## II. 주 요 동 향

### 1. 통일부장관,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 개 요

-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12. 21 언론회견(기자간담회)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키로 한 정부방침을 설명

#### □ 주 요 내 용

-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시급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 동시에 국제기구의 식량지원 요청에 동참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한데 기인
- 금번 지원은 WFP의 대북 식량지원 Appeal에 참여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지원품목 및 규모는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약230억원 상당)으로 결정
  - 지원시기는 WFP의 식량조달 상황 등을 고려,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계획
- 기타 물품인도·인수, 물품포장, 분배 모니터링, 행정비 지급 등 수송 및 대북전달에 따르는 구체적 세부절차는 WFP와 추가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 2.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 개 요

- 북한은 1.1 오전 9시 라디오·TV 등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을 발표
- 금년도에는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 제시를 통해 체제결속 강조에 역점을 두면서 ▲대남부문에서는 남북대화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 없이 원칙적 입장 및 관망적 자세를 표명

### □ 주 요 내 용

#### < 2001년도 성과 >

- 2001년도를 김정일의 위대성이 과시되고 선군혁명노선이 결실을 거둔 해로 평가
  - 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 등으로 평가

#### < 2002년도 과제 >

- 2002년도를 ▲총진격의 해,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설정하고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실천목표로 제시

- 「우리 수령 제일주의」 정신 발양을 통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과
- 「우리 사상 제일주의」를 통한 주체사상으로서의 무장
- 「우리 군대 제일주의」를 통한 「선군정치」 당위성
  - \* 최고사령관에 절대복종,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확립, 혈연적 군민관계 강화 등 강조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등을 강조
  - \* 전력·석탄 등 선행부문의 계속적 추진, 인민생활 향상,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관리의 개선, 과학기술 및 교육 사업 발전을 통한 공업의 기술 개선·현대화 등 촉구
-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자주 및 민족공조 실현 등을 주장
    - \* 우리측에 대해서는 주적론 및 보안법 철폐, 외세결탁 반역행위 금지, 침략군(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
-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대외관계 기본이념(자주, 평화, 친선)을 생략
  - \* 지난해에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언급

## □ 평 가

- 금번 공동사설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정세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 대내적으로는 당면과제로서 김일성 90회 생일 및 군창건 70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4대 제일주의」 제시 등으로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 대외적으로는 미·일에 대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당분간 정세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평가
- 남북관계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강조 등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 북미관계 등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리획득 차원에서 남북대화 재개 등 선별적 대응이 예상되며
  - 대남 비난 및 요구사항 등의 수준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두면서 정세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

### Ⅲ. 기 타 동 향

#### 1. 북한,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 개 요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괴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찰함의 사격을 받고 침몰(12.22)한 사건과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12.27)을 통해 일본 당국을 비난

##### □ 주 요 내 용

- 며칠 전 일본 당국은 「정체불명의 배」를 추적한다는 구실 밑에 술한 함선과 비행기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 수역까지 들어가 배를 침몰시키는 무력행사를 감행하였음.
- 전말은 어떻든 간에 일본이 자기 영해 밖에서 실전행동을 공공연히 벌려놓은 것은 그들의 재무장화와 해외팽창야망이 매우 위험천만한 계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임.
- 더욱이 일본 당국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여론을 제멋대로 내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모독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최근 연이어 우리를 걸고 들면서 모략을 꾸미려 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후 일본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 참고 사항(일본 해상보안청 발표 상황일지)

### <12. 22>

- 06:20 해상보안청 중형비행기(MA861), 아마미 오시마 서북 약 240Km 해상에서 괴선박 확인
- 12:48 해상보안청 순시선, 아마미 오시만 서북서 약 324Km 해상에서 괴선박 확인
- 13:12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형비행기(MA833)가 괴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불응 및 도주
  - \*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20척을 해당수역으로 급파
- 14:36 해상보안청 순시선, 괴선박에 대해 20미터 기관총으로 최초 위협사격 실시
- 14:37~15:17 해상보안청 순시선, 4차례 위협사격 실시
- 16:16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船尾에 기관포 발사 및 명중
- 16:58 선체사격 실시
- 17:23 기관포로 선체사격 실시, 全彈 명중
- 17:24 괴선박에서 화재발생
- 17:26 괴선박 정선(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383Km 해상)
- 17:51 괴선박, 화재진압
- 17:53 괴선박, 남남서 방향으로 11노트로 운항개시
- 17:56 괴선박, 15노트로 증속
- 18:18 괴선박, 정선후 4노트로 운항재개(18:20)
- 18:30 괴선박, 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400Km 해상에서 정선
- 18:32 괴선박, 속력 2.5 노트로 운항 재개
- 18:52 해상보안청 순시선, 괴선박에 강제 접현 시도
- 18:53 아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 400Km 해상에서 동선박 정선,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포 시도
- 21:22 괴선박, 서향으로 6노트 속도로 운항 재개
- 21:53 해상보안청 순시선, 동선박 선체에 기관포 발사 및 全彈 명중, 괴선박 정선

- 22:09 괴선박의 사격으로 해상보안관 2명(항해장 및 항해사)부상 발생  
순시선도 대응사격 실시
- 22:13 동 선박 완전침몰(수몰위치 수심은 약 90m)
- 22:17 동 선박 승조원 15명이 바다에 표류중이나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접근 곤란
- 23:45 해상보안청(순시선 5척 및 항공기 1기), 현장해역에서 조명탄을  
사용해 수색 및 구조활동 개시

#### <12. 23>

- 00:00 자정 이후 순시선 15척, 항공기 13기를 증파, 수색구조활동 강화
- 08:49 시체1구 인양(자색 스웨터, 흑색방한복에 적색 구명조끼 착용  
남자)
- 08:53 시체1구 추가 인양(오렌지색 잠바, 주머니에 한글글자가 적힌  
과자봉지, 감색 스웨터, 적색 구명조끼 착용 남자)
- 09:08 해상보안청 항공기, 오마미 오시마 서북서 약392Km 해상에서  
표류중인 2구의 사체 발견 및 이중 1구 인양
- 11:40 사체 3구 발견, 구명조끼에 한글문자 표기

#### <12. 24>

- 행방불명자 수색을 위해 순시선 12척, 항공기 16척 현장 파견
- \* 일본言論들은 괴선박이 △99년 3월 일본수역을 침범한 북한 공작선과  
유사한 형태 △순시선에 대한 정확한 대응사격 △인양한 승무원의 구명  
조끼에 한글이 새겨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정보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본 當局의 공식적 확인 발표는 없는 상황



## 2.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발표

### □ 개 요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은 12.25 성탄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

### □ 주 요 내 용

- 성탄절을 맞으며 남북의 교회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오고 온 세상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
  - 남북의 그리스도교인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자주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 남북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선반도에 대한 무력행위에는 세계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단호히 반대
- ※ 동 「공동보도문」은 12월 11일 평양에서 남한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김동완 총무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였으며, 12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전문 보도

### 3. 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

#### □ 개 요

- 한국조폐공사는 12.28(목)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새천년 통일기원 메달'을 판매해 조성된 수익금 1억1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

\*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출연 총액은 21억 6,688만원

#### □ 주 요 내 용

- 한국조폐공사(유인학 사장)는 12.28 서울 그린파크 웨미리 랜드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어린이 교류를 위한 「2001 사랑의 카드 보내기 대축제」를 개최
- 동 행사는 「민족통일운동본부」·「시민운동연합신문」 등과 공동으로
  - 연말연시를 맞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과 함께 「구호물품」을 전달함으로써
  - 통일한국의 주역인 남북어린이 교류를 통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
- 또한 동 행사에선 한국조폐공사가 새 천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새 천년 통일기원 메달」 판매를 통하여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1억 1,769만원의 전달식도 병행

## IV. 분야별 일지

### ◀ 국내 동향 ▶

- 12.21 홍순영 통일부장관,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
- 12.22 韓赤의 '01년도 제19차 지원물자 전달계획(남북적십자간 제3차 지원의 추가지원물량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개 단체 기탁 물품) 관련 북측의 「인도요원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
- 12.26 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 강조(軍 주요지휘관 오찬)
- 12.2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논의

### ◀ 북한 동향 ▶

- 12.25 평양방송, 남북기독교단체 「성탄절 공동보도문」 전문 보도
- 12.26 평방,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비난
- 12.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일성 생일 90돌 즈음 「대사(면) 실시」에 대한 정령(12.13) 발표
- 12.27 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괴선박 격침사건 관련 중앙통신 회견
- 1.1 북한, 「2002년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 주변국 동향 ▶

- 12.22 일본 해상보안청,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괴선박 추격 격침
- 12.24 고이즈미 일본총리, 괴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12.25 뉴욕 타임스, “괴선박 사건은 북일관계에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논평
- 12.27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괴선박 관련 북한 외무성의 대일비난에 대해 유감 표명
- 12.28 아프간 평화유지군 본진 현지 배치(UN 안보리 12.20 파병안 승인)

<끝>



## 2001 남북관계동향

발행일 : 2002년 1월 31일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처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